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윤 경 호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유연우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ltant Competency,
Consultant Trust, and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on Employee's Hybrid Start-up Desire and Start-up Intention
- Focused on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MGB) -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윤 경 호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유연우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ltant Competency,
Consultant Trust, and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on Employee's Hybrid Start-up Desire and Start-up Intention
- Focused on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MGB) -

위 논문을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윤 경 호

윤경호의 컨설팅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상 봉 (인)

심 사 위 원 김 정 렬 (인)

심 사 위 원 유 연 우 (인)

심 사 위 원 전 우 소 (인)

심 사 위 원 한 충 근 (인)

국 문 초 록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지 식 서 비 스 & 컨 설 텅 학 과
매 니 지 먼 트 컨 설 텅 전 공
운 경 호

급여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의 추가 소득 확보, 해고 또는 정년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경제활동 준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창업을 시도하는 전업(專業) 창업자의 사업실패에 따른 파산위험 감소 등을 위해 직장인들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Hybrid 창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Hybrid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Hybrid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행동예측이론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 MGB)을 활용하여 선행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과 Hybrid 창업열망 간의 영향관계 이외에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요인들로 컨설턴트 역량, 컨설턴트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을 제시하였다.

전국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을 감안한 급여성화자 직장인 20대~50대 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6월 16일까지 외부리서치기관 및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된 유효표본 1,128부를 대상으로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PLS 기반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Partial Least Squares SEM : PLS-SEM)을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 SmartPLS 3.0(Ver. 3.3.3)을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측정모델의 평가, 구조모델의 평가 등 통계분석을 한 후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 MGA)을 통해 조절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관련 실증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의 역량은 Hybrid 창업 관련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Hybrid 창업열망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기대감정과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컨설턴트의 신뢰는 Hybrid 창업 관련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ybrid 창업열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어 Hybrid 창업열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Hybrid 창업 관련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상기 5가지 선행변수들은 모두 Hybrid 창업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시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신용보증기관의 정부보증지원을 이용한다면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Hybrid

창업에서 창업열망은 창업의도에 매우 큰 영향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매개효과분석에서 컨설턴트 역량이 창업열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변수들 중 창업태도와 긍정적 기대감정이 보완적 부분매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Hybrid 창업열망이 보완적 부분매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분석에서는 일부 경로들 간에 성별 집단(남성, 여성), 겸직금지 집단(여, 부), 연령대 집단(저연령, 고연령),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 불안정), 가구소득 집단(고소득, 저소득)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면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직장인들 중 약 67.3%가 과거 또는 현재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Hybrid 창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실패 가능성, 창업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Hybrid 창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 중 약 71.2%가 주로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등의 분야에서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과 가설검증, 조절효과분석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 첫째, 본 연구가 Hybrid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전담 컨설턴트와 컨설팅 산업을 접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Hybrid 창업을 연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에 다른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인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턴트 신뢰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로 처음으로 동시에 도입하였고, Hybrid 창업 전에 지원을 하는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연구변수를 신규로 추가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셋째, 컨설턴트 신뢰라는 요인은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ybrid 창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

이지 않았는데, 신뢰라는 요인이 기존의 이론들과 다르게 Hybrid 창업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기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Hybrid 창업에서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열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Hybrid 창업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 변수들 모두가 창업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및 이를 통해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은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를 양성한 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Hybrid 창업 전담 컨설턴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열망을 감소시켜 Hybrid 창업의도를 낮추는 것을 나타냈는데, 컨설팅 틈새시장으로서 Hybrid 창업컨설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서 컨설턴트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신용보증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예비창업보증의 부실화 방지 및 창업실패 후 재도전 지원을 위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위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여성 본인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고연령 집단인 40대~50대에 Hybrid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안정 집단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겸직금지에 제한이 없다면 신뢰가 높은 컨설턴트를 통해 창업태도와 긍정적 기대감정을 증가시켜 Hybrid 창업열망을 높일 필요가 있고, 고소득 집단에게는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를 통해 Hybrid 창업열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장인들이 현재의 직장과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일본과 같이 직장인들의 겸직금지를 해제하여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정부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컨설팅업체는 새로운 틈새시장인 Hybrid 창업컨설팅에 대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다음의 연구들을 통해 부족한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

다. 첫째, Hybrid 창업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영향을 준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Hybrid 창업의도가 어느 정도 증감하였는지 측정하고 실제 Hybrid 창업한 경우 Hybrid 창업지속기간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인들이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시점의 전과 후로 구분하여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가 창업열망 등에 주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턴트 신뢰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실제 Hybrid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Hybrid 창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용보증기관들의 예비창업보증 이외에도 교육 지원, 인프라 지원, 직접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들의 영향력들을 비교하여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주는 정부지원제도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Hybrid 창업을 실제하고 있거나 과거 영위한 사실이 있는 Hybrid 창업자를 대상으로 Hybrid 창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창업컨설팅과는 달리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Hybrid 창업컨설팅 방법론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시한다.

【주요어】 컨설턴트 역량, 컨설턴트 신뢰, Hybrid 창업, 예비창업보증,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창업열망, 창업의도,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6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Hybrid 창업	9
1) Hybrid 창업의 개념	9
2) Hybrid 창업의 선행연구	10
제 2 절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16
1) 합리적 행동이론(TRA)	17
2) 계획된 행동이론(TPB)	19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21
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연구	23
제 3 절 컨설턴트 역량	37
1) 컨설턴트 역량의 개념	37
2) 컨설턴트 역량의 구성요소	39
3) 컨설턴트 역량의 선행연구	46
제 4 절 컨설턴트 신뢰	54
1) 컨설턴트 신뢰의 개념	54
2) 컨설턴트 신뢰의 구성요소	57
3) 컨설턴트 신뢰의 선행연구	58
제 5 절 Hybrid 예비창업보증	67
1)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개념	67
2)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제도	69
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69
나)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70

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창업보증	72
3) 정부지원제도의 선행연구	74
제 3 장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82
제 1 절 연구모형	82
제 2 절 연구가설	83
1) 컨설턴트 역량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 간의 관계 ·	84
2) 컨설턴트 신뢰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 간의 관계 ·	86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과 창업열망 간의 관계	88
4) 예비창업보증과 창업열망, 창업의도 간의 관계	89
5) 창업열망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90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91
1) 변수의 개요	91
2) 컨설턴트 역량	91
3) 컨설턴트 신뢰	92
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변수들	93
5) Hybrid 예비창업보증	95
제 4 절 조사방법	97
1) 연구대상 및 표본 수집	97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99
3) 자료의 분석방법	104
제 5 절 연구의 차별성	107
제 4 장 연구결과	110
제 1 절 표본의 특성	110
1) 인구통계학적 특성	110
2) 측정변수들의 분포	115
제 2 절 측정모델의 평가	117
1) 집중타당도	118
2) 판별타당도	124

3) 내적 일관성 신뢰도	132
제 3 절 구조모델의 평가	137
1) 다중공선성	141
2) 결정계수(R^2)	142
3) 효과크기(f^2)	143
4) 예측적 적합성(Q^2)	145
제 4 절 연구가설 검증 및 기타 연구분석	146
1) 연구가설 검증	146
2) 매개효과분석	154
3) 조절효과분석 : 다중집단분석(MGA)	159
가) 다중집단분석 : 성별(남성, 여성)	161
나) 다중집단분석 : 겸직금지(여, 부)	165
다) 다중집단분석 : 연령대(저연령, 고연령)	169
라) 다중집단분석 : 직장 안정성(안정, 불안정)	173
마) 다중집단분석 : 가구소득(고소득, 저소득)	177
바) 다중집단분석 : 기타 분류	181
4) 기타 설문결과 분석	182
제 5 장 결 론	18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185
제 2 절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188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192
참 고 문 헌	194
부 록	223
ABSTRACT	232

표 목 차

[표 1-1] 국내 경영컨설팅 산업현황 추이	4
[표 2-1] Hybrid 창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정리	14
[표 2-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29
[표 2-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	34
[표 2-4] IT 컨설팅 역량 모델	39
[표 2-5] 컨설팅 역량 평가체계	41
[표 2-6] 경영컨설팅 역량사전	42
[표 2-7] 컨설턴트 역량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51
[표 2-8] 컨설턴트 신뢰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63
[표 2-9]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제도 비교	73
[표 2-10] 정부지원제도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78
[표 3-1] 컨설턴트 역량의 조작적 정의	92
[표 3-2] 컨설턴트 신뢰의 조작적 정의	93
[표 3-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잠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94
[표 3-4]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조작적 정의	96
[표 3-5] 2019년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97
[표 3-6] 표본수집 설계의 내용	98
[표 3-7] 설문지의 구성	100
[표 3-8] 자료의 분석방법	107
[표 3-9] 본 연구의 차별성 정리	109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12
[표 4-2] 표본의 기초통계분석(정규성)	115
[표 4-3]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최초)	119
[표 4-4]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최종)	122
[표 4-5] HTMT의 수용기준과 판별타당도의 해석	125
[표 4-6]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1) : Fornell-Larcker 기준	126
[표 4-7]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2) : 교차적재치	127
[표 4-8]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3) : HTMT _{.85} /HTMT _{.90}	129

[표 4-9]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4) : HTMT _{추론}	130
[표 4-10]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평가 결과	133
[표 4-11] 다중공선성의 평가 결과 : 내부 VIF	141
[표 4-12] 결정계수(R^2)의 평가 결과	142
[표 4-13] 효과크기(f^2)의 평가 결과	143
[표 4-14] 예측적 적합성(Q^2)의 평가 결과	145
[표 4-15]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평가 결과	147
[표 4-16] 연구가설 검증결과 정리	151
[표 4-17] 특정간접효과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 결과	155
[표 4-18]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한 매개효과분석 결과 ...	158
[표 4-19] 성별 집단(남성/여성)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161
[표 4-20] 성별 집단(남성/여성)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	162
[표 4-21] 성별 집단(남성/여성)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	163
[표 4-22] 겸직금지 집단(여/부)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165
[표 4-23] 겸직금지 집단(여/부)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	166
[표 4-24] 겸직금지 집단(여/부)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	167
[표 4-25] 연령대 집단(저연령/고연령)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169
[표 4-26] 연령대 집단(저연령/고연령)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170
[표 4-27] 연령대 집단(저연령/고연령)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171
[표 4-28]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불안정)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	173
[표 4-29]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불안정)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174
[표 4-30]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불안정)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 효과	175
[표 4-31] 가구소득 집단(고소득/저소득)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	178
[표 4-32] 가구소득 집단(고소득/저소득)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178

[표 4-33] 가구소득 집단(고소득/저소득)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179
[표 4-34] 향후 창업할 Hybrid 창업업종 관련 답변 결과	182
[표 4-35] 향후 Hybrid 창업할 계획이 없는 사유 관련 답변 결과	183
[표 4-36] Hybrid 창업컨설팅 의향 관련 답변 결과	184
[표 4-37] Hybrid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관련 답변 결과	184



그 림 목 차

[그림 1-1] 창업 직전 직업상태 비율	2
[그림 2-1] 합리적 행동이론(TRA) 관련 기본모형	17
[그림 2-2] 계획된 행동이론(TPB) 관련 기본모형	20
[그림 2-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관련 기본모형	21
[그림 3-1] 연구모형	83
[그림 4-1] PLS-SEM의 알고리즘(algorithm) 실행 결과 : 표준화된 회귀계수, R^2	138
[그림 4-2] PLS-SEM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실행 결과 : t-value	139
[그림 4-3] PLS-SEM의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 실행 결과 : Q^2 ...	140
[그림 4-4] 연구모형 관련 가설검증 결과	153
[그림 4-5] 매개효과분석 절차	154
[그림 4-6] MICOM(Measurement invariance of Composite Models) 절차	15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등 급격한 경기 침체와 AICBM(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여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빠른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업(專業) 창업자는 사업 이외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도산위험이 높아지고 있다(Yun, You, Park & Park, 2021).

2021.4월 서울회생법원에 의하면, 전체 파산신청자 중 실직으로 파산신청한 사람이 2018년 약 35.3%에서 2019년 약 45.1%, 2020년 약 48.9%로 급증한 반면, 사업실패로 파산신청한 자영업자는 2018년 약 48.3%에서 2019년 약 48.1%, 2020년 약 45.7%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오프라인 직장의 고용 감소, COVID-19 등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소득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홍혜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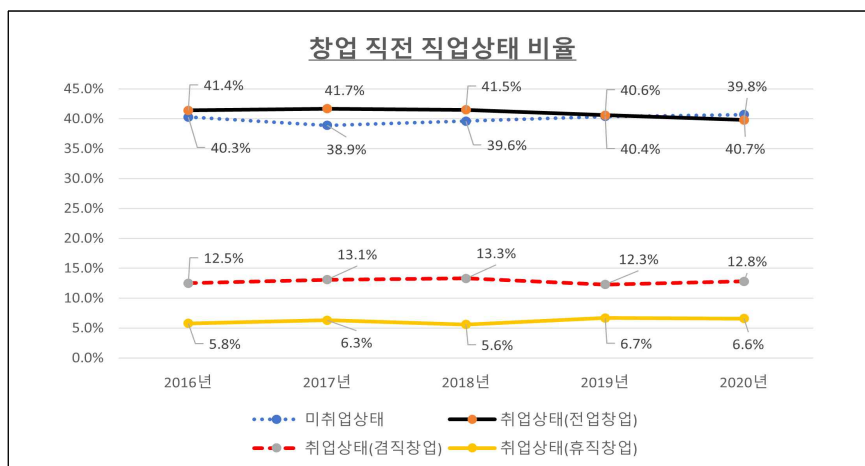
통계청(2020a)의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2018년 활동기업 중 2017년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약 63.7%이며 2013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약 31.2%로 나타났는데, 창업기업 10개 중 약 4개는 1년 이내에 도산하고 5년 이내에는 7개 업체가 도산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창업이 용이한 업종인 도소매업, 부동산업(공인중개사 포함),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19년 창업기업 중 약 62.3%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2019년 소멸기업 중 약 65.8%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3개 업종의 경우 도산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최근 사업경험 부족, 높은 투자 비용 등에 따른 창업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직장을 다니면서 본인의 취미생활 또는 전문지식, 관심분야 등을 바탕으로 소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유튜버(YouTuber), VJ(Video Journalist) 등은 물론, 온라인 공간과 공유오피스를 사용한 1~2인 창업기업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 통계청(2020a)에 의하면, 2019년 종사자수 1인(대표자 포함) 규모의 활동기업은 전체 활동기업의 약 78.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1인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약 89.6%를 차지하고 있어 1인 창업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창업진흥원(2020a)의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서 과거 창업의 경험이 없이 1인 창업기업을 설립한 비율이 전체의 약 77.0%로 창업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경력과 현업의 연관성이 있는 비율이 전체의 약 77.9%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또한, 창업 관련 조언 네트워크는 배우자, 친척, 친구 등의 주변 지인이 약 47.1%, 동일사업 경험자 약 26.1%, 기존 직장동료 및 상사 약 23.7%로 나타나고 있다(창업진흥원, 2020a).

창업진흥원(2020b)에서 전국 8,0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서 전체 창업 중 창업 직전 취업상태가 약 59.3%, 미취업상태가 약 40.7%이며, 취업상태의 경우 ‘창업 전 근무하던 직업을 퇴직한 상태에서 전업으로 창업’ 약 39.8%, ‘창업 전 근무하던 직업과 겸직하는 상태에서 창업’ 약 12.8%, ‘창업 전 근무하던 직업을 휴직한 상태에서 창업’ 약 6.6%로 나타나서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하는 상태(휴직 포함)는 약 19.4%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창업 직전 직업상태 비율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창업 직전 직업상태 비율



<출처> 창업진흥원(2016-2019/2020b)

[그림 1-1]과 같이 한국의 최근 5년간 겸직상태에서 창업하는 비율은 전체 창업기업 중 약 12%~14%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의 겸직으로 창업하는 비율이 낮은 사유는 한국의 헌법 제15조¹⁾에 의해 직업을 다수로 가지고 있거나 겸업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 기업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두어 직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²⁾ 및 제26조(겸직 허가)³⁾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여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외부 활동 시 삼성전자인으로의 품위를 지킨다. 재직 중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외부 겸직, 겸업, 부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의 명예와 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민은행은 ‘직원은 은행장의 승인 없이 당행 업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다고 하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이 기업의 제품에 대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적극 장려하여 기업과 직원에게 모두 이득이 되기도 한다(김은지, 2019).

1)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 업무방식 개혁안으로 직장인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던 노동법을 2018년 1월 개정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다른 회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인의 부업과 겸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본 리쿠르트 커리어의 ‘2020년 부업·겸업 동향조사’에서 일본 기업체들 중 약 49.5%가 직원들의 부업제도를 도입하였고 약 39.2%가 직원들의 부업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김형원, 2021a/2021b).

한국도 주 5일(또는 주 4일) 근무에 따른 여유시간 활용, 실업에 따른 생계비 감소 방지,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받으면서 창업을 시도할 기회 제공, 향후 수명연장에 따라 퇴직 후 경제활동 준비 등을 위해 일본처럼 겸직금지를 완화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박현주, 2021).

국내 경영컨설팅 산업은 [표 1-1]과 같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10년간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사업체수 증가율보다 매출액 및 종사자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경영컨설팅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영세한 컨설팅업체의 창업이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국내 경영컨설팅 산업현황 추이

구 분	2010년	2011년	……	2018년	2019년	증가율 ^{주)}
사업체수(개)	3,127	3,735	……	9,200	10,228	327.1%
매출액(억원)	45,897	47,315	……	101,255	111,047	241.9%
종사자수(명)	29,639	30,462	……	50,155	54,235	183.0%

주) 2010년 대비 2019년 증가율, 출처 : 통계청(2019c)

영세 컨설팅업체는 소속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진행시 밀착컨설팅이 가능하고 소규모 컨설팅에 대한 공급이 전문적으로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컨설턴트를 모집하여 소상공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컨설턴트 모집을 통해 제공하는 컨설팅 분야는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투자·디지털 전환 분야이며, 컨설턴트는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한 후 컨설팅 성과 등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양질의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소상공인컨설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을 하는 ‘긴급경영 컨설팅’과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 지원책을 제공하는 ‘창의 육성 컨설팅’의 2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긴급경영 컨설팅의 지원 분야는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투자·디지털전환 분야이며, 2021년은 연간 3,500건 내외로 소상공인 1인당 연 1개 분야(1일~4일)로 컨설팅 비용의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창의 육성 컨설팅은 제품 가치 향상, 판로 창출, 스마트 전환, 경영·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 개선을 지원하며, 2021년은 연간 1,500건 내외로 소상공인 1인당 연 1회(2일)에 한하여 컨설팅 비용의 100%(600천원)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상기 소상공인컨설팅은 대부분 영세 컨설팅업체가 전담하는 컨설팅으로 점차 증가하는 영세 컨설팅업체들을 위해 새로운 컨설팅 틈새시장의 발굴이 추가로 필요하다.

직장인으로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로는 금융 지원, 기술개발 지원, 인력 지원, 판로 지원, 수출 지원, 여성장애인지역기업 지원 등이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이 중에서 금융 지원은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신용보증 지원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는 직장인과 같은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증으로 예비창업보증이었다.

정부보증기관 중 하나인 신용보증기금은 예비 유망창업기업(전문자격, 아이디어, 기술·지식 창업)을 대상으로 창업 전에 보증한도(운전과 시설을 합하여 최대 10억원)를 심사 및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 통지 후 6개월 내에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을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없어도 창업 전 예비 유망창업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신용보증기금, 2021).

그러나, 예비창업보증 이후 경기침체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시 신용보증의 기한이익을 즉시 상실시켜 안정적인 가계유지가 어렵게 되고 재창업이 어려워므로, 신용보증 관련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소득(직장인의 급여 등)이

있고 재창업의사가 있는 경우 일시적 상환을 유예하여 직장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2022년 3월말까지 대출 만기연장 209조 7천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 1천억원, 이자 상환유예 2천억원 등 총 222조원이 연장 및 유예시켰다(이나리, 2021). 2022년에 코로나19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급여소득 등과 같이 소득재원이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도산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Hybrid 창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급여소득이 있어 원리금 일부 상환 및 재창업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유시간 활용, 실업에 따른 생계비 감소 방지, 수명연장에 따라 퇴직 후 경제활동 등을 위해 직장인의 Hybrid 창업(Hybrid Start-up)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행동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인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 MGB)을 중심으로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열망에 대하여 선행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점, 부정적 기대감점, 지각된 행동통제)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영세 컨설팅업체가 전담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서 새로운 컨설팅시장인 Hybrid 창업컨설팅의 도입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의 선행변수로서 Hybrid 창업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과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를 추가하여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Hybrid 창업의 특성에 맞는 예비창업보증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해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정부지원을 통해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자가 제시한 모든 가설경로에 있는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 직장인의 성별, 겸직금지 여부, 연령대, 직장 안정성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의 영향을 통해 Hybrid 창업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 Hybrid 창업,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컨설턴트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 관련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 관련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Hybrid 창업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Hybrid 창업지원을 위한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상기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컨설턴트 관련 2개 잠재변수들(컨설턴트 역량, 컨설턴트 신뢰),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7개 잠재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Hybrid 창업열망, Hybrid 창업의도), 정부지원 관련 1개 잠재변수(Hybrid 예비창업보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상기 잠재변수들에 대해 선행연구들로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측정항목들을 반영한 조작적 정의를 거쳐 설문지를 설계한 후 전국 지역별/연령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등을 감안한 급여성활자 직장인 20대~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외부리서치기관 및 온라인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취합된 유효표본들을 대상으로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PLS 기반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Partial Least Squares SEM : PLS-SEM)을 위한 통계분석 프로그램 SmartPLS 3.0(Ver. 3.3.3)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측정모델의 평가, 구조모델의 평가 등 통계분석을 한 후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또

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분류 후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 MGA)을 통해 조절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일반적인 논문의 구성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연구결과, 결론의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Hybrid 창업과 관련된 배경, 영세 컨설팅업체의 틈새시장에 대한 발굴 필요성, 예비창업보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Hybrid 창업,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컨설턴트 역량, 컨설턴트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기술하였다.

제3장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연구주제에 맞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본 연구 관련 잠재변수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술한 후 각 잠재변수들에 맞는 측정항목들로 설문내용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 관련 설문대상자가 Hybrid 창업이라는 용어, 본 연구의 설문도와 설문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Hybrid 창업에 대한 개념 등을 설문지에 포함시켰으며,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활용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마지막에 기술하였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유효표본들에 대해 통계프로그램으로 실증분석을 한 모든 분석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표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의 분포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한 후 본 연구모형이 가설검증에 적합한지 측정모델의 평가와 구조모델의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구가설 검증 이외에 매개효과분석과 조절효과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제4장에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한 후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 관련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향후 진행할 연구방향을 기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Hybrid 창업

1) Hybrid 창업의 개념

하이브리드(Hybrid)라는 용어는 전기와 휘발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디지털 카메라와 DSLR(Digital Single Lens Reflex) 카메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카메라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능이나 요소를 결합한 것’이라고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요소에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점만을 혼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미상;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미상).

국내에서 Hybrid 창업 연구를 최초로 진행한 김진희b(2019)는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상태와 동시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를 의미하는 Hybrid 기업가(Hybrid entrepreneur) 관련 Folta, Delmar와 Wennberg(2010), Raffiee와 Feng(2014), Thorgren, Nordström과 Wincent(2014) 등의 선행연구들로부터 Hybrid 창업은 임금 근로자 상태에서 창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Folta et al.(2010)은 Hybrid 기업가를 직장에서 주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고, Raffiee와 Feng(2014)은 Hybrid 기업가는 ‘급여 피고용자→하이브리드→풀타임 자영업자’의 경로로 사업하는 중간단계로 Hybrid 창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고 하였으며, Thorgren et al.(2014)은 Hybrid 기업가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Side business)을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에게는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Hybrid 창업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Hybrid 창업을 하는 직장인들은 배우자 등 가족 또는 지인명의로도 창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Hybrid 창업은 퇴근 후 여유시간 또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파트타임(Part-Time) 창업 또는 일반적으로 풀타임

(Full-Time)으로 사업을 하되, 본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종업원, 가족 등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투잡(Two-Job)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진희b, 2019).

앞서 선행연구들을 감안하여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Hybrid 창업(Hybrid start-up)을 현 직장에서의 기본적으로 급여생활자로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Part-Time) 또는 투잡(Two-Job) 창업을 영위하고 있는 직장인의 창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2) Hybrid 창업의 선행연구

Hybrid 창업에 대하여 김진희b(2019)의 박사학위논문인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창업 자기효능감이 창업선행인식과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 연구사례로는 최초로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 직장인은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Hybrid 창업의도는 낮아졌는데, 직무만족도의 하위변수(시간적합성, 임금공정성, 승진공정성) 중 선호하는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가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시간적합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b, 2019).

상기 연구자 이외에는 국내에서 직장인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하는 Hybrid 창업보다 다음과 같이 직장인이 향후 퇴직 또는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김주희(2013)는 한국 서비스업 직장인들의 낙관적 회복력이 도전정신에 영향을 주어 창업자신감을 높인다고 하였다.

직장인들이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퇴직예상연령, 노후대책여부, 경제적 노후준비정도, 퇴직 후 창업여부, 퇴직 후 생활전망, 퇴직 후 소득확보계획, 퇴직 후 생활비지출계획), 심리적 요인(위험감수성향,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환경적 요인(사회경제적 위기, 부정적 창업인식, 고용불안정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개인적 요인 중 퇴직 후 창업여부와 퇴직 후 생활전망, 심리적 요인 중 위험감수성향, 환경적 요인 중 부정적 창업인식

과 고용불안정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은퇴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최양림, 2013). 중년 직장인의 개인특성인 혁신성, 성취욕구, 위험감수성향이 퇴직 후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통제소재는 창업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화, 2015). 또한, 직장인의 직무수행능력 중 목표수행능력, 노후준비도 중 경제적 준비와 외적관계 준비, 미래불안감은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외적관계 준비가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박국근, 하규수, 2020).

직장인들의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인 성격 감정의 활용을 높이면 은퇴 후 창업의도가 높아지며, 기업가형 마인드셋이라는 기업가 정신과 사람들 간의 관계인 사회적 자본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도 높아진다(박혜성, 박우진, 배병윤, 2020; 송창운, 박주영, 2020).

이상길(2018)은 직장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연령, 학력, 직장 종사기간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공무원보다 회사원과 전문직에서, 월평균 소득 5백만원 이상에서 창업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직장인의 개인적 특성이 인맥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장유진, 이병희, 2019).

Hybrid 창업에 대한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 많은 편으로 이는 해외에는 Hybrid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진희b(2019)는 Hybrid 창업의도에 대한 논문연구에서 선행연구들 중 Folta et al.(2010)의 연구논문인 'Hybrid Entrepreneurship'이 Hybrid 기업가 및 Hybrid 기업가정신 연구의 토대로서 Hybrid 창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Folta et al.(2010)은 지식집약적 부문의 스웨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Hybrid 기업가정신을 통해 Hybrid 진입자와 자영업자 진입자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Hybrid 진입은 자영업자 진입과 다른 임금소득이 있고, Hybrid 진입의 선호는 전환비용, 사업의 불확실성, 인적자본의 질에 따라 달라지며, Hybrid 진입과 자영업자 진입은 서로 다른 모델이라고 하였다.

상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 Campbell과 De Nardi(2009)가 미국 내 초기기업가 590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업 기업가보다 유급 노동자로서 일하면

서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주당 35시간 이상을 초기기업에서 일하는 풀타임 사업가의 비중은 약 30%이며,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업하는 파트타임 사업가의 비중은 약 68%이다. 이 연구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국내보다 Hybrid 창업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

Hybrid 기업가의 임금 근로시간과 창업기업 종사시간 간 시간할당에 대한 연구에서 기업가 4명 중 1명은 Hybrid 창업으로 평균 4개월간 임금근로자로서 근무했으며, Hybrid 기업가의 시간할당은 기업가의 위험태도 보다 조절초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urmeister-Lamp, Lévesque & Schade, 2012). Hybrid 기업가의 풀타임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구한 Raffiee와 Feng(2014)은 퇴직 후 풀타임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것보다 Hybrid 기업가가 상대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높으며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Thorgren et al.(2014)은 Hybrid 기업가에서 열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열정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창업에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Ratna Indudewi(2015)는 Hybrid 기업가의 성공요인으로 강한 내적 결단력이라는 내적 요인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시스템 및 프로젝트 관리 기술,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외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Thorgren, Sirén, Nordström과 Wincent(2016)는 장기적으로 부업을 하는 경우와 기업가로 팀 또는 종신재직에 있는 경우 열정은 Hybrid 기업가정신의 주된 동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Hybrid 기업가의 풀타임 기업가로 전환에 있어 나이가 증가될수록 풀타임 기업가로 전환되기 어려워 연령과 풀타임 기업가로의 전환의도 간에는 역U자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horgren et al., 2016). Hybrid 기업가정신과 기업 진입 규제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고학력의 Hybrid 기업가들이 풀타임 기업가보다 진입 규제에서의 변화에 더 잘 대응하며, 다양한 직업 소유자들의 소득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Hybrid 기업가의 소득이 2개의 직업에서 고용됨으로써 임금 소득보다 확률상 더 높다고 한다(Schulz, Urbig & Procher, 2016; Schulz, Urbig & Procher, 2017).

Viljamaa, Varamäki와 Joensuu-Salo(2017)는 풀타임 기업가와 파트타임 기업가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Hybrid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연

구대상의 소수만이 풀타임 기업가(전업 기업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고 파트타임 기업가가 기업가 활동에서 자기 성취의 동기를 부여하여 Hybrid 기업가를 지속한다고 하며, Solesvik(2017)은 Hybrid 기업가는 고용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가와 풀타임 기업가로 전환하려는 기업가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Hybrid 기업가정신의 진입방식(새로운 벤처 창업 대 사업인수)의 경우 프랑스 Hybrid 기업가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에서 교육적 성취와 경영경험이 있는 기업가는 벤처창업을 선호하고 여성, 근로자 경험,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경우 사업인수를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Xi, Block, Lasch, Robert & Thurik, 2017). 기업가적 사다리를 오르는 직원들의 Hybrid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결과에서 초기 기업가의 약 50% 이상이 고용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임금 근로자가 기업가로의 전환은 비즈니스 조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드러운 지원과 높은 업무 자율성에 의해 촉진된다고 한다(Luc, Chirita, Delvaux & Kepnou, 2018).

Hybrid 기업가로부터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자영업의 사회경제적 이질성 관련 연구에서 자영업은 불안정성과 빈곤을 주거나 개인에는 부, 사회에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을 주며, 사람들 간에 임금 노동, 자영업, Hybrid 기업 사이에 전환이 증가하고 풀타임 자영업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Bögenhold, 2019). 기업가적 마케팅과 Hybrid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명확한 전략적 지향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Ferreira, Lord Ferguson & Pitt, 2019).

Marshall, Davis, Dibrell과 Ammeter(2019)는 파트타임 기업가정신은 근로자로서 혁신적인 행동을 확립하도록 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며, Pollack, Carr, Michaelis와 Marshall(2019)은 종적 탐색을 통해 Hybrid 기업가의 자기효능감과 지속성 변화에서 Hybrid 기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지속성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Hybrid 기업가정신에서 풀타임 기업가정신으로 전환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실패위험, 인지된 위험, 기업가적 역량 개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Ferreira, 2020).

Lazear(2005)의 기업가정신 이론을 재검토하여 Hybrid 기업가의 특성을 연구한 사례에서는 Hybrid 기업가가 될 확률은 더 넓은 전문직과 경영 경험

이 있을수록 증가하나, 교육의 수준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한다(Kurczewska, Mackiewicz, Doryń & Wawrzyniak, 2020). Hybrid 기업가는 혁신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연구한 실증분석에서 Hybrid 기업가의 기업가적 문화는 기업가적 참여와 관련이 있고 기업가적 참여는 혁신적인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Yunita, 2021).

상기의 Hybrid 창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한 김진희b(2019)가 정리한 해외연구들을 추가로 보완하여 정리하면 [표2-1]과 같다.

[표 2-1] Hybrid 창업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연구주제	착안사항
Campbell & De Nardi (2009)	초기기업가의 존재, 목표, 투자 자원, 성과, 보완할 사항을 연구	사업에만 전념하는 기업가보다 유급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사업하는 기업가들의 비중이 많음
Folta et al. (2010)	Hybrid 기업가정신을 통해 Hybrid 진입자와 자영업자 진입자의 차이를 연구	Hybrid 진입은 자영업자 진입과 다른 임금소득이 있고, 양자간 서로 다른 모델을 가지고 있음
Burmeister-Lamp et al. (2012)	Hybrid 기업가의 임금근로시간과 창업기업 종사시간 간 시간 할당에 대한 연구	기업가의 약 25%가 Hybrid 창업으로 평균 4개월간 임금근로자로서 근무하며 시간할당은 조절초점에 의해 영향을 받음
Raffiee & Feng (2014)	Hybrid 기업가의 풀타임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구	퇴직 후 풀타임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것보다 Hybrid 기업가가 상대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높음
Thorgren et al. (2014)	Hybrid 기업가에서 열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	열정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거나 창업에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동기가 됨
Ratna Indudewi (2015)	Hybrid 기업가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연구	Hybrid 기업가는 내적 요인(내적 결단력)과 외적 요인(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및 프로젝트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이 중요
Nordström et al. (2016)	기업가로 팀과 종신재직시의 영향을 감안한 Hybrid 기업가정신에서 열정을 연구	장기간 부업하는 경우 기업가정신의 주된 동기가 되지 못함

연구자	연구주제	착안사항
Thorgren et al. (2016)	Hybrid 기업가의 풀타임 기업가로 전환에 있어 연령과 의도 간의 관계를 연구	Hybrid 기업가의 풀타임으로 전환에서 나이가 증가될수록 풀타임 기업가로 전환되기 어려움
Schulz et al. (2016)	Hybrid 기업가정신과 기업 진입 규제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고학력의 Hybrid 기업가들이 풀타임 기업가보다 진입 규제에서의 변화에 더 잘 대응함
Schulz et al. (2017)	다양한 직업 소유자들의 소득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 Hybrid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연구	Hybrid 기업가의 임금소득보다 확률상 더 높음
Viljamaa et al. (2017)	풀타임 기업가와 파트타임 기업가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Hybrid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소수만이 풀타임 기업가로 전환을 고려. 자기 성취의 동기를 부여하여 Hybrid 기업가를 지속함
Solesvik (2017)	Hybrid 기업가정신에서 기업가가 고용과 자영업을 결합하는 방법과 이유를 연구	Hybrid 기업가는 고용상태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와 풀타임 기업가로 되려는 자로 양분됨
Xi et al. (2017)	Hybrid 기업가정신의 진입방식 (새로운 벤처창업 대 사업인수)에 대하여 연구	높은 교육을 받은 자와 사업경험자는 벤처창업을 선호. 여성, 근로 경험자, 사회적 혜택자는 사업인수를 선호함
Luc et al. (2018)	기업가적 사다리를 오르는 직원들의 Hybrid 기업가정신을 연구	초기 기업가의 약 50% 이상이 고용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
Bögenhold (2019)	Hybrid 기업가로부터 역만장자가 될 수 있는 자영업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관한 연구	자영업은 불안정성과 빈곤 또는 개인에는 부, 사회에는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옴
Ferreira et al. (2019)	기업가적 마케팅과 Hybrid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명확한 전략적 지향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Marshall et al. (2019)	혁신적인 기업가로서 파트타임 기업가를 평가	파트타임 기업가정신은 근로자로서 혁신적인 행동을 하는 지식,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
Pollack et al. (2019)	종직 탐색을 통해 Hybrid 기업가의 자기효능감과 지속성 변화를 연구	Hybrid 기업가의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적 지속성 성장과 연관되어 있음

연구자	연구주제	착안사항
김진희b (2019)	직장인의 직무만족과 창업 자기 효능감이 창업선행인식과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선호하는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의 차이가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시간적합성이 높을수록 Hybrid 창업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짐
Ferreira (2020)	Hybrid 기업가정신에서 풀타임 기업가정신으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	실패위험, 인지된 위험, 기업가적 역량 개발, 자기효능감이 전환 결정의 요인이 됨
Kurczewska (2020)	Lazear의 기업가정신 이론을 재검토하여 Hybrid 기업가의 특성을 연구	Hybrid 기업가가 될 확률은 더 넓은 전문직과 경영 경험이 있을수록 증가하나, 교육의 수준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함
Yunita (2021)	Hybrid 기업가는 혁신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를 연구	Hybrid 기업가의 기업가적 문화는 기업가적 참여와 관련이 있고 기업가적 참여는 혁신적인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출처〉 김진희b(2019)의 연구자료 및 연구자 재정리

제 2 절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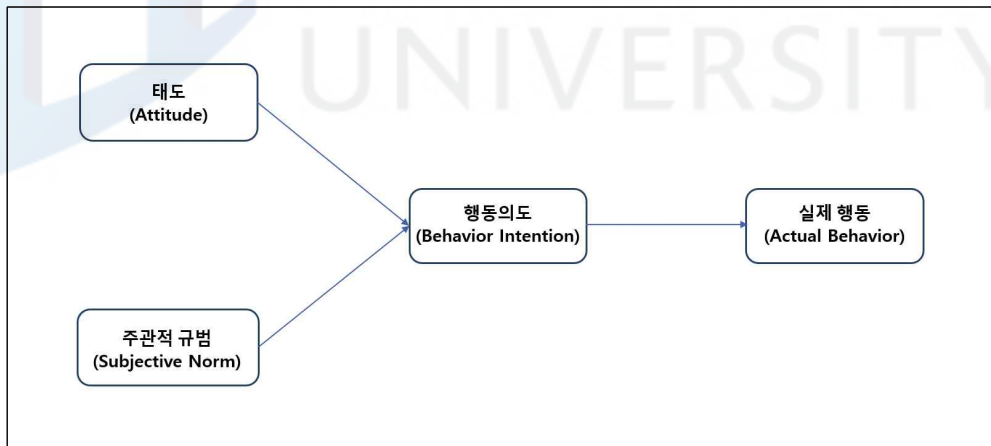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복잡성 속에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사회적 태도나 성격 특성과 같은 행동 성향을 언급하는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려는 노력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인간의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행동예측이론으로 Fishbein와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 Perugini와 Bagozzi(2001)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 MGB)이 현재까지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 모델로 갈수록 행동을 예측하는 다양한 선행변수들이 증가하여 점차 발전되어 왔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1985/1991; Perugini & Bagozzi, 2001).

1) 합리적 행동이론(TRA)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은 태도에 관한 다양한 문헌에 적용되도록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틀을 시도하기 위해 Fishbein 과 Ajzen(1975)이 제시한 행동이론이며,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의도의 형성 및 행동 변화를 다루는 모델이다.

[그림 2-1]과 같이 합리적 행동이론의 기본모형은 합리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제 하에 형성된 개인적 요인인 태도(Attitude)와 사회적 요인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이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를 결정하고 행동의도에 의해 실제 행동(Actual Behavior)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김문식, 2014).

[그림 2-1] 합리적 행동이론(TRA) 관련 기본모형



〈출처〉 Fishbein & Ajzen(1975)

태도는 어떤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생각인 신념(Belief)과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평가(Evalu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에 대한 규범적

인 신념(Normative belief)과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합하려는 동기(Motivation to comply)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김문식, 2014; 최서연, 2017).

태도는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좋아함, 싫어함 등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김진희a, 2019).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 분야 또는 연구 목적에 맞게 태도를 다양하게 측정하는데, 다이어트 행동에 대한 태도를 ‘쓸모없는 것-유용한 것, 효과적이지 않은-효과적인, 유리하지 않은-유리한, 어리석은-현명한 등’과 같이 서로 반대적인 감정적인 반응들로 제시되었고, 건강기능식품 구매행동에 대하여 ‘가치가 있다, 좋다, 의미가 있다, 현명하다, 긍정적이다, 유익하다’로 정의되기도 한다(Perugini & Bagozzi, 2001; 최서연, 2017).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의 행동 여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압력을 행위자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김문식, 2014; 김진희a, 2019).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을 연구함에 있어 주관적 규범을 본인의 중요한 사람들이 본인이 복합리조트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지지해 줄 것이다, 이해해 줄 것이다, 동의해 줄 것이다’로 제시되었다(송학준, 이충기, 2010). 기업가적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교차 문화 접근법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을 규범적 신념과 부합하려는 동기로 나누었는데, 규범적 신념으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동료/반 친구들은 내가 기업가로서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지’로 측정되었고, 부합하려는 동기로는 ‘내가 기업가로서의 직업을 추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동료/반 친구들의 생각들이 중요한가’라는 것에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지’로 측정되었다(Moriano, Gorgievski, Laguna, Stephan & Zarafshani, 2012).

행동의도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강할수록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Ajzen, 1991; 김진희a, 2019). Ajzen(1991)에 의하면, 의도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인 요인들을 포착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행위자가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시도하려고 계획하는지 등으

로 측정한다고 한다. 와인구매의 의도 예측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나는 향후 와인을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는 향후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향후 와인을 구매할 의도가 있다’ 등으로 표현하였다(고재운, 송학준, 유은이, 2014).

Tsai와 Bagozzi(2014)는 실제행동은 행동의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창업, 구매, 관광, 선택, 참여 등을 했는지 여부로 측정되며, 양(Quantity)과 질(Quality)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상커뮤니티인 온라인 공간에서 기여행동에 대하여 연구되었는데, 기여행동을 측정시 양으로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메시지의 수와 사진의 수로 측정되었고, 질은 내용 분석으로 4가지 기준인 관련성, 이해의 용이성, 정확성, 유용성으로 구분하여 1(매우 낮음)부터 5(매우 높음)까지의 척도로 평가되었다(Tsai & Bagozzi, 2014).

2) 계획된 행동이론(T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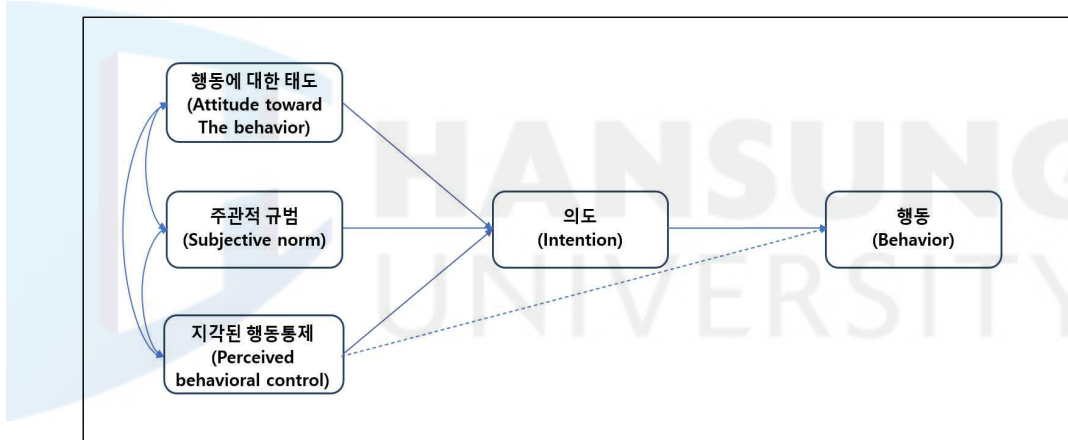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 TPB)은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부족하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Ajzen, 1985; 김문식, 2014).

Ajzen(1985/1991)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2-2]와 같이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를 추가하여 행동(Behavior)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의도(Intention)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델인 계획된 행동이론을 제안하였다(Ajzen, 1985/1991; 김문식, 2014).

의도와 행동의 선행변수로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추가된 지각된 행동통제는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방침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는 Bandura(1977)의 지각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것과 잘 부합하는 의미로서 행동이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행동에 대한 지각된 감정을 의미한다(Ajzen, 1991; 김문식, 2014; 김진희, 2019).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학생의 진로정보 탐색행태에 대한 잠재성장곡선 모델링 적용을 통해 진로교육을 연구시 지각된 행동통제가 ‘향후 한 달 동안의 진로정보 검색 여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향후 한 달 동안의 진로정보 검색 여부는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등으로 정의되었고,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를 ‘내가 원하면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나는 해외직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있다’ 등으로 지각된 행동통제가 측정되었다(Shevlin & Millar, 2006; 린하이보, 2020).

[그림 2-2] 계획된 행동이론(TPB) 관련 기본모형



〈출처〉 Ajzen(1991)

최근 계획된 행동이론에 연구주제에 따라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xtended TPB)을 적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가치가 직업선택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존 계획된 행동모형의 변수들에 내재적/외재적 가치, 사전지식이 선행변수들로 활용되었고(오민정, 2020), 유네스코 유산지의 체험요소가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 사이에 매개변수로서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몰입을 추가되었다(박두수, 2021). 대학생과 시니어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내적 동기와 외적동기의 자기결정성이론과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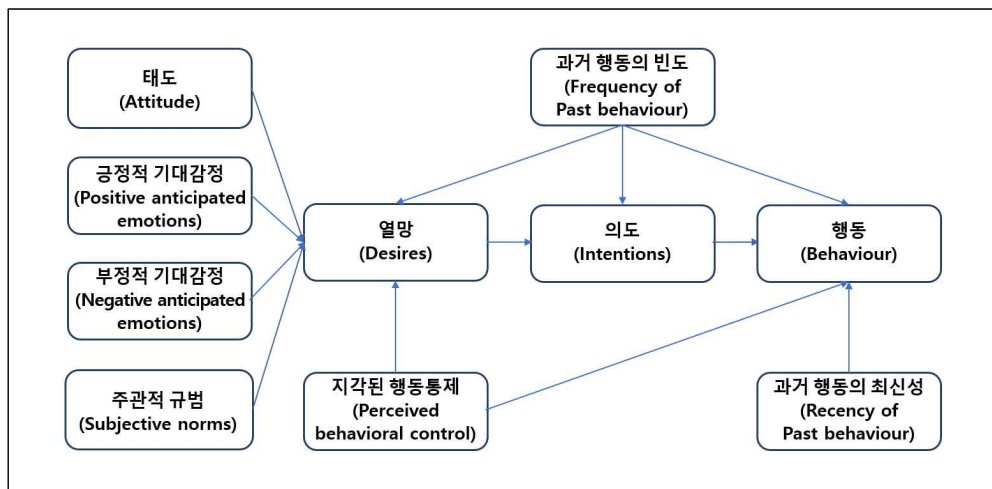
획된 행동이론을 결합한 연구모형을 사용된 사례도 있었다(정찬영, 2021).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계획된 행동이론은 의지적 또는 이성적 요인만 고려하였고 행동의도에 대한 동기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선행변수로 감정적인 요인인 기대감정(Anticipated emotions)과 새로운 동기적인 요인인 열망(Desire)을 추가한 새로운 행동이론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 MGB)이 Perugini와 Bagozzi(2001)에 의해 제시되었다(Perugini & Bagozzi, 2001; Tsai & Bagozzi, 2014; 최서연, 2017; 김진희a, 2019; 장몽교, 2019; 조원영, 2019; 박성중, 2020; 김다니엘, 2021).

또한, 과거 행동의 경험과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행동의 빈도(Frequency of Past behaviour)와 과거 행동의 최신성(Recency of Past behaviour)을 고려함으로써 의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켰다(Perugini & Bagozzi, 2001; 최서연, 2017; 조원영, 2019; 박성중, 2020).

[그림 2-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관련 기본모형



〈출처〉 Perugini & Bagozzi(2001)

기대감정(또는 기대정서)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행동이 발생된다고 가정시 예상되는 감정을 의미하며, 행동이 발생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호의적인 감정인 긍정적 기대감정(Positive anticipated emotions)과 행동이 발생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비호의적인 감정인 부정적 기대감정(Negative anticipated emotions)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Perugini & Bagozzi, 2001; Tsai & Bagozzi, 2014; 최서연, 2017; 장몽교, 2019; 조원영, 2019; 박성중, 2020). Perugini와 Bagozzi(2001)는 체중 조절에 관한 종적 연구를 통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제안하면서 긍정적 기대감정을 ‘체중 감량, 동일한 체중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나는 흥분되고(excited), 즐겁고(delighted), 행복하고(happy), 기쁘고(glad), 만족스럽고(satisfied), 자랑스럽고(proud), 자신감(self-assured)을 느낄 것이다’로 제시하였고, 부정적 기대감정을 ‘체중 감량, 동일한 체중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나는 화나고(angry), 좌절하고(frustrated), 죄책감이 들고(guilty), 부끄럽고(ashamed), 슬프고(sad), 실망하고(disappointed), 우울하고(depressed), 걱정되고(worried), 불안하고(uncomfortable), 두려움(fearful)을 느낄 것이다’로 측정하였다(Perugini & Bagozzi, 2001).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 관점을 중심으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분석함에 있어 긍정적 기대감정은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만족할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흥미로울 것이다,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로 정의되었고, 부정적 기대감정은 ‘만약 내가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아쉬울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화가 날 것이다’로 측정되었다(박성중, 2020).

열망은 행위자가 행동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강력한 동기의 상태를 의미하며, 열망은 태도, 기대감정,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받는 후행변수이자 의도에 영향을 주어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이다(Perugini & Bagozzi, 2001; Tsai & Bagozzi, 2014; 최서연, 2017; 김진희 a, 2019; 장몽교, 2019; 조원영, 2019; 박성중, 2020). Tsai와 Bagozzi(2014)는 열망을 ‘앞으로 2주 동안 커뮤니티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거나 사진을 공

유하고 싶다’에 대하여 7점 척도인 ‘그렇지 않다’, ... , ‘그렇다’로 평가하며, ‘앞으로 2주 동안 커뮤니티 친구들과 함께 글을 쓰거나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 나의 열망은’에 대하여 7점 척도인 ‘매우 약하다’, ... , ‘매우 강하다’로 측정하였다. 최서연(2017)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열망을 바램, 의지, 선호, 구매열망 등으로 정의하였고, 장몽교(2019)도 O2O서비스와 관련된 불평행동의도에 대한 열망을 ‘향후 O2O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다면 나는 불평행동 하기를 희망한다, 열망한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바람은 열정적이다’로 측정하였다(최서연, 2017; 장몽교, 2019).

과거 행동의 빈도는 행위자가 과거 경험을 통해 실제로 행동을 수행했던 횟수로서 열망, 의도, 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이다(Perugini & Bagozzi, 2001; 박성중, 2020). 과거 행동의 빈도를 ‘지난 1년 동안 체중을 감량(동일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신체 운동을 했는가’에 대해 7점 척도로 ‘절대 없다’, ... , ‘매우 많이 한다’로 측정된 연구와 머드 축제 재방문을 위한 행동의도에서 과거 행동의 빈도를 ‘머드 축제에 얼마나 많이 방문하였는가?’라는 단독 측정이 사용된 연구를 감안시 빈도는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된다(Perugini & Bagozzi, 2001; Song, Lee, Kang & Boo, 2012).

과거 행동의 최신성은 행위자가 최근에 발생한 행동에 대한 빈도를 의미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이다(Perugini & Bagozzi, 2001; 박성중, 2020). Perugini와 Bagozzi(2001)는 과거 행동의 최신성을 ‘지난 4주간 체중을 감량(동일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신체 운동을 했는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절대 없다’, ... , ‘항상 한다’로 측정하였는데, 과거 행동의 최신성도 과거 행동의 빈도와 마찬가지로 등간척도 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될 수 있다.

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연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걸쳐서

많은 편이며,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기존 변수들에 연구목적에 따라 변수를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연구한 사례들도 많다. 그러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맨 마지막 변수인 행동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적 연구가 수반되는 한계로 인해 연구사례가 적은 편이며, 과거 행동의 빈도와 과거 행동의 최신성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은 아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에서 주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열망, 행동의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최근 선행연구들의 연구주제와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확장모델로서 제시된 추가 변수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외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기존 변수들에 대한 연구결과만을 언급하였다.

친환경 인식이 머드 축제 관람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기대감정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 및 과거 행동의 빈도가 머드 축제 재방문을 위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으며(0.779), 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긍정적 기대감정(0.490)이었다(Song et al., 2012). 불평열망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불평태도와 예상정서가 불평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불평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불평열망이 불평의도에 가장 큰 영향(0.570)을 미쳐 불평의도에 불평열망이 가장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증명하였다(김주현, 2013).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함에 있어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열망에 미치는 영향 및 지각된 행동통제감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열망이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0.692)을 미쳤고 열망에는 부정적 예기정서가 가장 큰 영향(0.289)을 미쳤다(유근준, 2014). 레스토랑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태도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용열망이 이용의도에 0.777로 이용열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이용열망에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0.417

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다(한을경, 2014). 책임감 있는 음주의도에 대한 열망의 역할 연구에서 태도와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 및 과거 행동의 빈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는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행동의도에 열망이 0.650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열망에는 주관적 규범이 0.400으로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Fry, Drennan, Previte, White & Tjondronegoro, 2014).

중국인의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에서 부정적 예상정서가 행동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서도 행동열망이 행동의도에 가장 큰 영향(0.830)을 미쳤고 행동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지각된 행동통제(0.299)이었다(양은주, 조민호, 2015).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중국인의 한국음식관광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열망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0.905로 가장 높았으며, 열망에 미치는 선행변수들 중에서는 긍정적 예기정서가 0.398로 가장 영향력이 컸다(후츠, 2016). 이슬람 은행 저축을 설명하는 목표지향적 행동의 효과에서 부정적 기대→감정열망, 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를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가 열망에 가장 큰 영향력(0.630)을 주었고 열망이 행동의도에 1이라는 영향력을 주었다(Setyobudi, Wiryono, Nasution & Purwanegara, 2016).

해양관광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모두 변수들 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참여열망이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으며(0.475), 참여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선행변수는 태도(0.357)이었다(김성우, 2017).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구조적 관계분석에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재방문의도에 열망이 0.601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열망에 미치는 변수들 중에는 긍정적 예기정서가 가장 큰 영향력(0.469)을 보였다(서해란, 2017).

건강기능식품 구매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 있어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열망이 구매의도에 0.693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열망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에서 긍정적 예기정서의 영향력이 0.351로 가장 높았다(최서연, 2017). 제주도 향토음식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의 향토음식관광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열망은 행동의도에 0.557, 부정적 예기정서는 열망에 0.360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다(최지미, 2017).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 과거 행동의 빈도 이외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열망은 행동의도에 0.757로 큰 영향력을 주었고 열망에는 긍정적 기대감정이 0.537로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양승탁, 이승곤, 유진룡, 2018). 나 혼자 여행의 행동의도 연구에서는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상감정, 부정적 예상감정, 지각도니 행동통제력이 열망 이외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는데, 주관적 규범→열망, 주관적 규범→행동의도, 부정적 예상감정→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열망이 행동의도에 0.776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예상감정이 열망, 행동의도에 각각 0.648, 0.631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이옥선, 2018). 음식관광동기에 따른 음식관광 행동의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정적 기대정서/지각된 행동통제/과거 행동의 빈도→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열망이 행동의도에 0.556의 영향을 주며, 열망에는 긍정적 기대감정이 0.678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홍관식, 2018).

스포츠웨어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목표 지향적 행동 연구에서 부정적 기대정서→열정, 과거 행동의 빈도→열망을 제외하고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기대감정이 열망에 가장 큰 영향(0.258)을 주었고 열망은 구매행동의도에 0.648이라는 영향을 주었다(Chiu & Choi, 2018).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비디오 게임 플레이에서 독창적인 프로세스의 역할 연구에서 행동열망, 의도 이외에 게임을 하는 행동까지 연구하였는데,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에 긍정적 기대감정이 0.540, 의도에는 행동열망이 0.550의 영향을 주었다(Holevová, 2018).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열망의 선행변수들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만 사용하였는데, 태도는 열망에 0.531, 열망이 창업의도에 0.795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김진희a, 2019). 지역음식축제 참여자들의 행동의도 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정서,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과거 행동의 빈도가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긍정적 기대정서가 열망 및 행동의도에 각각 0.447, 0.388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주었으며 열망이 행동의도에 0.480로 긍정적 기대정서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해소, 2019). 한-중 소비자의 O2O서비스 불평행동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에게는 불평태도, 긍정적 기대감정, 주관적 규범을 제외하고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중국소비자에게는 불평태도, 긍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외하고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으며, 한국소비자에서는 불평열망에 지각된 행동통제가 0.482로 가장 높고 중국소비자에서는 부정적 기대감정이 0.370으로 가장 높았다(장몽교, 2019). 1인가구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제로 웨이스트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정적 예기정서가 부(-)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는데, 긍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0.421, 열망이 구매의도에 0.44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조원영, 2019). 공동 제작 및 크라우드펀딩 유형으로 투자자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외하고 열망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열망에는 부정적 기대감정이 0.298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행동의도에는 열망이 0.160으로 다소 적은 영향을 주었다(Kim & Hall, 2019).

여가제약-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관람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열망에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0.452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열망은 행동의도에 0.502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웅, 2020).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관

점을 중심으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긍정적 기대정서가 열망에의 영향력은 0.571, 열망의 구매의도에의 영향력은 0.784를 보였다(박성중, 2020).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선택속성이 이용의도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예기정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주관적 규범과 긍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0.303으로 동일한 영향력을 보였고 열망은 행동의도에 0.728의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안상운, 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체험요소, 몰입,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에서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열망에는 태도가 0.531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고 행동의도에는 열망이 0.354의 영향력을 보였다(윤준, 2020).

생태관광지에서 장소 애착과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기대감정을 제외하고 열망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열망에 긍정적 기대감정이 0.678, 재방문의도에는 열망이 0.624의 영향을 주었다(Jin, Choi, Lee & Ahmad, 2020). 크루즈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COVID-19에 대한 비약물적 개입의 역할 연구에서 행동의도를 코로나19 동안 행동의도와 코로나19 이후 행동의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열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부정적 기대감정(0.445)이었고 열망은 코로나19 동안 행동의도(0.334)보다 코로나19 이후 행동의도(0.501)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Xu, Youn & Lee, 2021).

직장인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사전지식이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열망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Hybrid 창업열망에 태도가 가장 큰 영향(0.402)을 주었고 Hybrid 창업의도에 Hybrid 창업열망이 0.800의 높은 영향을 주었다(Yun et al., 2021).

중산층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에서 보유열망의 선행변수들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감만 사용하였는데, 지각

된 행동통제감→보유열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주관적 규범이 보유열망에 0.373, 열망이 보유의도에 0.739의 영향력을 나타냈다(이상호, 2021). 주얼리 소비자의 열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긍정적 예기정서(0.518)가 열망의 선행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고 열망은 구매의도에 0.760의 영향력을 보였다(김다니엘, 2021). 1인가구의 건강식메뉴가 자기애적 심리성향에 따라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구매행동까지 확대하고 의도를 소비가치(감성적, 기능적)로 대체하여 연구하였는데, 모두 열망에 정(+)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긍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가장 높은 영향(0.390)을 미쳤다(박진아,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실버타운 입주 의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열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긍정적 기대감정(0.362)이고 열망은 입주의도에 0.745의 영향을 주었다(박애준, 2021).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상기의 주요한 선행연구들 관련 연구주제와 주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결과
Song et al. (2012)	친환경 인식이 머드 축제 관람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대감정/지각된 행동통제→열망, 과거 행동의 빈도→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김주현 (2013)	불평열망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불평태도와 예상정서가 불평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규범→불평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유근준 (201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	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감→열망, 지각된 행동통제감→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결과
한을경 (2014)	레스토랑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태도→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Fry et al. (2014)	책임감 있는 음주의도에서 열망의 역할에 대한 연구	태도/부정적 기대감정/지각된 행동통제→열망, 과거 행동의 빈도→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양은주, 조민호 (2015)	중국인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부정적 예상정서→행동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후츠 (2016)	중국인의 한국음식관광 행동의도 연구	부정적 예기정서→열망은 부(-)의 유의한 영향, 이외에는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Setyobudi et al. (2016)	이슬람 은행 저축을 설명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의 효과 연구	부정적 기대→감정열망, 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김성우 (2017)	해양관광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	모두 변수들 간에 정(+)의 유의한 영향
서해란 (2017)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태도/주관적 규범→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최서연 (2017)	건강기능식품 구매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지각된 행동통제→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최지미 (2017)	제주도 향토음식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의 향토음식관광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양승탁 외 (2018)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를 분석한 연구	주관적 규범→열망, 과거 행동의 빈도→열망/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이옥선 (2018)	나 혼자 여행의 행동의도 연구	주관적 규범→열망, 주관적 규범→행동의도, 부정적 예상감정→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결과
홍관식 (2018)	음식관광동기에 따른 음식관광 행동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부정적 기대정서/지각된 행동통제/과거 행동의 빈도→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Chiu & Choi (2018)	스포츠웨어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의 목표 지향적 행동	부정적 기대정서→열정, 과거 행동의 빈도→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Holevová (2018)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에서 비디오 게임플레이에서 독창적인 프로세스의 역할 연구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김진희 ^a (2019)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박해소 (2019)	지역음식축제 참여자들의 행동의도 분석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장몽교 (2019)	한·중 소비자의 O2O서비스 불평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 불평태도 긍정적 기대감정, 주관적 규범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중국소비자) 불평태도 긍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조원영 (2019)	1인가구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제로 웨이스트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정적 예기정서[부(-)의 유의한 영향],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Kim & Hall (2019)	공동 제작 및 클라우드 펀딩 유형으로 투자자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제외하고 열망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김기웅 (2020)	여가제약-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관람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행동의도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박성중 (2020)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을 중심으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 연구	주관적 규범, 부정적 기대정서,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결과
안상윤 (2020)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선택속성이 이용의도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정적 예기정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윤준 (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체험요소, 몰입,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 연구	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이상호 (2021)	중산층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감→보유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Jin et al. (2020)	생태관광지에서 장소 애착과 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기대감정을 제외하고 열망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Xu et al. (2021)	크루즈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COVID-19에 대한 비약물적 개입의 역할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Yun et al. (2021)	직장인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사전지식이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열망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이상호 (2021)	중산층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감→보유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김다니엘 (2021)	주얼리 소비자의 열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각된 행동통제 이외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박진아 (2021)	1인가구의 건강식메뉴가 자기애적 심리성향에 따라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모두 열망에 정(+)의 유의한 영향력
박애준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실버타운 입주 의도 영향요인 연구	태도/주관적 규범/지각된 행동통제→열망 이외에 모두 정(+)의 영향

다음으로 [표 2-2]에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의 추가 확장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ong et al.(2012)은 열망의 선행변수로 친환경 여행 행동, 친환경 여행

행동의 선행변수들로 환경적 관심과 지각된 고객 유효성을 추가하였고, 유근준(2014)은 열망과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로 사전지식을 추가하였다. 한을경(2014)은 신뢰, 정보적 도움, 정서적 도움을 열망의 선행변수로서 사용하였다.

양은주, 조민호(2015)는 태도의 선행변수들로 의료 서비스품질과 관광 서비스품질, 행동열망의 선행변수들로 나르시즘, 한류스타 매력성을 추가하였다. Setyobudi et al.(2016)은 태도의 선행변수로 행동적 신념, 주관적 규범의 선행변수로 규범적 신념, 지각된 행동통제의 선행변수로 조절적 신념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김성우(2017)는 참여열망과 참여의도의 선행변수로 쾌락적 동기와 지각된 가치(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였다. 서해란(2017)은 열망과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로 장소애착도를 추가하였는데, 장소애착도는 태도,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의 영향을 받는 모형을 연구하였다. 최서연(2017)은 태도의 선행변수들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본원적 혜택과 부가적 혜택을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추가하였다. 최지미(2017)는 만족도를 열망과 행동의도 간의 매개변수로서 활용하였다.

양승탁 외(2018)는 태도의 선행변수들로 참여동기를 추가하였는데, 참여동기로 4가지 종교적 호기심, 영성, 축원, 일탈의 하위 변수가 있었고, 홍관식(2018)은 음식관광의 태도의 선행변수들로 관광동기(음식경험, 일상탈출, 지식축적, 유행선도)를 추가하여 확장하였다.

김진희a(2019)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선행변수들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사용하여 자기결정성동기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박해소(2019)는 정보적 요인으로 기존 과거 행동의 빈도 이외에 사전 지식과 구전정보를 추가하여 열망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몽교(2019)는 종속변수인 불평행동의도를 사적 불평행동의도와 공적 불평행동의도의 2개로 확장하고 불평열망과 불평행동의도의 선행변수로서 소비자 지식을 추가하였다. Kim과 Hall(2019)은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공동 제작을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로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

김기웅(2020)은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여가제약-협상모형을 결합하여 연

구하였는데, 협상을 열망과 행동의도의 매개변수로서 추가하였고 여가제약인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을 협상의 선행변수들로 사용하였다. 안상운(2020)은 저비용항공사 선택속성인 기내서비스, 안전, 예약/발권 서비스, 운항서비스, 가격, 마일리지 혜택, 항공사 이미지를 태도의 선행변수들로 추가하였다. 윤준(2020)은 태도의 선행변수들로 체험요소인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을 추가하였고, 몰입을 인지적 몰입과 행위적 몰입으로 구분한 후 태도와 행동의도의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상호(2020)는 중산층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도 영향요인 분석에서 지각된 가치를 보유열망과 보유의도의 선행변수로, 정부정책을 보유열망의 선행변수로 추가하였다. Jin et al.(2020)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장소 애착의 선행변수로 관광 이미지(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재방문의도의 선행변수로 장소 애착성(장소 의존성, 장소 동질감)을 추가 고려하였다.

Xu et al.(2021)은 행동의도를 코로나19 동안 행동의도와 코로나19 이후 행동의도로 구분한 후 2개 행동의도에 대한 선행변수로 열망 이외에 코로나19 인지, 크루즈 운영자의 비약물적 개입, 크루즈 여행자의 비약물적 개입을 열망과 행동의도의 매개변수로 확대하였다. Yun et al.(2021)은 창업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선행변수들로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의 선행변수로 사전지식을 추가하였다. 박진아(2021)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구매행동을 고려하여 의도 대신 감성적 소비가치와 기능적 소비가치를 열망과 구매행동의 매개변수로 사용하였고, 자기애를 열망과 소비가치(감성적, 기능적)의 매개변수로 추가하였다. 박애준(2021)은 열망과 입주의도를 매개하는 사전지식을 추가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상기의 주요한 선행연구들 관련 연구주제와 추가 확장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추가 확장변수
Song et al. (2012)	친환경 인식이 머드 축제 관람객의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관심, 지각된 고객 유효성, 친환경 여행 행동

연구자	연구주제	추가 확장변수
유근준 (2014)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	사전지식
한을경 (2014)	레스토랑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신뢰, 정보적 도움, 정서적 도움
양은주, 조민호 (2015)	중국인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의료 서비스품질, 관광 서비스품질, 나르시즘, 한류스타 매력성
Setyobudi et al. (2016)	이슬람 은행 저축을 설명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의 효과 연구	행동적 신념, 규범적 신념, 조절적 신념
김성우 (2017)	해양관광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	쾌락적 동기, 지각된 가치(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서해란 (2017)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의사결정과정과정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장소애착도
최서연 (2017)	건강기능식품 구매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본원적 혜택, 부가적 혜택
최지미 (2017)	제주도 향토음식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의 향토음식관광의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만족도
양승탁 외 (2018)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를 분석한 연구	참여동기(종교적 호기심, 영성, 축원, 일탈)
홍관식 (2018)	음식관광동기에 따른 음식관광 행동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관광동기(음식경험, 일상탈출, 지식축적, 유행선도)
김진희 ^a (2019)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박해소 (2019)	지역음식축제 참여자들의 행동의도 분석	사전지식, 구전정보

연구자	연구주제	추가 확장변수
장몽교 (2019)	한·중 소비자의 O2O서비스 불평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소비자 지식, 불평행동의도를 사적 및 공적의 2개 변수로 확장
Kim & Hall (2019)	공동 제작 및 클라우드 펀딩 유형으로 투자자 행동을 예측하는 연구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공동 제작
김기웅 (2020)	여가제약-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관람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협상, 여가제약(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안상운 (2020)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선택속성이 이용의도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저비용항공사 선택속성(기내서비스, 안전, 예약/탈권 서비스, 운항서비스, 가격, 마일리지 혜택, 항공사 이미지)
윤준 (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체험요소, 몰입,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 연구	체험(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몰입(인지적 몰입, 행위적 몰입)
이상호 (2020)	중산층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	지각된 가치, 정부정책
Jin et al. (2020)	생태관광지에서 장소 애착과 이미지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 이미지(인지적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 장소 애착성(장소 의존성, 장소 동질감)
Xu et al. (2021)	크루즈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COVID-19에 대한 비약물적 개입의 역할 연구	코로나19 인지, 크루즈 운영자의 비약물적 개입, 크루즈 여행자의 비약물적 개입, 행동의도를 코로나19 동안 행동의도와 코로나19 이후 행동의도로 구분
Yun et al. (2021)	직장인의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와 사전지식이 Hybrid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사전지식
박진아 (2021)	1인가구의 건강식메뉴가 자기애적 심리성향에 따라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애, 감성적 소비가치, 기능적 소비가치
박애준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실버타운 입주 의도 영향요인 연구	사전지식

제 3 절 컨설턴트 역량

1) 컨설턴트 역량의 개념

컨설턴트 역량(Competency)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역량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특정 업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행동특성이라고 한다(임성수, 2021). 인적자원 측면에서의 역량은 직무의 역할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와 관련되고, 잘 수용된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으며, 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관련 지식, 기술 및 태도의 집합체라고도 한다(Parry, 1996).

컨설턴트 역량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컨설턴트가 컨설팅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업무수행능력인 윤리성, 전문성, 가치관, 행동특성과 능력, 경영컨설팅 및 기술컨설팅 업무능력, 경영성과와 기술성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한다(김용호, 2018).

성공적인 컨설턴트의 역량으로 고객 요구 및 문제 제기에서 명확성, 새로운 아이디어의 양과 질, 새로운 지식, 특별한 계획, 새로운 사고방식, 계획의 수준, 협업 능력 수준, 시간관리, 계획능력, 실행의 효율성, 전략수립, 문제 해결, 실행능력, 후속조치 및 비용절감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한다(Rynning, 1992). 성공적인 컨설팅의 중요한 요소로 역량이 있는 컨설턴트를 제시하면서 컨설턴트의 역량은 임직원과 능숙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고객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알아내는 것, 자기의 한계를 알고 능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McLachlin, 1999).

IT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T 컨설턴트의 역량은 오랜 학습과 경험에 의하여 축적된 다양한 유형의 지식, 기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식적인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지식(Knowledge), 반복적 실습과 경험에 의하여 스스로 체득하는 스킬(Skills), 개인적 태도나 사고능력(Attitude or abilities)으로 설명된다고 한다(박소현, 이국희, 2009).

컨설턴트가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종업원 만족도 향상이나 클라이언트의 매출 증대, 프로세스 혁신 등 경영성과가 도출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컨설팅 역량은 컨설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컨설턴트에게 요구되는 행동 및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서창적, 이지은, 김승철, 2011).

독립 컨설턴트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도구인 컨설턴트 역량 서클에 대한 연구에서 컨설턴트 역량으로 컨설팅 스킬(관계구축, 회의 리더십, 상호 커뮤니케이션, 제안서 작성, 적극적인 경청, 변화관리, 코칭 등), 기술적 스킬(시장조사, 경쟁자 분석, 전략적 계획방법론, 진단 인터뷰 등), 비즈니스 스킬(전략개발, 목표 설정 및 실행 계획, 전문적인 서비스 지식, 프로젝트 관리 기술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스킬이 컨설팅 스킬이라고 하였다(Nickols & Bergholz, 2013).

학교 교육과정 컨설팅 관련 컨설턴트 역량이란 의뢰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업무 수행의 촉진, 교육과정 관련 제반 문제 해결의 지원, 교육과정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요구되는 전문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방미란, 2013).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영컨설턴트 역량을 개인적 관점에서는 경영컨설턴트 개인적 특성과 자질이라고 정의하였다(여우현, 2016).

이경식(2018)은 컨설턴트의 역량을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컨설팅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별적인 전문성이라고 제시하였고, 신재훈(2019)은 경영컨설턴트 역량은 경영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특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관점에서는 컨설턴트 역량을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완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과 그 행동에 내재된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이상봉, 2021).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은 전문지식과 관련 업종의 경험, 통찰력, 전략적인 사고, 리더십,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갖추어 컨설팅 의뢰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이라고 하였다(김영기, 2021).

2) 컨설턴트 역량의 구성요소

Spencer와 Spencer(1993)는 컨설턴트의 역량요소로 성취/행동역량(성취지향성, 정보력, 명확성, 주도성), 대인서비스역량(대인이해력, 고객지향성), 영향력역량(대인영향력, 변화탐지력, 네트워킹), 관리역량(인재육성력, 팀워크, 리더십, 추진력), 인지역량(분석력, 전략적 사고, 전문성), 개인효과성역량(자기관리/통제력, 유연성, 조직헌신, 자신감)의 4대 역량분야, 20개 필요역량들을 제시하였다(Spencer & Spencer, 1993; 중소벤처기업부, 2007).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 컨설팅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Spencer와 Spencer(1993)의 역량요소를 활용하여 컨설턴트 성장단계별 역량모델을 개발하여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는데, 컨설턴트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핵심역량요소 14개를 기본역량(고객지향성, 팀워크, 자기관리/통제력, 유연성)과 수준별 요구역량(초급 : 정보력, 전문성, 대인이해력, 중급 : 성취지향성, 인재육성력, 분석력/문제해결능력, 고급 : 전략적 사고, 리더십, 변화탐지력, 대인영향력)으로 분류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07).

컨설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컨설턴트 역량은 능력(문제발견, 분석 및 진단 능력, 대안제시 능력 등), 자세(윤리관, 책임감 등), 지식(경영일반, 조직관리, 컨설팅 수행 지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광용, 김명섭, 이채연, 이용희, 2008).

IT 컨설팅 역량 항목들을 도출 후 IT 컨설턴트들에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를 통해 [표 2-4]와 같이 해당분야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프로젝트 수행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인관계, 자세 및 가치관의 6개 영역, 18개 세부 항목들로 구성된 IT 컨설팅 역량 모델을 구축하였다(박소현, 이국희, 2009).

[표 2-4] IT 컨설팅 역량 모델

역량 영역	역량 항목	역량 정의	역량 예시
해당분야 전문지식	IT 전문지식	정보기술 및 발전동향에 관한 기술적 지식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경험
	경영지식	경영활동 및 비즈니스 기능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재무, 마케팅, 전략, 인사 등

역량 영역	역량 항목	역량 정의	역량 예시
해당분야 전문지식	고객사 이해	해당 고객사에 대한 이해, 식견, 경험	▷ 경영목표, 사업전략, 조직문화, 경쟁환경 등
문제해결 능력	정확한 상황 파악	주변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인식 능력	▷ 일부 정보를 토대로 전체 상황을 파악
	문제 발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 치밀한 분석력, 넓은 통찰력
	창의적 해결방안 제시	참신하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능력	▷ 고정관념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음
프로젝트 수행역량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경험 및 지식	▷ 기획, 조직, 수행, 일정관리, 위험관리 등
	정보 수집	남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정보를 폭넓고 깊이있게 수집하는 능력	▷ Know where
	고객 관계	고객과 우호적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 고객의 기대와 문화에 적응함
커뮤니케이션 능력	대화	잘 듣고, 적절하게 말하는 대화 능력	▷ 1:1 인터뷰에서 충실한 응답을 확보함
	글 쓰기	간결한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프리젠테이션	여러 청중 앞에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 적대적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응함
대인관계	리더십	여러 사람을 리드하는 능력	▷ 방향 제시, 동기부여, 추진력 등
	팀워크	팀원들과 잘 어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자세	▷ 상대방에 대한 배려, 협조 등
	인적 네트워크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사람들과 두터운 친분 관계
자세 및 가치관	성실 및 헌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신적이고 성실한 태도	▷ 개인적 희생이나 격무를 기꺼이 감당함
	책임의식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완수하고자 하는 자세	▷ 솔선수범, 산출물에 대한 책임의식 등
	도전 및 발전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발전하려는 열정	▷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함

〈출처〉 박소현, 이국희(2009)

박소현, 이국희(2009)는 IT 컨설턴트와 고객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IT 컨설턴트의 컨설팅 역량 보유수준의 순위는 커뮤니케이션>프로젝트 수행역량>자세 및 가치관>대인관계>해당분야 전문지식>문제해결능력으로 나타났으나, 고객사가 기대하는 컨설팅 역량 기대수준의 순위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커뮤니케이션 능력>문제해결능력>프로젝트 수행역량>자세 및 가치관>대인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IT 컨설턴트의 역량에 대해 IT 컨설턴트와 고객사 간 차이가 있어 컨설턴트의 고객사 만족에 부합하기 위해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2010년 30여 년간 진행된 국내외 24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컨설팅 역량 평가체제로 조직역량, 지식역량, 실행역량의 3대 역량을 제시하였으며, 각 역량별 하부 세부역량은 [표 2-5]와 같다(문형준, 김태형, 임춘성, 2010).

[표 2-5] 컨설팅 역량 평가체계

역량		세부 역량	속성
조직 역량	개인역량	컨설턴트 능력	▷ 경험 및 능력 ▷ 문제해결 능력 ▷ 이해력 ▷ 상호작용능력 ▷ 기술적 지식
		컨설턴트 태도	▷ 성실성/정직성 ▷ 신뢰성 ▷ 리더십
	집단역량	컨설팅기업 전략	▷ 미션과 전략의 명확성 ▷ 가치제안의 차별성
		컨설팅기업 명성	▷ 전략적 마케팅 ▷ 성공사례 확산
		컨설팅조직 구성	▷ 생산성 ▷ 구성원칙 ▷ 사무공간 이동성
		컨설팅조직 개선	▷ 역량개발 프로그램 ▷ 통합식 인사관리
지식 역량	보유역량	방법론	▷ 호환성 ▷ 적합성 ▷ 고유성 ▷ 차별성
	창조역량	연구개발	▷ 혁신성 ▷ 창조성 ▷ 변화이해
실행 역량	협업역량	경영진 협조	▷ 경영진 지원
		고객사 협력	▷ 고객사 참여 ▷ 고객사 합의 ▷ 고객사 준비도 ▷ 고객사 소통
		내부 협력	▷ 프로젝트 팀내 협력 ▷ 의사결정권한의 명확성

역량		세부 역량	속성
실행 역량	수행역량	컨설팅 목표	▷ 명확성 ▷ 합리성 ▷ 유연성 ▷ 상호간 협약
		컨설팅 프로세스	▷ 표준적 수행절차 ▷ 현실적 계획수립
		컨설팅 수행능력	▷ 제안서 작성 ▷ 정보제공 ▷ 진단 및 문제/ 기회 식별 ▷ 문제해결 ▷ 대안제시
		컨설팅 관리	▷ 서비스 품질 ▷ 고객사 통제 ▷ 프로젝트 관리 스킬

〈출처〉 문형준, 김태형, 임춘성(2010)

문형준 외(2010)는 2009년 6월 5개 컨설팅 분야(전략, HR 마케팅, 운영, IT)의 글로벌 및 국내 로컬 컨설팅사에 소속된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역량 평가체계를 적용한 결과, ① 개인역량은 양사 컨설턴트 간에 유사, ② 집단역량은 HR 분야는 유사하나 다른 분야들에서 로컬의 역량이 낮은 편, ③ 보유역량은 로컬이 전 분야에서 낮은 편, ④ 창조역량과 협업역량은 로컬이 HR과 운영 분야는 유사하나 전략, 마케팅, IT 분야에서 낮은 편, ⑤ 수행역량은 로컬이 전략과 IT 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창적 외(2011)는 선행연구들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컨설턴트가 경영 컨설팅 수행시 필요한 역량을 정리한 ‘경영컨설팅 역량사전’을 [표 2-6]과 같이 개발하였고, 컨설턴트의 역량을 크게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의 3가지 역량군으로 분류하였다(서창적 외, 2011). 역량사전에는 역량군과 세부 역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국내 연구자들이 컨설턴트 역량을 연구시 역량사전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2-6] 경영컨설팅 역량사전

역량군			역량 정의	세부 역량
공통 역량	1	고객 지향성	타당한 범위 내에서 고객사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	▷ 고객 중심적 마인드 ▷ 고객에 대한 헌신, 관용, 이해 ▷ ‘역지사지’의 입장 견지 ▷ 고객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준수하려는 자세

역량군			역량 정의	세부 역량
공통역량	2	성취 지향성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강한 의지와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동기 ▷ 성취 지향적 태도 ▷ 최고를 추구하는 자세 ▷ 도전과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 ▷ 추진력
	3	전문가 품위유지 (이미지 관리)	고객에게 신뢰와 호감을 줄 수 있는 언행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격 있는 언행 유지 ▷ 공손하고 예의바른 태도 유지 ▷ 전문가다운 외모 및 복장 유지
	4	자신감	컨설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스스로에 대한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 ▷ 자기 주도적 업무 처리 ▷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 자세 ▷ 상대방 직급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려는 태도
	5	자기 통제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일관성 있는 태도 및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성 있는 태도 유지 ▷ 침착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6	직업 윤리 (컨설팅 윤리)	컨설턴트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 및 윤리강령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영역과 범위를 준수하여 컨설팅을 수행하는 자세 ▷ 외압이나 편견에 상관없이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 ▷ 사실에 근거해 YES, NO 분명히 말하기 ▷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언트의 비밀 유지 - 허위결과 제시/과장 금지 - 부당한 대가요구 금지
직무역량	1	전문지식	경영 지식 및 컨설팅 방법론, 산업정보, 통계 분석 등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련 지식 및 비즈니스 상식 ▷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 및 스킬 ▷ 산업별 베스트 프랙티스 파악 ▷ 기초 통계분석 스킬
	2	분석 및 대안제시 능력	고객사가 당면한 문제점과 문제의 근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 능력 ▷ 현상 진단 능력 ▷ 핵심이슈 및 문제점 도출 능력 ▷ 문제 구조화 능력 ▷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제시 능력

역량군			역량 정의	세부 역량
직무역량	3	전략적 사고 능력	단편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전체 맥락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설정 및 논리적 사고 능력 ▷ 단편적인 정보의 종합 능력 ▷ 선택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능력 ▷ 통찰력 및 추론 능력
	4	정보수집 능력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솔루션을 조달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능력 ▷ 영향력 있는 인적 네트워크 보유 ▷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 능력 ▷ 정보감식 능력
	5	문서작성 능력	프로젝트 착수, 진행, 결과보고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문서화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구조화 능력 ▷ S/W를 이용한 문서작성 능력 ▷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
	6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사 및 내/외부 구성원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의사표현 및 전달 능력 ▷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 ▷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 ▷ 인터뷰 능력 ▷ 타인을 이해/설득시키는 능력
관리역량	1	추진력	계약기간 내 합의된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직무를 철저히 수행 ▷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난관을 뚫는 능력 ▷ 타인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 일정 관리 능력
	2	팀워크	프로젝트 조직의 시너지 창출 및 원활한 조직운동을 위한 조직 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활동에 헌신하는 자세 ▷ 팀원과 적극 협력하는 자세 ▷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 ▷ 팀 내부에 문제발생 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3	관계구축 능력	고객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 중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고객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관계 구축 능력 ▷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 ▷ 타인을 존경하는 태도 ▷ 타인의 지지와 호감을 얻어내는 능력
	4	코칭 및 임파워먼트능력	팀원(내부/외부)들이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에 대한 관용 ▷ 팀원에 대한 관심 표출 ▷ 타인의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개발시키려는 태도

역량군			역량 정의	세부 역량
관 리 역 량	5	유연성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역량	▷ 조직 내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 ▷ 민첩성 ▷ 오픈 마인드/유연한 사고 ▷ 합리적/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6	리더십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팀을 이끄는 능력	▷ 비전 설정 및 공유 능력 ▷ 성공에 대한 강한 신념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능력 ▷ 조직 내 갈등해소 및 중재 능력 ▷ 문제 발생 시 책임있는 대응 ▷ 카리스마 유지

〈출처〉 서창적, 이지은, 김승철(2011)

[표 2-6]에서 공통역량은 컨설턴트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으로 고객 지향성(고객의 요구 수용 및 충족을 위한 노력 자세), 성취 지향성(목표달성 노력 및 도전하는 자세), 전문가 품위유지(신뢰와 호감있는 언행 및 태도), 자신감(목표달성에 대한 강한 믿음과 확신), 자기 통제력(자신에 대한 통제능력과 일관성), 직업윤리(도덕적 책무 및 윤리강령 준수)이며, 직무역량은 컨설턴트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전문지식(컨설팅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분석 및 대안제시 능력(문제점 도출 및 대안 제시), 전략적 사고능력(정보의 종합능력), 정보수집 능력(각종 정보 및 솔루션 조달능력), 문서작성 능력(문서화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효과적인 언어능력)을 말하며, 관리능력은 추진력(프로젝트 관리 및 추진능력), 팀워크(조직 관리 능력), 관계구축 능력(고객사와 긍정적인 관계), 코칭 및 임파워먼트 능력(지도 및 동기 부여 능력), 유연성(상황 적응 역량), 리더십(비전 제시 및 팀 리더 능력)을 의미한다(서창적 외, 2011)

서창적 외(2011)가 제시한 상기 역량 3가지 중 직무역량은 컨설팅 성과에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공통역량과 관리역량은 연구자들에 따라 유의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컨설턴트 역량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전우소, 2017).

김준휘(2019)는 McLachlin(1999), 김광용 외(2008)의 역량 분류를 참조하

여 소상공인 외식컨설턴트의 역량을 컨설턴트 능력(컨설턴트 프로세스 관리 능력, 문제 진단 능력, 대안 제시 능력, 정보수집 능력, 미래예측 능력 등), 컨설턴트 자세(비밀유지, 진실성, 책임감, 성실성, 고객서비스 등), 컨설턴트 지식(경영지식, 전문지식, 경험적 노하우 보유, 분석 Tool 사용능력, 소상공인 관련 지식 등)의 3가지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김준휘, 2019).

상기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역량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측정하였는데, 외식창업자에 대한 컨설턴트의 역량은 지식, 가치, 태도로 분류, 일자리창출 컨설턴트의 역량은 IT 활용역량, 관리역량으로 분류, 학교 교육과정 컨설턴트의 역량은 착구역량(관계형성기술, 문제인식 및 이해), 컨설팅 협약관리), 진단역량(학교 교육과정 이해 및 분석, 의뢰인 요구분석, 의사소통 기술), 계획역량(목표설정, 문제해결 대안수립, 전문적 자문), 실행역량(문제해결기술, 관찰기술, 코칭기술), 평가역량(모니터링, 피드백 제공,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으로 분류, 컨설팅을 수행받은 기업체에 대한 컨설턴트 역량은 능력, 지식, 자세로 분류 등 다양한 역량들로 정의하여 컨설턴트 역량을 측정하고 있다(김민, 2012; 한수규, 2012; 방미란, 2013; 박준환, 2015).

본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컨설턴트 역량을 서창직 외(2011)가 제시한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의 세부 역량들 중 Hybrid 창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역량들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컨설턴트 역량의 선행연구

컨설턴트 역량을 적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역량을 주로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의 3개 역량군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연구대상에 따라 특정 역량군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들도 있다.

호주 500대 기업의 상위권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의 성공을 이끄는 컨설턴트의 전략적 역량을 조사한 결과에서 상위 5개의 전략적 역량은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 서비스 품질, 고객과 컨설턴트 간 커뮤니케이션, 청렴성과 정직성, 기술적인 지식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5개 성과 지표는 합의된 목표 달성, 고객 만족도, 서비스 제공의 적시성, 제시된 대안의 실제 구현성, 측정 가능한 결과 달성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경영 컨설턴트는 다재다능하고 기술적으로 유능해야 하며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Simon & Kumar, 2001).

외식업체를 창업 전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외식 컨설턴트 역량(지식, 가치, 태도)이 외식업체 창업과정(경영전략, 경험 및 지식)과 창업성과(조직성과,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컨설턴트의 역량들 중 지식은 창업과정 하위 변수들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태도를 제외한 가치는 창업과정의 하위 변수들 중 경영전략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김민, 201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를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컨설턴트의 IT 활용역량(커뮤니케이션 도구, OA 도구)과 관리역량(전문성, 타인육성, 팀워크)이 고객지향성(고객이해, 고객욕구충족, 고객커뮤니케이션, 고객응대)과 구인·구직서비스(구인·구직지도, 인정감, 상호협력)를 통해 업무성과(직무만족, 고객만족, 업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IT 활용역량의 하위변수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구인·구직서비스 중 인정감이며, 관리역량의 하위변수들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 변수는 고객지향성 중 고객이해, 구인·구직서비스 중 구인·구직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수규, 2012).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리더 및 팀원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경영컨설팅 성과(컨설팅 프로젝트 완성도, 경영성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는 컨설팅 프로젝트 완성도에는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고, 경영성과 기여도에는 직무역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배용섭, 2013).

컨설팅을 받은 경남지역 소재 상공회의소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지식, 태도)이 경영컨설팅 서비스(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혁신성, 공감성)와 경영성과(고객만족, 매출액 향상,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지식과 태도는 경영성과의 하위변수인 고객만족, 매출액 향상, 생산

성 향상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비재무적성과인 고객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지식과 태도는 경영컨설팅 서비스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후진, 2014). 노비우스 컨설팅 그룹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연구에서 컨설팅의 성공요소는 최고경영자의 지원, 고객의 준비성, 상호 신뢰성,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능력이라고 하였고, 컨설턴트 능력으로 유연성, 분석력, 개념적 사고력, 창의력, 균형 있는 판단력,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력, 비전수립 능력, 청취력, 감성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능력, 설득력, 진실성, 신뢰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력 등을 제안하였다(Albers, 2014).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컨설팅 성과(컨설팅 완성도, 업무 효율성)와 조직성과(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관리역량은 컨설팅 성과 및 조직성과의 하위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김문준, 2015).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한 대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역량(컨설턴트 능력, 컨설턴트 지식, 컨설턴트 자세)이 컨설팅 성과(컨설팅 완성도, 경영성과기여도)와 고객충성도(행동적 충성도, 태도적 충성도, 인지적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컨설턴트 역량은 컨설팅 성과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고객충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박준환, 2015).

IBK기업은행에서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이 컨설팅완성도와 경영성과(사업성과,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컨설팅완성도에는 공통역량, 직무역량이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경영성과에는 직무역량만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여우현, 2016).

최근 3년간 기업에서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역량(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컨설팅 성과(프로젝트 운영성과, 프로젝트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컨설팅 역량인 직무역량과 관리

역량은 컨설팅 성과인 프로젝트 운영성과와 프로젝트 활용성과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곽재민, 2017). 정부지원 컨설팅을 수진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 역량지각이 컨설팅 완성도(과정품질, 결과품질)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컨설턴트 역량지각은 컨설팅 완성도의 하위변수인 과정품질과 결과품질, 재구매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전우소, 2017).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을 수행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컨설팅 만족도와 컨설팅 완성도, 컨설팅 성과(기술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① 컨설팅 만족도, 컨설팅 완성도, 컨설팅 성과 중 기술성과에 직무역량과 관리역량만 정(+)의 영향, ② 컨설팅 성과 중 경영성과에는 관리역량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호, 2018). 국내에 등록된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역량이 컨설팅완성도, 경영기여도, 능력향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컨설팅 역량이 능력향상도를 제외하고 컨설팅완성도와 경영기여도에는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환진, 2018).

상업공간 디자인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컨설팅 역량(디자인역량, 건축직무역량)이 프로젝트성과(관리성과, 완료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컨설팅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조절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디자인역량과 건축직무역량은 프로젝트관리성과에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컨설팅 역량 중 공통역량은 디자인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의 관계, 건축직무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의 관계, 직무역량과 관리역량은 건축직무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식, 2018).

국내에서 외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컨설턴트 역량(능력요인, 지식요인, 자세요인)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만족(지원프로세스 만족요인, 컨설턴트 만족요인)과 경영성과(재무적 성과요인, 비재무적 성과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컨설턴트 역량의 하위변수들인 능력요인, 지식요인, 자세요인이 모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만족의 하위변수들 중 컨설턴트 만족요인에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

났으며, 컨설턴트 역량의 하위변수들(능력요인, 지식요인, 자세요인)은 경영성과의 하위변수인 재무적 성과요인과 비재무적 성과요인 모두에게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김준휘, 2019). 경영컨설팅을 수진한 경험이 있는 전국 중소·중견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경영컨설팅 성과(컨설팅 완성도, 업무효율성 성과)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경영자지원, 조직구성원 참여도, 컨설팅프로젝트의 이해도, 컨설팅활동의 정보공유 및 전파, 컨설팅 목표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경영컨설턴트 역량은 경영컨설팅 성과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재훈, 2019).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최고경영자 역량특성(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제품화 능력, 생산화 능력, 마케팅 능력, 프로젝트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컨설턴트 역량 중 공통역량은 관리적 역량→생산화 능력의 관계, 관리적 역량→프로젝트관리 능력의 관계, 기술적 역량→생산화 능력의 관계에서, 직무역량은 관리적 역량→마케팅 능력의 관계, 관리적 역량→프로젝트관리 능력의 관계에서, 관리역량은 관리적 역량→마케팅 능력의 관계, 관리적 역량→프로젝트관리 능력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강성천, 2020). 또한, 국내 경영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역량(능력, 지식, 자세)이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에서는 컨설턴트 역량 중 능력은 자기효능감, 희망에만, 지식과 자세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수들 전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봉휘, 2020).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국에 컨설팅을 수진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의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은 컨설팅 수용성과 컨설팅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기, 2021). 전국 혁신형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특성 중 하나인 컨설턴트역량이 컨설팅성공(컨설팅완성도, 컨설팅활용도)과 경영성

과(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비재무성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봉, 2021).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식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외식기업 구성원의 지각된 가치와 자기효능감, 외식기업의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컨설턴트 역량 중 공통역량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수, 2021).

컨설턴트 역량을 적용한 상기의 주요한 선행연구들 관련 연구주제, 연구대상자와 주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컨설턴트 역량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Simon & Kumar (2001)	경영컨설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컨설턴트의 전략적 역량 연구	호주 500대 기업의 상위권에 종사하는 최고경영자	컨설턴트 역량 : 경청/이해력, 서비스 품질, 커뮤니케이션, 청렴성/정직성, 기술 지식
김민 (2012)	외식 컨설턴트 역량이 외식업체 창업과정과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창업자	지식→창업과정(경영전략, 경험 및 지식), 가치→창업과정(경영전략)에 유의한 영향
한수규 (2012)	일자리창출 컨설턴트의 IT 및 관리 역량, 고객 지향성,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업상담사와 취업설계사	IT 활용역량→인정감, 관리역량→고객이해/구인·구직지도만 역량의 하위변수들이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배용섭 (2013)	컨설턴트 역량이 경영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컨설팅 프로젝트의 리더 및 팀원	공통역량/직무역량→컨설팅 프로젝트 완성도, 직무역량→경영성과기여도에만 정(+)의 유의한 영향
김후진 (2014)	경영컨설턴트 역량이 경영컨설팅 서비스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컨설팅을 받은 경남지역 소재 상공회의소	지식고객만족, 매출액 향상, 생산성 향상/경영컨설팅 서비스, 태도고객만족, 매출액 향상, 생산성 향상/경영컨설팅은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Albers (2014)	프로젝트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연구	노비우스 컨설팅 그룹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에 참여한 컨설턴트기업체	컨설턴트 능력 : 유연성, 분석력, 개념적 사고력, 창의력, 균형있는 판단력, 외부 환경에 대한 인지력, 비전수립 능력, 청취력, 감성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설득력, 진실성, 신뢰성,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력 등
김문준 (2015)	컨설턴트 역량이 컨설팅 성과와 조직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기업체	관리역량→컨설팅 성과/조직 성과는 유의한 정(+)의 영향, 공통역량과 직무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박준환 (2015)	컨설턴트 역량이 컨설팅 성과와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한 대전의 중소기업	컨설턴트 역량→컨설팅 성과는 정(+)의 유의한 영향, 컨설턴트 역량→고객충성도는 유의하지 않음
여우현 (2016)	경영컨설팅역량이 컨설팅완성도와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업은행에서 경영컨설팅을 수행한 전국 중소기업	공통역량/직무역량→컨설팅완성도, 직무역량→경영성과는 정(+)의 유의한 영향
곽재민 (2017)	컨설팅 역량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	컨설팅 역량(직무역량, 관리역량)→컨설팅 성과(프로젝트 운영성과, 프로젝트 활용성과)는 정(+)의 유의한 영향
전우소 (2017)	컨설턴트 역량지각이 컨설팅 완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부지원 컨설팅을 수진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컨설턴트 역량지각→컨설팅 완성도(과정품질, 결과품질)/재구매의도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김용호 (2018)	컨설턴트 역량이 컨설팅 만족도와 컨설팅 완성도,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을 수행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직무역량/관리역량→컨설팅 만족도/컨설팅 완성도/컨설팅 성과(기술성과), 관리역량→컨설팅 성과(경영성과)에만 정(+)의 영향
손환진 (2018)	컨설팅 역량이 컨설팅 완성도, 경영기여도, 능력향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국내에 등록된 컨설턴트	컨설팅 역량→컨설팅완성도/경영기여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이경식 (2018)	디자인컨설팅 역량이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컨설팅 역량이 조절하는 효과를 연구	상업공간 디자인프로젝트의 참여자	디자인역량/건축직무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만 정(+)의 유의한 영향, 컨설팅 역량 중 공통역량은 디자인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 건축직무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 직무역량과 관리역량은 건축직무역량→프로젝트관리성과에서 조절효과 有
김준휘 (2019)	소상공인 컨설턴트 역량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외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자들	컨설턴트 역량(능력, 지식, 자세)→컨설턴트 만족요인/경영성과(재무적 성과요인, 비재무적 성과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
신재훈 (2019)	경영컨설턴트 역량이 경영컨설팅 성과와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영컨설팅을 수진한 경험이 있는 전국 중소·중견기업의 임직원	경영컨설턴트 역량→경영컨설팅 성과/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
강성천 (2020)	컨설턴트 역량이 최고경영자 역량 특성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지를 연구	신용보증기금의 지식재산보증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	공통역량 : 관리적 역량→생산화 능력/프로젝트관리 능력, 기술적 역량→생산화 능력, 직무역량 : 관리적 역량→마케팅 능력/프로젝트관리 능력, 관리역량 : 관리적 역량→마케팅 능력/프로젝트관리 능력에서 조절효과 有
이봉휘 (2020)	컨설턴트 역량이 긍정심리자본(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국내 경영컨설턴트	컨설턴트 역량 중 능력은 자기효능감, 희망에만, 지식과 자세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수들 전부에 정(+)의 유의한 영향
김영기 (2021)	컨설턴트의 역량이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과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부산, 울산, 경남 소재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국에 컨설팅을 수진한 중소기업	컨설턴트의 역량은 컨설팅 수용성과 컨설팅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이상봉 (2021)	컨설팅특성 중 하나인 컨설턴트 역량이 컨설팅성공(컨설팅완성도, 컨설팅활용도)과 경영성과(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전국 혁신형 중소기업 임직원	경영성과 중 비재무성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임성수 (2021)	컨설턴트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이 외식기업 구성원의 지각된 가치와 자기효능감, 외식기업의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식기업	컨설턴트 역량 중 공통역량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제 4 절 컨설턴트 신뢰

1) 컨설턴트 신뢰의 개념

컨설턴트 신뢰(Trust)에서 신뢰라는 것은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학문 분야 및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는 뜻이라고 하며 어떠한 사람 또는 사물의 정직성,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거짓이나 위선이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 어떠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최창호, 2014; 신동주, 2015; 윤성희, 2017; 장영호, 2019; 이규상, 2021).

신뢰는 일정한 행동규칙인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이 있지 않으나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위를 억제하게 되고, 신뢰에 의해 상대방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정치학대사전편찬위

원회, 한국사전연구사, 미상).

신뢰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하고 두려운 것보다 기대하는 것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하며, 타인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지식을 행동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도 포함한다고 한다(Luhmann, 1979; McAllister, 1995).

신뢰는 자신이 확신을 가진 상대 파트너에게 의지하려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파트너의 전문성, 신뢰성, 의도성에서 비롯되는 상대 파트너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 감정, 기대로 보여져왔고, 파트너에 대한 의존을 반영하고 신뢰자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행동의도 또는 행동으로 간주되었다(Moorman, Zaltman & Desphande, 1992). 신뢰는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능력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신뢰자에게 중요한 특정 행동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상대방 행동에 민감해지려는 당사자의 의지를 말하며, 신뢰자에 대해 행동하고 기꺼이 반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다른 식별 가능한 당사자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또한, 신뢰는 타인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취약성을 수용하려는 의도를 구성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Rousseau, Sitkin, Burt & Camerer, 1998).

신뢰는 신뢰자를 연약하게 만드는 피신뢰자(신뢰된 상대방)의 자질을 의미하는 인식된 신뢰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Levin & Cross, 2004). 신뢰는 신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신뢰자의 관점과 이익을 감안하여 줄 것이라는 피신뢰자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볼 수가 있고 신뢰자가 피신뢰자의 행동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감수하거나 이해관계를 떠나 피신뢰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행동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황정현, 2013).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신뢰의 정의를 감안하여 신뢰는 상대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하였다(안필용, 2014). 미용 의료시장 내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자, 고객의 관계에서 신뢰를 의료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객의 믿음, 확신감으로 정의하였다(허은주, 2015).

도매여행사와 소매여행사 간의 신뢰는 소매여행사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도매여행사의 행동이 호의적이거나 배신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도매여행사가 믿음을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도매여행사의 협조를 기대하는 상

태로 정의하였다(김대희, 2018). 신뢰는 산업분야별로 환경적인 차이가 존재하나 파트너와의 효율적 제휴를 위한 사전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으며, 특히 컨설턴트와 기업 간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동방식이고 특히 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해진다고 한다(정문일, 2019).

기업의 관계마케팅에서 신뢰의 개념은 기업이 문제 발생시 해결하려는 노력, 고객에게 성실히 거래를 이행하려는 노력, 고객의 요구사항에 관심을 가지며 제공하는 상품을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진영권, 2020). 신뢰는 리더십의 효과성을 높이는 주요 기반이 되며 공동의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부하의 신뢰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중요하다(김보연, 2021). 신뢰는 고객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긍정적인 기대, 믿음,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측면은 감소시키려는 고객의 의지라고 한다(이규상, 2021).

컨설턴트 신뢰에서 의미하는 신뢰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양자 간의 신뢰가 아닌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와 컨설팅을 의뢰하는 고객과의 신뢰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을 하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컨설팅을 전담하는 컨설턴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

대인관계 신뢰는 조직생활에서 만연한 현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 행동,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고 기꺼이 행동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며, 때때로 타인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는 ‘그들이 그 또는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더 집중하게 된다(McAllister, 1995).

신뢰는 일방이 아닌 상호 간의 관계적 속성을 갖고 있어 신뢰자가 피신뢰자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피신뢰자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한창수, 2019). 신뢰는 교류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정직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기업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고객의 신뢰는 기업이 반드시 획득하고 유지해야 할 요소라고 한다(천부기, 2021).

2) 컨설턴트 신뢰의 구성요소

많은 학자들이 신뢰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한 것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뢰는 피신뢰자에 대하여 3가지 특성인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 진실(Integrity)로 정리된다고 한다(Mayer et al., 1995). Mayer et al.(1995)은 능력은 특정 영역 내에서 당사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 역량들 및 특성들의 집단이며, 호의는 자기중심적인 이익 동기와는 별개로 피신뢰자가 신뢰자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정도이고, 진실은 피신뢰자가 신뢰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신뢰자의 인식을 의미한다고 한다.

Lewis와 Weigert(1985)는 신뢰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내용이 어느 정도 신뢰의 모든 사례에 존재하지만 신뢰의 사례마다 질적 혼합이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신뢰 관계의 유형을 구별하는 기초를 제공하는데, 인지적 내용이 우세한 신뢰관계를 인지적 신뢰(Cognitive trust)로 지정하고, 감정적 요소가 더 우세한 관계를 감정적 신뢰(Emotional trust)라고 구분하였다(Lewis & Weigert, 1985; McAllister, 1995).

신뢰와 관련된 요인모형을 제시함에 있어 신뢰는 3가지 요인들로 나누어 역량 신뢰(Competence trust), 계약된 신뢰(Contractual trust), 호의 신뢰(Goodwill trust)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역량 신뢰는 상대방이 표준품 질수준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고 계약된 신뢰는 다른 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작성된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을 따를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호의 신뢰는 공식적으로 기대되는 것 이상의 것을 수행하는 것, 즉 관습적인 것을 넘어선 요청에 응답하고 파트너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Sako, 1992).

신뢰는 인식된 이득과 손실을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대인관계 애착과 인식에 기초한 감정적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크게 억제기반 신뢰(Deterrence-based trust), 계산기반 신뢰(Calculus-based

trust), 관계적 신뢰(Relational trust), 제도기반 신뢰(Institution-based trust)의 형태로 분류할 수가 있다(Rousseau et al., 1998). Rousseau et al.(1998)은 억제기반 신뢰는 배임으로 인해 시행되는 값비싼 제재가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잠재적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계산기반 신뢰는 경제적 교환에 기초한 상호작용의 합리적 선택 특성에 기반하고, 관계적 신뢰는 신뢰자와 피신뢰자 사이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상호 작용에서 비롯되며, 제도기반 신뢰는 계산기반 신뢰와 관계적 신뢰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위험 감수 및 신뢰 행동을 유지하는 신뢰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지식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신뢰는 지식 수용자가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높이는데, 이 경우에 신뢰는 지식 수용자의 명성으로 인해 지식 출처에 약해지는 호의기반 신뢰(Benevolence-based trust)와 지식 수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식출처의 역량을 신뢰함에 의한 역량기반 신뢰(Competence-based trust)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Levin & Cross, 2004).

신뢰를 관계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사람 간의 신뢰(Interpersonal Trust)는 상사와 부하 간의 신뢰인 수직적 신뢰와 동료 간의 신뢰인 수평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조직 간의 신뢰(Interorganizational Trust, 기업 상호 간에 형성되는 신뢰), 조직 신뢰(Organizational Trust, 개인과 조직 사이에서 형성되는 신뢰), 제도 신뢰(Institutional Trust, 개인이 속한 조직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안필용, 2014).

본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컨설턴트 신뢰를 Lewis와 Weigert(1985) 등이 제시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를 측정하는 항목들을 Hybrid 창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컨설턴트 신뢰의 선행연구

컨설턴트 신뢰 등을 비롯한 신뢰의 개념은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구성되어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지 않고 신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다양한 분야에 따라 변수들 간의 영향을 연구하여 신뢰의 중요성을 파악한 사례들도 있다.

조직 내 대인 협력의 기반인 정서기반 신뢰와 인지기반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종사하는 남녀 관리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반 신뢰가 정서기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지기반 신뢰가 정서기반 신뢰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cAllister, 1995).

미국 제약 회사, 영국 은행, 캐나다 석유 가스 회사 등 3개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약한 유대감의 강도와 효과적인 지식전달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역량기반 신뢰와 호의기반 신뢰가 유대강도에서 유용한 지식의 수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량기반 신뢰와 호의기반 신뢰는 유용한 지식의 수신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n & Cross, 2004).

스페인 북동부의 다양한 도시 지역에 있는 소매 여행사를 이용한 개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사의 신뢰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가 높으면 정(+)의 유의한 영향에 의해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etó-Pamies, 2012). 호주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가 수출업자 유연성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지적 신뢰는 수출성과에만 긍정적으로 유의하고 정서적 신뢰는 수출업자 유연성에만 긍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ur, Leckie & Webster, 2012).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외식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가 가맹점사업자의 협력과 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신뢰가 협력과 순응의도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외식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황정현, 2013).

전략, 재무, 인사,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컨설팅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대관계가 컨설팅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역량기반 신뢰와 배려

기반 신뢰가 매개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대관계가 컨설팅 프로젝트 성과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역량기반 신뢰와 배려기반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고, 역량기반 신뢰만 컨설팅 프로젝트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최창호, 2014).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뢰(정서적 신뢰, 인지적 신뢰)를 매개로 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서적 신뢰와 인지적 신뢰는 모두 정(+)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필용, 2014).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서비스에서 친밀한 관계 및 만족도에 대한 신뢰(역량 신뢰, 계약된 신뢰, 호의 신뢰)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신뢰 중 계약된 신뢰가 친밀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뢰가 고객의 친밀한 관계 및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Fatima & Razzaque, 2014).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중심 개인병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미용의료시장 신뢰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는 관계지속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신뢰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허은주, 2015). 국내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의 관계신뢰가 중소기업과 컨설턴트 간의 관계만족과 장기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관계신뢰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컨설턴트와 중소기업 간의 관계신뢰가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장기관계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주, 2015). 뉴질랜드 전국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은행서비스 관계에서 신뢰-가치-충성도의 2차원 모델을 사용하여 인지적 신뢰가 실용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적 신뢰가 쾌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모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실용적 가치에는 인지적 신뢰, 쾌락적 가치에는 정서적 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제시하였다(Chai, Malhotra & Alpert, 2015).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 카지노에 근무하는 남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카지노 상사의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가 직원의 조직몰입(정서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인지적 신뢰는 지속몰입, 정서적 신뢰는 조직몰입의 하위변수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선, 2016).

최근 1~2년 이내에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의 신뢰가 고객과의 장기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는 고객과의 장기관계 지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동주(2015)의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과 다르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윤성희, 2017).

도매여행사의 가맹점 형태로 일반여행과 국외여행을 담당하는 소매여행사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도매여행사의 신뢰가 관계만족과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결과는 신뢰는 관계만족과 관계지속의도에 모두 긍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도매여행사의 신뢰가 소매여행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함을 제시하여 준다(김대희, 2018).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에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신뢰가 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정보공정성)이 관계결속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보공정성이 관계결속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신뢰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종희, 2018).

국내 소재한 정부지원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 신뢰가 경영컨설팅에 대한 지각된 가치, 컨설팅고객 서비스 만족, 컨설팅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부 신뢰는 모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정미라, 2018).

창업 7년 미만의 소기업에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특히 컨설팅 서비스(공통역량, 상호작용, 적극성, 관리역량, 직무 서비스, 물리적 환경, 부가적 혜택)와 특히 서비스 재구매 간에 신뢰가 매개하는지와 신뢰가 특히 서비스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함에 있어 신뢰는 상호작용, 직무 서비스, 부가적 혜택과 특히 서비스 재구매 간을 매개하며, 신뢰는 특히 서비스 재구매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일, 2019).

인사, 노무, 재무, 경영전략, 마케팅, 원가절감 등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중소기업의 담당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와 클라이

언트의 신뢰관계가 컨설팅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 인지적 기반 신뢰는 정서적기반 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고 정서적기반 신뢰가 감정이입 능력과 컨설팅성과에도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인지적기반 신뢰가 정서적기반 신뢰의 선행변수로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제시하였다(한창수, 2019).

세종, 대전의 거주자 중 중소기업 가전제품인 TV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관계마케팅(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 유사성, 관계효익)이 고객자산(가치자산, 브랜드자산, 관계자산)에 영향을 줌에 있어 신뢰가 매개하는지와 신뢰가 고객자산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함에 있어 신뢰는 관계마케팅과 고객자산의 하위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으며, 고객자산의 하위변수들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고객자산 형성에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였다(진영권, 2020).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았거나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 세 멘토링을 받은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량이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지와 멘토 신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에서는 멘토 역량은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도에는 인지적 신뢰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동신, 2020). 아랍에미리트 집행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에 대한 서비스 품질(B2B SERVQUAL)과 컨설턴트에서 신뢰가 공공부문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컨설턴트 신뢰가 서비스 품질과 PMC 성과 간을 매개하며, 컨설턴트 신뢰가 PMC 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Alghfeli et al., 2020).

국적 항공사 중 K 항공사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번트 리더십(봉사, 경청, 신뢰, 부하육성)과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리더신뢰(인지적 신뢰, 감성적 신뢰)가 매개하는지와 리더신뢰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에서 리더신뢰 중 인지적 신뢰만 부하육성과 직무만족 간에는 매개하지 않으며, 리더신뢰 중 감성적 신뢰만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보연, 2021). 중국 태권도 수련생을 대

상으로 관계신뢰가 행동의도(충성도, 재이용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에서는 관계신뢰가 행동의도의 하위변수들에게 모두 정(+)의 영향을 주어 관계신뢰가 행동의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노일범, 2021).

컨설팅트 신뢰 등 신뢰를 적용한 상기의 주요한 선행연구들 관련 연구주제, 연구대상자와 주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컨설팅트 신뢰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McAllister (1995)	조직 내 대인 협력 기반으로서 정서기반 신뢰와 인지기반 신뢰에 대한 연구	다양한 산업에서 종사하는 남녀 관리자와 전문가	인지기반 신뢰→정서기반 신뢰 : 정(+)의 유의한 영향
Levin & Cross (2004)	신뢰할 수 있는 약한 유대감의 강도와 효과적인 지식전달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	미국 제약 회사, 영국 은행, 캐나다 석유 가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유대강도→유용한 지식의 수신 관계에서 역량기반 신뢰와 호의기반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고, 역량기반 신뢰/호의기반 신뢰→유용한 지식의 수신은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Setó-Pamies (2012)	여행사의 신뢰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스페인 북동부의 다양한 도시 지역에 있는 소매 여행사를 이용한 개인	신뢰→고객충성도 : 정(+)의 유의한 영향
Zur et al. (2012)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가 수출업자 유연성과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호주 수출업체	인지적 신뢰→수출성과, 정서적 신뢰→수출업자 유연성 : 정(+)의 유의한 영향
황정현 (2013)	외식프랜차이즈에 대한 신뢰가 가맹점사업자의 협력과 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신뢰→협력/순응의도 :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최창호 (2014)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대관계가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역량기반 신뢰와 배려기반 신뢰가 매개하는지를 연구	전략, 재무, 인사,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컨설팅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유대관계→컨설팅 프로젝트 성과 관계에서 역량기반 신뢰와 배려기반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고, 역량기반 신뢰→컨설팅 프로젝트 성과만 정(+)의 유의한 영향
안필용 (2014)	신뢰를 매개로 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	정서적 신뢰, 인지적 신뢰는 모두 정(+)의 매개효과 있음
Fatima & Razzaque (2014)	은행서비스에서 친밀한 관계 및 만족도에 대한 신뢰(역량 신뢰, 계약된 신뢰, 호의 신뢰)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의 고객	계약된 신뢰→친밀한 관계를 제외하고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허은주 (2015)	미용의료시장 신뢰가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중심 개인병원 이용고객	신뢰는 관계지속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
신동주 (2015)	컨설턴트의 관계 신뢰가 중소기업과 컨설턴트 간의 관계만족과 장기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관계신뢰→관계만족/장기관계 지향성 : 정(+)의 유의한 영향
Chai et al. (2015)	은행서비스 관계에서 신뢰-가치-충성도의 2차원 모델에서 신뢰와 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	뉴질랜드 전국의 거주자	인지적 신뢰→실용적 가치, 정서적 신뢰→쾌락적 가치 :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양혜선 (2016)	카지노 상사의 신뢰가 직원의 조직몰입(정서몰입, 지속몰입, 규범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릭 카지노에 근무하는 남녀 종사자	인지적 신뢰→지속몰입, 정서적 신뢰→몰입/지속몰입/규범몰입 : 정(+)의 유의한 영향
윤성희 (2017)	컨설턴트의 신뢰가 고객과의 장기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근 1~2년간 컨설팅사로부터 컨설팅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신뢰→장기관계 지향성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김대희 (2018)	도매여행사의 신뢰가 관계만족과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도매여행사의 가맹점 형태로 일반여행과 국외여행을 담당하는 소매여행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신뢰→관계만족/관계지속의도 : 정(+)의 유의한 영향
양종희 (2018)	신뢰가 공정성(분배, 절차, 상호작용, 정보)이 관계결속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분석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에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정보공정성→관계결속/재계약의도에만 신뢰의 매개효과가 없음
정미라 (2018)	정부 신뢰가 경영컨설팅에 대한 지각된 가치, 컨설팅고객 서비스 만족, 컨설팅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국내 소재한 정부지원의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정부 신뢰는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정문일 (2019)	특히 컨설팅 서비스와 특히 서비스 재구매 간에 신뢰가 매개하는지와 신뢰가 특히 서비스 재구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	창업 7년 미만의 소기업에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신뢰는 상호작용, 직무 서비스, 부가적 혜택과 특히 서비스 재구매 간을 매개하며, 신뢰는 특히 서비스 재구매에 정(+)의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한창수 (2019)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의 신뢰관계가 컨설팅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컨설팅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중소기업의 담당자 또는 경영자	인지적 기반 신뢰→정서적기반 신뢰, 정서적기반 신뢰→감정이입 능력/컨설팅성과 : 정(+의 유의한 영향
진영권 (2020)	관계마케팅이 고객자산에 영향을 줌에 있어 신뢰가 매개하는지와 신뢰가 고객자산에 영향을 주는 지 연구	세종, 대전의 거주자 중 중소기업 가전제품인 TV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고객	신뢰는 관계마케팅(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 유사성, 관계효익)과 고객자산(가치자산, 브랜드자산, 관계자산)의 하위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고, 고객자산의 하위 변수들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
곽동신 (2020)	멘토 역량이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에 영향을 주는지와 멘토 신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받았거나 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을 받은 예비창업자	멘토 역량→인지적 신뢰/정서적 신뢰, 인지적 신뢰→창업의도 : 유의한 정(+의 영향
Alghfeli et al. (2020)	컨설턴트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컨설턴트에서 신뢰가 공공부문 PMC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랍에미리트 집행위원회 직원	컨설턴트 신뢰가 서비스 품질과 PMC 성과 간을 매개하며, 컨설턴트 신뢰가 PMC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
김보연 (2021)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유효성(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리더신뢰가 매개하는지와 리더신뢰가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지 연구	국적 항공사 중 K 항공사 승무원	리더신뢰(인지적 신뢰, 감성적 신뢰) 중 인지적 신뢰만 서번트 리더십(봉사, 경청, 신뢰, 부하육성) 중 부하육성과 직무만족 간에는 매개하지 않으며, 리더신뢰 중 감성적 신뢰만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음
노일범 (2021)	관계신뢰가 행동의도(충성도, 재이용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국 태권도 수련생	관계신뢰가 행동의도의 하위 변수들에게 모두 정(+의 영향

제 5 절 Hybrid 예비창업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으로 크게 교육 지원,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기홍석, 2020).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정책들 중 자금 지원에는 크게 직접 자금 지원과 간접 자금 지원으로 분류되며, 직접 자금 지원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대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자보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직접 투자, 고용지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이 있고, 간접 자금 지원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신용보증이란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신용보증기금, 2021).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Hybrid 창업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신용보증기관의 대표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상품인 예비창업보증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지원을 위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으로 변경하여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의 선행변수로 사용하였다.

1)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개념

예비창업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유망창업기업인 중소기업을 창업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기 전에 보증한도를 심사한 후 보증지원예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통지 후 6개월 내에 창업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을 의미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예비창업보증의 대상으로 정한 유망창업기업이란 창업의 핵심이 되는 전문자격, 아이디어, 기술·지식 등 창업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유망창업기업의 창업유형으로 전문자격 창업유형, 아이디어 창업유형, 기술·지식 창업유형의 3가지가 있다.

전문자격 창업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국가기술자격(기능장, 기술사, 기사), 전문서비스 관련 국가전문자격(안경사, 약사, 의사, 변호사 등)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영위(예정)하는 기업, 대학 교수 또는 박사이거나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분야의 사업을 영위(예정)하는 기업, 창업일로부터 과거 3년 내에 제조업 또는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해당 분야의 사업을 영위(예정)하는 기업이다(신용보증기금, 2021).

아이디어 창업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술로 창업(예정)한 기업이거나 창업경진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나 기업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예정)하는 기업,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추천기업이다(신용보증기금, 2021).

기술·지식 창업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유망서비스 부문 대상업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뿌리산업 영위기업, 지식기반 영위기업,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일정등급(예로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이상인 제조업 영위기업이다(신용보증기금, 2021).

본 연구에서 제시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은 직장인으로서 직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Hybrid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으로 현재 국내 신용보증기관들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Hybrid 예비창업보증은 본 연구를 통해 Hybrid 창업의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 신용보증기관들에서 시행중에 있는 예비창업보증을 준용하여 Hybrid 예비창업자에게 특성화한 예비창업보증으로 연구자가 신규로 제안한 보증상품이자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수이다.

물론,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음식점, 사진관, 양복점 등 소상공인 업종 또는 도소매업, 건설업, 운수업 등 유망창업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생기업의 업종별 5년 생존율이 숙박 및 음식점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20.5%, 도소매업 27.9%, 개인서비스업 33.0% 등인 점을 감안시 공적자금으로 운용되는 신용보증기관이 선별적으로 예비창업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직장인이 Hybrid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타당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통계청, 2020a).

그러나, 소상공인 업종 또는 일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일정금액 내에서 예비창업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한 후 일정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하거나 기술평가등급이 우수한 일반기업들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다양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제도

국내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예비창업보증 제도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망창업기업의 창업유형인 전문자격 창업유형, 아이디어 창업유형, 기술·지식 창업유형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예비창업보증 대상이다.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기 전에 보증한도를 심사하는 ‘창업준비 단계’ 보증심사와 ‘창업준비 단계’ 보증심사에서 승인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예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통지 후 6개월 내에 창업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이후 단계’ 보증심사라는 2단계를 거

쳐 예비창업보증을 지원한다. 신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를 등록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 단계’에서 사전심사를 한 후 보증지원예정 통지를 하는 것이다.

예비창업자가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실제경영자이어야 하며,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 이외에 다른 기업(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금지 대상(채무면탈기업 등), 보증제한 대상(휴업,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중, 신용관리정보 보유 등), 선별지원 대상(도박·사행성 게임 및 향락 업종, 보증취급 유의업종, 대기기업 등)이 아니어야 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이중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로서 보증신청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없어야 한다(신용보증기금, 2021).

예비창업보증의 총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보증과 시설자금보증을 합하여 최대 10억원이나, 전문자격 창업유형을 제외한 아이디어 창업유형과 기술·지식 창업유형은 최대 7억원까지이다.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예비창업자 사업성 평가점수별 보증한도 중 적은 금액(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적용 배제)으로 지원하고 시설자금 보증한도는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이내이다(신용보증기금, 2021).

신용보증의 보증비율은 100%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성등급(K1~K15)에 따른 보증료율 0.5%~2.5%에서 0.7%(예비창업보증 차감율)를 차감하며,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 17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유망청년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까지 고정보증료율 0.3%를 적용한다(신용보증기금, 2021).

나)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기술보증기금은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일반예비창업자이거나 전문가예비창업자로서 기술평가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창업하는 경우에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을 지원한다.

일반예비창업자는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사업화 하려는 예비창업자,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 맞춤형창업기업(지식문화창업기업, 이공계첼린저 창업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기업, 첨단·성장 연계창업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최근 3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예비창업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주체로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는 예비창업자, 그 밖에 우수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예비창업자를 말한다(기술보증기금, 2021).

전문가예비창업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이다(기술보증기금, 2021).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2단계의 예비창업자 심사를 거친다. 예비창업자가 창업하기 전에 보유한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평가등급을 산정하고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보증지원 가능금액이 자동으로 통지하는 ‘창업 전’ 기술평가와 예비창업자에게 통지된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바탕으로 기술평가 완료등록 후 6개월 내에 창업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보증심사라는 2단계를 거쳐 예비창업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달리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보증지원 전에 성공창업지원을 위한 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비창업자가 보증을 신청하는 기업 이외에 다른 사업(전문경영인과 실제경영자 포함)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금지 대상, 보증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이중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로서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잔액이 없어야 한다(기술보증기금, 2021).

예비창업자사전보증의 총 보증한도는 동일 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보증과

시설자금보증을 합하여 창업분야(일반예비창업자, 전문가예비창업자)와 기술사업평가등급(CCC등급~AAA등급)에 따라 최대 10억원(일반예비창업자 5억원, 전문가예비창업자 10억원)이며,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한도(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전자금 보증한도 적용 배제) 내에서 소요자금의 적정성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시설자금 보증한도는 해당 시설의 소요자금 이내이다(기술보증기금, 2021).

신용보증의 보증비율은 100%로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AAA~C)에 따른 보증료율 0.8%~2.2%에서 0.7%(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차감율) 차감 및 창업기간별 차감(창업 후 3년 이내 0.4% 차감,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0.3% 차감)하며, 실제경영자의 연령이 만 17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까지 고정보증료율 0.3%를 적용한다(기술보증기금, 2021).

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창업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6개(서울,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16개의 신용보증재단을 총괄하고 있다.

예비창업보증도 전국 16개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한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하려는 재단의 창업컨설팅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로서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시 소요된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5년간 보증비율 90%(나머지는 10%는 은행 신용부담), 보증료율 연 1.0%를 적용한다. 다만,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 컨설팅을 수료하고 사업장 구비를 완료한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간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1.0%를 적용한다. 예

비창업자에게 서울시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산정한 금리에서 0.8%~1.3%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창업교육 12시간 이상 또는 컨설팅 2일 이상 이수한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 ②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통상실시권 제외)를 사업화하려는 지식재산권 사업화 예비자로서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유망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전 사전보증단계’에서 보증 지원 예비통지를 하고 ‘창업 후 본 보증단계’에서 업체당 최대 4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간 보증비율 90%, 보증료를 연 1.0%를 적용한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지원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창업교육·컨설팅 이수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려는 자영업자로서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유망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에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예상액 등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시 업체당 최대 4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간 보증비율 90%, 보증료를 연 1.0%를 적용한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지원한다.

상기 이외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서 같은 기업당 5천만원, 최대 5년간 보증료를 연 1.0% 이내로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화보증을 지원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도 한시적으로 같은 기업당 4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간 예비창업자 지원 우대보증을 시행하였던 사례가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9]과 같다.

[표 2-9]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제도 비교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상기업	유망창업기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창업자 (전문자격, 아이디어, 기술·지식 유형)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 보유한 일반/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역별로 상이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 지식재산권 사업화 예비자 등)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방법	창업 전/후 2단계 (창업준비 및 창업이후 단계별 보증심사)	창업 전/후 2단계 (창업 전 기술평가, 창업 후 보증심사)	창업 전/후 2단계 또는 창업 전 지원
창업기한	보증지원 예정통지 후 6개월	기술평가완료일부터 6개월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보증한도	운전자금+시설자금 최대 10억원 내 (단, 아이디어 유형, 기술·지식 유형 : 7억원)	운전자금+시설자금 최대 10억원 내 (단, 일반예비창업자 : 5억원)	운전자금 3천만원~5천만원 (서울은 임차자금 5천만원 추가)
운전자금 한도	Min(자기자금, 소요자금,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단, 1억원 이하는 배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한도 내에서 소요자금 (단, 1억원 이하는 배제)	-
보증비율	100%	100%	90% (임차자금은 100%)
보증료율	미래성장성등급별 보증료율(0.5~2.5%) 에서 0.7% 차감 (단, 유망청년창업은 창업 후 7년간 0.3%)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료율(0.8~2.2%) 에서 0.7% 차감 및 창업 후 기간에 따라 0.3%~0.4% 차감 (단, 청년창업은 창업 후 5년간 0.3%)	최대 1.0%

〈출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제 규정

3) 정부지원제도의 선행연구

선행연구들 중에서 예비창업보증을 변수로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정부지원제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이 포함된 정부지원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정부지원제도라는 변수의 영향관계를 다음과 같

이 살펴보았다.

중국 내 혁신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R&D 보조금, 정부의 과학 연구 프로젝트 보조금, 지역혁신정책, 세액공제)이 기업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정부의 R&D 보조금과 지역혁신정책이 기업혁신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Wei & Liu, 2015). 향후 커피전문점 창업의향이 있는 커피전문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의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을 보여준다(구지은, 전병길, 2015).

창업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한 문화컨텐츠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 경영, 기술지원 등 창업인프라 지원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경영지원제도를 제외한 금융지원제도와 기술지원제도가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종열, 2017).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각 지부 창업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외식업 창업을 하였거나 기존 외식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외식창업교육(법률교육, 기업가정신교육, 상권분석교육, 실무교육)과 학습전이효과(창업교육 만족도, 학습전이) 간의 조절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외식창업자의 창업지원정책에 따라 창업교육 중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습전이에만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업지원정책의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황규삼, 2017).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창업지원정책(창업교육 지원, 창업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이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창업자금과 마케팅지원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각각 부(-)와 정(+)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있어 정부의 창업자금은 위험을 회피하게 하고 마케팅 지원은 창업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김정곤, 2017).

부산 소재 2개 대학교의 재학생들 및 직장인들 중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향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거나 구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정책의 수준(국내와 같은 낮은 수준, 선진국과 같은 높은 수준)에 따라서 친환경의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정부지원정책의 수준에 따라서 친환경적 선택속성(높은 수준, 낮은 수준)이 친환경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정부지원정책 수준이 높은 경우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지원정책 수준이 높을 경우 친환경차의 친환경적 선택속성도 높을 때에 친환경차의 구매의도가 높아지고 정부지원정책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친환경적 선택속성이 낮을 때 친환경차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김향민, 2017).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기업성과와 신규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은 기업성과와 신규일자리창출에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여서 벤처기업들에게 정부지원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Kwon, Chung & Son, 2017).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에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은 중소기업 간 네트워킹 구조(네트워크 밀집도, 네트워크 집중도)와 지속가능한 경쟁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지의 연구에서 정부지원은 지속가능한 경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지원이 네트워킹 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쟁성과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que, 2018). 대전과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창업시설,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에서는 창업교육과 창업컨설팅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개발이전과 창업문화가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유의하여 창업자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덕화, 2018).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스마트 공장에 관심과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스마트 공장의 수용/수용의도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정부지원이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스마트 공장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길형철, 2019). 서울·경기지역의 호텔, 외식업체, 조리학교 등에 근무하는 조리전공을 한 조리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경

력개발지원이 프로티언 경력태도(자기주도성, 가치지향성)와 주관적 경력성공(경력만족, 직무만족, 직무몰입) 간과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창업의도 간을 각각 매개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경력개발지원이 자기주도성과 경력만족, 자기주도성과 직무만족, 가치지향성과 경력만족, 자기주도성과 창업의도, 가치지향성과 창업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업의도를 높이려면 경력개발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박진호, 2019).

퇴직 및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40~65세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정부지원, 가족지원)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정부지원이 창업효능감에만 정(+)의 유의한 영향을 보여줘서 정부지원이 시니어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준다고 하였다(강병승, 2020).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지원)이 자기효능감과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에서는 창업자기효능감에는 교육 지원과 인프라 지원이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실패부담감에는 자금 지원만이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육 지원과 인프라 지원은 창업자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창업자금 지원은 창업자의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기홍석, 2020).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야 할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기대가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여 준다(김정래, 2020). 수도권에서 외식업장을 운영하는 외식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지원정책(금융, 교육, 컨설팅)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결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업지원정책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경영성과 향상과 높은 사업지속의도가 나타났다(이금옥, 2020).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전남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이 미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신용보증은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 증가하는데, 소상공인의 주된 업종인 도소매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하며 지역별과 업종별로 파급효과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조정란, 2020).

순수예술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공공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라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함에 있어 공공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라 예술지속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공공지원의 수혜가 예술을 지속하는 동기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김초하, 2021).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 관련 연구주제, 연구대상자와 주요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정부지원제도 관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Wei & Liu (2015)	정부지원(R&D 보조금, 정부의 과학연구 프로젝트 보조금, 지역 혁신정책, 세액공제)이 기업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중국 내 혁신적인 기업	R&D 보조금/지역혁신정책→기업혁신성과 :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구지은, 전병길 (2015)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향후 커피전문점 창업의향이 있는 커피전문점 종사자	창업지원서비스→창업의도 : 정(+)의 유의한 영향
오종열 (2017)	정부의 금융, 경영, 기술지원 등 창업 인프라 지원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창업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한 문화컨텐츠 전공학생	금융지원제도/기술지원제도→창업의도 : 정(+)의 유의한 영향
황규삼 (2017)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외식 창업 교육과 학습전이 효과(창업교육 만족도, 학습전이) 간의 조절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한국외식업 중앙회 산하 각 지부 창업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외식업 창업을 하였거나 기존 외식업 창업자	외식창업자의 창업지원정책에 따라 창업교육(법률교육, 기업가정신교육, 상권분석교육, 실무교육) 중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습전이에만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김정곤 (2017)	정부창업지원정책(창업교육지원, 창업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이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연구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창업자금과 마케팅지원이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각각 부(-)와 정(+)의 조절효과가 있음
김향민 (2017)	정부지원정책의 수준에 따라서 친환경의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정부지원정책의 수준에 따라서 친환경적 선택속성이 친환경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	부산 소재 대학의 재학생과 직장인들 중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거나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정부지원정책 수준이 높은 경우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침, 정부지원정책 수준이 높을 경우 친환경차의 친환경적 선택속성도 높을 때 친환경차의 구매의도가 높아지고 정부지원정책의 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친환경적 선택속성이 낮을 때 친환경차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남
Han et al. (2017)	정부지원이 기업성과와 신규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국에 있는 벤처기업	정부지원→기업성과/신규일자리창출 :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Hoque (2018)	정부 지원은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조(네트워크 밀집도와 집중도)와 지속가능한 경쟁성과 간의 관계 연구	이슬라마바드와 라왈핀디에 소재한 제조업 중소기업	정부지원→지속가능한 경쟁성과 : 정(+)의 유의한 영향, 정부지원이 네트워크 구조와 지속가능한 경쟁성과 간을 매개
정덕화 (2018)	창업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창업시설, 연구개발이전, 창업문화)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대전과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4년제 대학생	창업교육/창업컨설팅→창업기회인식/창업가정신, 연구개발이전/창업문화→창업기회인식 :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길형철 (2019)	정부지원이 스마트 공장의 수용/수용의도와 스마트 공장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스마트 공장에 관심과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	정부지원→스마트 공장의 수용/수용의도, 스마트 공장 만족도 :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
박진호 (2019)	경력개발지원이 프로티언 경력태도(자기주도성, 가치지향성)와 주관적 경력성공(경력만족, 직무만족, 직무몰입) 간과 프로티언 경력태도와 창업의도 간을 각각 매개하는지를 연구	서울·경기지역의 호텔, 외식업체, 조리학교 등에 근무하는 조리전공을 한 조리종사원	경력개발지원이 자기주도성과 경력만족, 자기주도성과 직무만족, 가치지향성과 경력만족, 자기주도성과 창업의도, 가치지향성과 창업의도를 매개
강병승 (2020)	창업지원(정부지원, 가족지원)이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퇴직 및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40~65세의 시니어	정부지원→창업효능감에만 정(+)의 유의한 영향
기홍석 (2020)	창업지원정책(자금지원, 교육지원, 인프라지원)이 자기효능감과 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전국의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교육지원/인프라지원→창업자기효능감 : 정(+)의 유의한 영향, 자금지원→실패부담감 : 부(-)의 유의한 영향
김정래 (2020)	정부지원기대가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야 할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	정부지원기대→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 : 정(+)의 유의한 영향
이금옥 (2020)	경영성과가 사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연구	수도권에서 외식업장을 운영하는 외식창업자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가 있음

연구자	연구주제	연구대상자	연구결과
조정란 (2020)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신용보증이 미치는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연구	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전남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은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 증가하는데, 소상공인의 주된 업종인 도소매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지역별과 업종별로 파급효과의 정도가 상이함
김초하 (2021)	공공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라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	순수예술분야(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	공공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라 예술지속의도에 차이가 있음

Krueger Jr, Reilly와 Carsrud(2000)는 창업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이며, 이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소는 창업의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진희 b,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Hybrid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활용하며,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모형의 복잡성에서 벗어나고자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과거 행동의 빈도와 최신성이라는 변수들을 제외하고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정부지원제도인 Hybrid 예비창업보증을 추가한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Start-up Desire : SD)과 Hybrid 창업의도(Start-up Intention : SI)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인 창업태도(Start-up Attitude : SA),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 SN), 긍정적 기대감정(Positive Anticipated Emotion : PAE), 부정적 기대감정(Negative Anticipated Emotion : NAE),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PBC)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과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결합한 모형을 본 연구의 중심적인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제시한 컨설팅산업의 틈새시장인 Hybrid 창업에서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가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의 선행변수로서 컨설턴트 역량(Consultant Competency : CC)과 컨설턴트 신뢰(Consultant Trust : CT)를 연구모형에 추가하였다.

국내 신용보증기관에서 예비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이 있음을 감안하여 Hybrid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증상품인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의 선행변수로서 Hybrid 예비창업보증(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 PSG)을 연구모형에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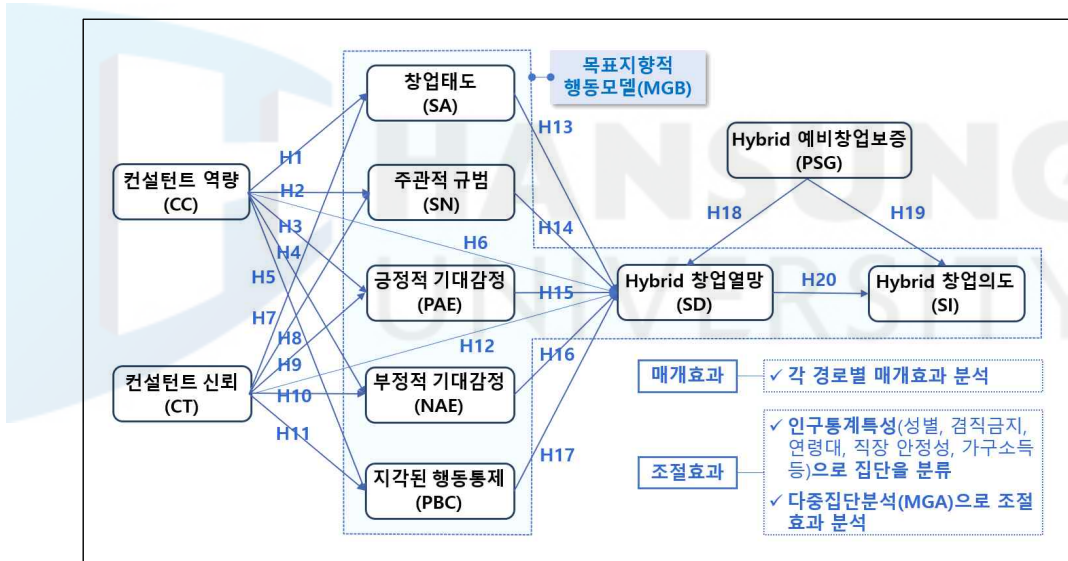
종합하여 보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기반으로 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의 잠재변수들인 창업태도(SA), 주관적 규범(SN), 긍정적 기대감정(PAE), 부정적 기대감정(NAE), 지각된 행동통제(PBC), Hybrid 창업열망(SD), Hybrid 창업의도(SI) 간의 영향관계는 물론, 선행변수로서 컨설턴트 역량(CC), 컨설턴트 신뢰(CT), Hybrid 예비창업보증(PSG)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의 잠재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3-1]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잠재변수들 간의 총 20개의 가설경로를 바탕으로 PLS-SEM에서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통해 개별적인 특정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해 매개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겸직금지 여부, 연령대, 직장 안정성, 가구소득 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연구모형의 각 경로별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PLS-SEM의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 MGA)을 수행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그림 3-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설1(H1)부터 가설20(H20)까지 총 20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설 6개는 컨설턴트 역량(CC)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MGB) 내 선행변수들[창업태도(SA), 주관적 규범(SN), 긍정적 기대감정(PAE), 부정적 기대감정(NAE), 지각된 행동통제(PBC)] 간의 관계, 가설 6개는 컨설턴트 신뢰(CT)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선행변수들 간의 관계, 가설 5개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선행변수들과 Hybrid 창업열망(SD) 간의 관계, 가설 2개는 Hybrid 예비창업보증(PSG)과 Hybrid 창업열망(SD), Hybrid 창업의도(SI) 간의 관계, 가설 1개는 Hybrid 창업열망(SD)과 Hybrid 창업의도(SI) 간의 관계와 관련된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 관련 가설들 이외에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관련 가설들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 이는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관련 가설을 몇 개로 특정하여 검증하는 것보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모든 매개변수에 대하여 매개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분류한 집단들에 대하여 조절효과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에 기인한다.

본 연구의 가설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선행연구와 가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턴트 역량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 간의 관계

컨설턴트 역량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없으나,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역량이 다양한 태도, 규범, 감정, 행동통제, 열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있다.

첫째,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역량 중 독창성과 융통성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기술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중학생의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기술 기획역량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역량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역량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Baum, Locke & Smith, 2001; Catano, Pond & Kevin

Kelloway, 2001; 신동주, 유연우, 2014; 하환호, 변충규, 2014; 이명훈, 2016; 정진용, 2016; 최대수, 성창수, 2017; 양승광, 송유진, 2018; 박대한, 성창수, 2019; 이기용, 강경구, 2019; 양희, 2020).

둘째, 규범과 관련하여 물류자원역량이 관계규범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역량은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전달영, 김홍선, 2006).

셋째, 감정과 관련하여 전문병원 역량인 인적자원 역량, 기술자원 역량, 물적자원 역량이 감정적 애착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 MC 역량 중 기술역량과 태도역량이 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서비스역량이 고객감정반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역량은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Sundaram & Webster, 2000; 소권섭, 2011; 김광희, 2016; 윤은숙,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행잠재변수인 컨설턴트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후행잠재변수인 부정적 기대감정(측정항목의 예 :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걱정될 것이다)이 높아질 것이므로 부(-)의 영향이 아닌 정(+)의 영향이 기대될 것이다.

넷째,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코칭역량이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역량은 행동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민혜영, 신나리, 2019).

다섯째, 열망과 관련하여 교직핵심역량과 교수능력이 교직전문성 열망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역량 중 자기주도학습, 진로개발, 창의융합, 글로벌 등이 경력 열망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 역량이 기업가 열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역량은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안도희, 김유리, 2015; McKenzie, Coldwell-Neilson & Palmer, 2017; 박용호, 홍유리, 강지훈, 임혜경, 2020, 윤병선, 김천규, 2020).

따라서 컨설턴트가 직장인에 대하여 Hybrid 창업컨설팅을 수행시 컨설턴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은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Hybrid 창업열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H1)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H2)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H3)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긍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H4)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H5)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H6)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컨설턴트 신뢰와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 간의 관계

컨설턴트 신뢰도 컨설턴트 역량과 마찬가지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컨설턴트가 아닌 다른 전문가의 신뢰가 선행변수들인 태도, 규범, 감정, 행동통제, 열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사에 대한 신뢰가 부하직원의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애착에 미치는 영향, 외식기업에 대한 신뢰가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신뢰 중 인지적 신뢰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리더신뢰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원 보좌진의 조직신뢰인 의원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가 직무태도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신뢰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Dirks & Ferrin, 2001; Johnson & Grayson, 2005; 강길숙, 2010; 조현구, 2015; Giovannini,

Ferreira, Da Silva & Ferreira, 2015; 김사업, 2016; 박상금, 2016; 김은정, 2017; 김동호, 2018; 김재정, 2018; 유경선, 2019).

둘째, 규범과 관련하여 신뢰가 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신뢰가 관계규범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사의 관계규범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신뢰가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오세조, 송영욱, 성민, 2002; 이광호, 김정희, 2013).

셋째, 감정과 관련하여 IPTV 서비스 사용상황에서 사용자의 신뢰가 높아질수록 긍정적 감정을 강화시키고 신뢰가 낮으면 부정적 감정을 강화키고,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신뢰가 정서적 기반 신뢰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 등을 감안시 신뢰는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신지나, 2010; Shin, Ahn & Kim, 2013; 안순희, 2017; 김동현, 최병권, 2018; 정상옥, 2019; 한창수, 2019). 여기에서도 컨설턴트의 역량과 동일하게 컨설턴트의 신뢰가 높아질수록 후행잠재변수인 부정적 기대 감정이 높아질 것이므로 부(-)의 영향이 아닌 정(+)의 영향이 기대될 것이다.

넷째, 행동통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하의 조직내 신뢰가 상호작용통제에 미치는 영향, 본사 및 자회사 간 신뢰가 해외자회사 통제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신뢰는 행동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김달곤, 2008; 김익수, 김병구, 2010).

다섯째, 열망과 관련하여 유도, 용무도, 체조 등에서 지도자신뢰가 운동열정에 미치는 영향, 상사에 대한 신뢰가 종업원의 직무열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통계적으로 대부분 정(+)의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점을 감안시 신뢰는 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Hrebiniak & Alutto, 1972; 황성하, 2014; 공성배, 강민철, 권지영, 2018; 최영희, 2018; 김대은, 남광우, 조건상, 2019; 조상리, 2019).

따라서 컨설턴트 역량과 동일하게 컨설턴트가 직장인에 대하여 Hybrid 창업컨설팅을 수행시 컨설턴트에 대한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는 직장

인들의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Hybrid 창업열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 (H7)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H8)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H9)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긍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H10)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H11)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H12)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과 창업열망 간의 관계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선행변수들인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가 열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평태도, 긍정적 및 부정적 예상정서, 주관적 규범, 통제지각 중 주관적 규범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평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현, 2013). 가상 커뮤니티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제외하고는 긍정적 및 부정적 기대감정, 기여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열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sai & Bagozzi, 2014).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 내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긍정적 기대감정이 열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규범과 부정적 기대감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안현균, 최대혁, 2015). 외식서

비사업 종사자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변인들의 의견(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이고 지각된 행동통제도 양호할수록 열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a, 2019). 저비용항공사 선택 활동에 대하여는 부정적 예기정서가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예기정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열망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안상운, 2020). 주얼리 소비자의 태도, 긍정적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 주관적 규범은 열망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나 지각된 행동통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김다니엘, 2021).

연구 분야와 목적에 따라 일부 선행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상기 5가지 선행변수들이 열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직장에 근무함과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는 Hybrid 창업에서 직장인들의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는 Hybrid 창업열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3 (H13)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는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H14)	Hybrid 창업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H15)	Hybrid 창업과 관련한 긍정적 기대감정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H16)	Hybrid 창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대감정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H17)	Hybrid 창업과 관련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예비창업보증과 창업열망, 창업의도 간의 관계

예비창업보증이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으나, 예비창업보증이 정부지원의 한 종류임을 감안하여 정부지원이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커피전문점 창업에 있어 창업지원서비스는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지은, 전병길, 2015). 정부의 금융지원제도와 기술지원제도는 문화컨텐츠 전공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지원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오종열, 2017). 호텔식당 상사지원이 부하직원의 직무열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호텔, 여행사, 항공사 등 환대기업에 있어서도 조직지원원은 점점종사원의 열정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재수, 조환기, 조선배, 2017; 조선배, 2020; 서경도, 2021)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감안시 직장인들은 창업을 함에 있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자금 이외에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창업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신용보증기관들이 Hybrid 창업자를 위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지원된다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8 (H18)	Hybrid 창업과 관련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9 (H19)	Hybrid 창업과 관련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창업열망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

가상 커뮤니티에서는 행동열망이 기여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용품 재활용 참여에 대한 열망은 재활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arrus, Passafaro & Bonnes, 2008; Tsai & Bagozzi, 2014). 외식전문점 이용고객의 열망은 재이용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지의 증강현실 원격실재감에 대한 열망이 추천의도와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보순, 박기홍, 2019; 김진희, 전유정, 2021)

따라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창업의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창업열망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Hybrid 창업에서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은 Hybrid 창업의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0 (H20)	Hybrid 창업과 관련한 Hybrid 창업열망은 Hybrid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변수의 개요

본 연구와 관련된 잠재변수들은 컨설턴트 역량, 컨설턴트 신뢰,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7가지 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Hybrid 창업열망, Hybrid 창업의도),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잠재변수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한 측정항목들 중 통계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측정항목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Hybrid 창업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2) 컨설턴트 역량

선행연구에서 컨설턴트 역량은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의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연구자들은 주로 공통역량은 컨설턴트의 고객지향성,

성취지향성, 목표달성 자신감 등으로, 직무역량은 컨설턴트의 전문지식, 사고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으로, 관리역량은 컨설턴트의 팀워크 능력, 코칭 및 임파워먼트 능력, 관계구축 능력, 리더십 역량 등으로 정의한다(Phillips, 2006; Boyatzis & Ratti, 2009; 배용섭, 2013; 김문준 2015; 곽재민, 2017; 김용호, 2018; 이경식, 2018; 신재훈, 2019; 강성천, 2020; 김영기, 2021; 임성수, 2021).

상기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의 정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측정변수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 관련 컨설턴트 역량을 [표 3-1]과 같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에 대한 컨설팅에 맞는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으로 정의하여 해당 잠재변수를 측정하였다.

[표 3-1] 컨설턴트 역량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컨설턴트 역량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의 공통역량(직장인의 요구 수용 및 충족을 위한 노력, Hybrid 창업컨설팅 의지력 및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 Hybrid 창업컨설팅에 대한 폭넓은 지식 보유), 직무역량(Hybrid 창업컨설팅 관련 방법론 및 전문지식 보유, Hybrid 창업컨설팅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능력 및 대안제시 능력, Hybrid 창업정보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및 전략적 사고의 능력), 관리역량(Hybrid 창업컨설팅 프로젝트의 관리능력, 직장인과의 관계구축 능력, 직장인에 대한 코칭 및 임파워먼트 능력 등)으로 정의	Phillips(2006), Boyatzis & Ratti(2009), 배용섭(2013), 김문준(2015), 곽재민(2017), 김용호(2018), 이경식(2018), 신재훈(2019), 강성천(2020), 김영기(2021), 임성수(2021)

3) 컨설턴트 신뢰

컨설턴트 신뢰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에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2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인지적 신뢰는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헌신성,

충분한 경력, 믿음성과 신뢰성 등으로, 정서적 신뢰는 컨설턴트의 진실성, 진심을 다한 조언과 경청, 컨설팅 의뢰자의 자유로운 교류와 공유 등으로 정의한다(Johnson & Grayson, 2005; 박준기, 조철현, 김한별, 이정우, 2013; 안필용, 2014; Chai et al., 2015; 양혜선, 2016; 한창수, 2019; 곽동신, 2020).

컨설턴트 역량과 마찬가지로, 컨설턴트 신뢰에 대한 정의를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의 정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인 측정변수들을 중심으로 컨설턴트 신뢰를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에 대한 컨설팅에 맞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표 3-2]와 같이 정의하여 해당 잠재변수를 측정하였다.

[표 3-2] 컨설턴트 신뢰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컨설턴트 신뢰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의 인지적 신뢰 (컨설턴트의 전문능력과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믿음, Hybrid 창업 관련 능력과 직무에 대한 컨설턴트의 충분한 경력 보유, 직장인의 Hybrid 창업시 경솔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정서적 신뢰(직장인과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적인 노력, Hybrid 창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진심을 다한 조언, 직장인과 자유로운 아이디어, 감정, 요구를 교류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 등)로 정의	Johnson & Grayson(2005), 박준기 외 (2013), 안필용(2014), Chai et al. (2015), 양혜선(2016), 한창수(2019), 곽동신(2020)

4)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변수들

본 연구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변수들은 Hybrid 창업과 관련된 것으로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창업열망, 창업의도 등이 대표적인데,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연구 분야 및 연구목적에 맞게 확장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Perugini & Bagozzi, 2001; Liñán & Chen, 2009; 송학준, 이충기, 2010; 박희량, 2011;

Moriano et al., 2012 외).

창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창업태도는 창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유익성, 가치성, 현명성 등으로, 주관적 규범은 창업하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찬성, 지지, 이해, 동의 등으로, 긍정적 기대감정은 창업시 신명남, 기쁨, 만족, 행복 등으로, 부정적 기대감정은 창업을 하지 않음에 따른 화남, 실망, 걱정, 슬픔 등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에 대한 본인 의지,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등으로, 창업열망은 향후 창업에 대한 열정, 희망, 경험희망 등으로, 마지막 창업의도는 향후 창업계획, 지속적인 창업의도, 타인에게 추천의도, 투자의도 등이 대표적이다(이창수, 2016; 고봉호, 2018; 김진희b, 2019; 권영순, 2020)

상기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창업열망, 창업의도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내 변수들을 [표 3-3]과 같이 정의하여 해당 잠재변수를 측정하였다.

[표 3-3]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내 잠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창업태도	직장인이 Hybrid 창업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 직장인인 본인에게 유용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현명하다고, 매력적이라고, 필요하다고, 도전적이라고 느끼는지 등으로 정의	Perugini & Bagozzi(2001), Liñán & Chen (2009),
주관적 규범	직장인이 Hybrid 창업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주변 집단(가족, 친구, 동료 등)이 갖는 기준으로서, 주변 집단이 찬성하는지, 지지하는지, 이해하는지, 동의하는지, 추천하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등으로 정의	송학준, 이충기 (2010), 박희량(2011), Moriano et al. (2012), Tsai & Bagozzi (2014)
긍정적 기대감정	직장인이 Hybrid 창업함에 따른 긍정적 기대감정으로서, 직장인인 본인이 기뻐하는지, 만족하는지, 흥분되는지, 행복한지, 자랑스러운지, 자신감으로 넘치는지 등으로 정의	(이하 계속)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부정적 기대감정	직장인이 Hybrid 창업하지 못함에 따른 부정적 기대감정으로서, 직장인인 본인이 걱정되는지, 실망하는지, 우울한지, 화가 나는지, 부끄러운지, 슬플 것인지 등으로 정의	고재운 외 (2014), 유근준(2014), 양은주, 조민호(2015), 후츠(2016), 이창수(2016), 장몽교, 이승신, 류미현(2017), 최지미(2017), 서해란(2017), 최서연(2017), 양승탁 외(2018), 박해소(2019), 김진희a(2019), 박성중(2020), 김기웅(2020), 안상윤(2020), 권영순(2020)
지각된 행동통제	직장인이 Hybrid 창업하는 것에 대한 통제하는 지각으로서, 직장인인 본인이 Hybrid 창업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지,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지,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어렵지 않은지 등으로 정의	
Hybrid 창업열망	직장인이 Hybrid 창업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동기상태로서, 직장인인 본인이 조만간 Hybrid 창업을 희망하는지와 열망하는지, Hybrid 창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고 싶은지, 즐거움을 얻고 싶은지, 성공하고 싶은지, Hybrid 창업의지가 열정적인지 등으로 정의	
Hybrid 창업의도	직장인이 Hybrid 창업을 하려는 심리적 행동 의도로서, 직장인인 본인이 Hybrid 창업계획을 세울 것인지,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할 의도가 있는지, Hybrid 창업을 할 것인지, 퇴직 전 Hybrid 창업을 시도할 것인지, Hybrid 창업을 주변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것인지, Hybrid 창업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등으로 정의	

5) Hybrid 예비창업보증

정부지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창업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창원지원금, 신용보증기관의 창업보증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저금리 정책자금 등 금전적 지원은 물론, 인프라 지원, 전문 인력 또는 경영컨설팅 지원, 진단 프로

그랜 또는 경영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비금전적 지원으로 정의한다(김정곤, 2017; 오종열, 2017; 황규삼, 2017; Hoque, 2018; 안희수, 양동우, 2019; 기홍석, 2020). 정부지원이라는 변수를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원지원 정책 등이 창업자에게 적절한지 또는 도움이 되는지 등으로 조작적 정의하기도 한다(길형철, 2019; 주영석, 이동희, 2019; 강병승, 2020; 김정래, 2020).

상기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창업 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정의,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관련 운용기준 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Hybrid 예비창업보증을 [표 3-4]와 같이 정의하여 해당 잠재변수를 측정하였다.

[표 3-4]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Hybrid 예비창업 보증	직장인이 Hybrid 창업시 Hybrid 창업특성에 적합한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시 유용성으로서, Hybrid 창업을 위한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 관련 정부의 중요한 지원정책인지, Hybrid 창업결정에 도움이 되는지, 예비창업보증규모가 Hybrid 창업을 위한 충분한 규모인지, 예비창업보증 제공시 Hybrid 창업 관련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한지, Hybrid 창업시 예비창업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인지, 다른 Hybrid 창업자에게 예비창업보증을 적극 추천할 것인지 등으로 정의	김정곤(2017), 오종열(2017), 황규삼(2017), Hoque(2018), 길형철(2019), 안희수, 양동우(2019), 주영석, 이동희(2019), 강병승(2020), 기홍석(2020), 김정래(2020)

제 4 절 조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 수집

본 연구는 현 직장에서 급여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Hybrid 창업(Hybrid Start-up)에 대한 행동의도를 파악하고자 국내 급여생활자인 직장인들 중 연령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내 직장의 정년이 대부분 만 60세인 점을 감안하여 직장인들 중 60대는 설문대상자(표본추출)에서 제외하였다.

Hybrid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가 없어 Hybrid 창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문에 응답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언급하여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구글 설문지(온라인)를 통해 38부(유효표본)를 수집한 후 설문지에 대한 이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였다. 본격적인 설문조사는 설문진행 및 표본추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리서치기관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코스닥 상장업체)에 위탁하였다.

특히, 표본추출은 [표 3-5]의 2019년 지역별/연령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등을 감안한 확률표본추출(비례층화추출)을 이용하였으며, 국내 지역별 분포비율을 감안한 표본 1,000개(목표치)를 리서치기관에 요청하였다.

[표 3-5] 2019년 지역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중

구 분		빈도수		백분율(%)
		모집단(천명)	표본(명)	
시	서울특별시	5,227	230	23.0
	부산광역시	1,465	64	6.4
	대구광역시	968	43	4.3
	인천광역시	1,093	48	4.8
	광주광역시	632	28	2.8

구 분		빈도수		백분율(%)
		모집단(천명)	표본(명)	
시	대전광역시	633	28	2.8
	울산광역시	533	23	2.3
	세종특별자치시	125	5	0.5
도	경기도	5,303	233	23.3
	강원도	670	29	2.9
	충청북도	742	33	3.3
	충청남도	974	43	4.3
	전라북도	720	32	3.2
	전라남도	774	34	3.4
	경상북도	1,150	51	5.1
	경상남도	1,428	63	6.3
	제주특별자치도	286	13	1.3
합 계		22,723	1,000	100.0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9a)

리서치기관을 통한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리서치기관을 통해 수집된 유효표본 1,090부와 파일럿 테스트에서 취합한 유효표본 38부를 포함하여 유효표본 총 1,128부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 관련 표본수집 설계는 다음의 [표 3-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6] 표본수집 설계의 내용

구 분	내 용
연구대상	국내 급여성생활자인 직장인들 중 20대~50대 남녀
표본추출방법	확률표본추출(비례층화추출), 비확률표본추출(판단표본추출)
조사방법	외부리서치기관 등을 통한 설문조사(온라인)
유효표본	1,128부
조사기간	2021년 6월 7일 ~ 2021년 6월 16일(10일간)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의 설문지는 앞서 언급하였던 Hybrid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설문조사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맨 처음에 제시하여 설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사전확인’을 통해 설문응답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직장인)인 경우에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여 표본의 오류(비직장인)를 사전에 차단하였고, ‘유의사항’으로 설문응답자가 다니는 직장에서 겸직금지가 없어 Hybrid 창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응답하도록 안내하여 직장에 겸직금지가 있는 설문응답자가 편견(겸직금지로 Hybrid 창업이 불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항목들의 경우에는 Liñán과 Chen(2009), 송학준 외(2010), Moriano et al.(2012), 박준기 외(2013), 오종열(2017), 강성천(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측정변수들에 대하여 ‘제3장’의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Hybrid 창업에 적합하게 각색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관련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Hybrid 창업열망, Hybrid 창업의도에 대하여 각각 6개 설문항목, 컨설턴트 역량에 대하여 9개 설문항목, 컨설턴트 신뢰에 대하여 6개 설문항목, Hybrid 예비창업보증에 대하여 6개 설문항목을 설계하였으며, 각 설문항목에 대한 측정방법은 등간척도인 Likert 5점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를 적용하였다.

설문지의 마지막에는 성별, 연령대, 학력, 기장의 규모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16개 설문항목(명목척도)을 통해 남녀 비율, 연령대 비율, 고용형태 비율, 직장 규모 비율,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겸직금지 비율, 퇴직 전 Hybrid 창업의사 비율, Hybrid 창업유형(개인기업, 법인기업), Hybrid 창업컨설팅 의향 비율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관련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 3-7]와 같다.

[표 3-7] 설문지의 구성

구 분			설문내용	문 항 수	측정 방법	출처
사전확인 (설문대상자 확인)			귀하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십니까?	1	명목 척도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MGB)	창 업 태 도	1-1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유용한 행동이다	6	Likert 5점 척도	Perugini & Bagozzi (2001), Liñán & Chen (2009), 송학준, 이충기 (2010), 박희량 (2011), Moriano et al. (2012), Tsai & Bagozzi (2014), 고재윤 외 (2014), 유근준 (2014), 양은주, 조민호 (2015), 후츠 (2016), 이창수 (2016), 장몽교 외 (2017), 최지미 (2017) 外
		1-2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행동이다			
		1-3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1-4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매력적인 행동이다			
		1-5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행동이다			
		1-6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도전적인 행동이다			
	주 관 적 규 범	2-1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6		
		2-2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2-3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2-4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2-5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2-6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이다			

구 분			설문내용	문 항 수	측정 방법	출처
목 표 지 향 적 행 동 모 델 (M G B)	긍 정 적 기 대 감 정	3-1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6	Likert 5점 척도	Perugini & Bagozzi (2001), Liñán & Chen (2009), 송학준, 이충기 (2010), 박희량 (2011), Moriano et al. (2012), Tsai & Bagozzi (2014), 고재윤 외 (2014), 유근준 (2014), 양은주, 조민호 (2015), 후츠 (2016), 이창수 (2016), 장몽교 외 (2017), 최지미 (2017) 外
		3-2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3-3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흥분될 것이다			
		3-4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3-5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자랑 스러울 것이다			
		3-6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자신감 이 넘칠 것이다			
	부 정 적 기 대 감 정	4-1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걱정될 것이다	6		
		4-2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4-3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우울할 것이다			
		4-4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4-5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끄러울 것이다			
		4-6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			
	지 각 된 행 동 통 제	5-1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내 의지 에 달려 있다	6		
		5-2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다			
		5-3	나는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5-4	나는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구 분			설문내용	문 항 수	측정 방법	출처
목 표 지 향 적 행 동 모 델 (M G B)		5-5	나는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Likert 5점 척도	Perugini & Bagozzi (2001), Liñán & Chen (2009), 송학준, 이충기 (2010), 박희량 (2011), Moriano et al. (2012), Tsai & Bagozzi (2014), 고재윤 외 (2014), 유근준 (2014), 양은주, 조민호 (2015), 후츠 (2016), 이창수 (2016), 장몽교 외 (2017) 外
		5-6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H y b r i d 창 업 열 망	6-1	나는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하기를 희망한다	6		
		6-2	나는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하기를 열망한다			
		6-3	나는 Hybrid 창업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고 싶다			
		6-4	나는 Hybrid 창업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싶다			
		6-5	나는 Hybrid 창업을 통하여 성공하고 싶다			
		6-6	Hybrid 창업을 하려는 나의 의지는 열정적이다			
	H y b r i d 창 업 의 도	7-1	나는 앞으로 Hybrid 창업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6		
		7-2	나는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할 의도가 있다			
		7-3	나는 향후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Hybrid 창업을 할 것이다			
		7-4	나는 퇴직하기 전에 Hybrid 창업을 시도할 것이다			
		7-5	나는 Hybrid 창업을 주변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것이다			
		7-6	나는 Hybrid 창업 준비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컨설 턴트 역량	8-1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관련 직장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9		Phillips (2006), Boyatzis & Ratti (2009) 外	
	8-2	컨설턴트는 직장인의 Hybrid 창업을 컨설팅하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구 분		설문내용	문 항 수	측정 방법	출처
컨설 턴트 역량	8-3	컨설턴트는 전문가로서 Hybrid 창업 컨설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9	Likert 5점 척도	Phillips (2006), Boyatzis & Ratti (2009), 배용섭 (2013), 김문준 (2015), 광재민 (2017), 김용호 (2018), 이경식 (2018), 신재훈 (2019), 강성천 (2020), 김영기 (2021), 임성수 (2021)
	8-4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5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컨설팅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능력 및 대안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6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거나 핵심적인 문제파악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7	컨설턴트는 주어진 기간 내에 Hybrid 창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8-8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관련 지원, 정보 획득,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직장인과의 관계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8-9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컨설팅 성과를 위해 직장인에 대한 코칭과 임파워먼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컨설 턴트 신뢰	9-1	Hybrid 창업 컨설팅에 대해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능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6		Johnson & Grayson (2005), 박준기 외 (2013), 안필용 (2014), Chai et al.(2015), 양혜선 (2016) 外
	9-2	컨설턴트의 Hybrid 창업 관련 능력과 직무에 대해 의심이 없을 정도로 컨설턴트의 경력은 충분해야 한다			
	9-3	컨설턴트는 경솔한 실수로 인해 직장인의 Hybrid 창업이 어렵게 되지 않을 것이라 신뢰될 수 있어야 한다			
	9-4	컨설턴트는 직장인과 서로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감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구 분		설문내용	문 항 수	측정 방법	출처
컨설 턴트 신뢰	9-5	컨설턴트는 직장인이 Hybrid 창업 관련 문제를 의논하기 원한다면 진심으로 다하여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	6	Likert 5점 척도	Johnson & Grayson (2005) 外
	9-6	컨설턴트는 직장인과 자유롭게 서로의 아이디어, 감정, 요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Hybrid 예비창업 보증	10-1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6		Kim Jeong-kon (2017), Oh Jong-yeol (2017), Hwang Gyu-sam (2017), Hoque (2018), Gil Hyeong-cheol (2019), An Hee-soo, Yang Dong-woo (2019), Ju Young-seok, Lee Dong-hee (2019) 外
	10-2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3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규모(최대 10억원)는 Hybrid 창업을 위해 충분한 규모이다			
	10-4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제공 된다면 Hybrid 창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10-5	나는 Hybrid 창업시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10-6	나는 Hybrid 창업을 하려는 직장인들 에게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장의 구분(규모), 현 직장의 소재지, 고용된 직업분류, 근무연수(직장 총경력),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고용형태, 겸직금지 여부, 퇴직 전 Hybrid 창업계획, 창업시 기업유형, Hybrid 창업 컨설팅 의향 등	16	명목 서열 등간 비율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취합된 설문자료의 분석은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 중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 ML)를 이용하여 측정변수간의 공분산을 추정하는 방법인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Covariance-Based SEM : CB-SEM)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제곱(Least Squares : LS)을 이용하여 추정의 정확성보다는 설명되지 않은 예측오차(잔차분산)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s : PLS)방법인 PLS 기반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Partial Least Squares SEM : PLS-SEM)을 적용하였다(신건권, 2018). 본 연구에서 CB-SEM 대신 PLS-SEM을 적용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Hybrid 창업에 있어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는 물론,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에서 창업열망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에 대하여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턴트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의 목적이 강하여 CB-SEM보다 PLS-SEM이 적합하다.

둘째,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턴트 신뢰 관련 측정변수들 모두의 첨도(kurtosis)가 1.131~2.19, Hybrid 예비창업보증 관련 측정변수들 중 일부의 첨도가 1.17~1.526을 보여서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다소 비정규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어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는 비모수적인 방법인 PLS-SEM이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표본수는 1,128개로서 표본크기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본 연구의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가설은 각각 10개, 63개, 20개로서 다소 많은 잠재변수, 측정변수, 가설들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모델을 보이고 있어 모델이 복잡하여도 모델의 식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PLS-SEM이 본 연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는 PLS-SEM 통계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SmartPLS 3.0(Ver. 3.3.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진행한 통계적 분석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유의수준은 검증통계량 t값을 이용하여 $p < .05$, $p < .01$, $p < .001$ 의 3가지 기준을 통해 검증).

첫째, 표본 1,128개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을 파악하고자 SPSS(Ver. 22.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을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한 PLS-SEM을 수행함에 있어 표본크기에 의한 식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표본크기는 G*Power 프로그램(Ver. 3.1.9.2)에 의해 산출된 최소표본크기를 준용하였다(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Gentle, Spiller & Noci, 2011). 상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델(측정모델과 구조모델)에서 특정한 잠재변수로 향하는 화살표 중 최대 수(독립변수의 수)는 8개(특정 잠재변수 : Hybrid 창업열망)로 파악되었고, Cohen(1992)이 제안한 유의수준 0.05, 통계적 검증력 80%, 중간효과크기 0.15에 대한 최소표본크기는 109개로 산출됨에 따라 본 연구의 표본 1,128개는 최소표본크기를 충족하고 있어 표본크기에 따른 식별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Cohen, 1992; 신건권, 2018).

둘째, 측정변수들의 분포로 결측치, 정규성 등을 확인하고자 SmartPLS 3.0에서 산출되는 기술통계분석을 파악하였다.

셋째, 본격적인 PLS-SEM 분석을 위해 측정모델(outer model)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측정모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델(inner model) 평가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의 모델은 잠재변수가 원인이 되고 측정변수들이 결과가 되는 반영적 측정모델로서 반영적 측정모델 평가기준인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반영적 측정모델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다중공선성, 결정계수(R^2), 효과크기(f^2), 예측적 적합성(Q^2),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이라는 구조모델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분석한 후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다집단 분석(Multi Group Analysis : MGA)을 통해 조절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SmartPLS 3.0의 PLS-SEM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표 3-8]과 같다.

[표 3-8] 자료의 분석방법

분석내용		분석기법
표본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측정변수들의 분포	기술통계분석
측정모델의 평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구조모델의 평가		다중공선성, 결정계수, 효과크기, 예측적 적합성
가설검증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매개효과/조절효과		특정간접효과 등의 유의성, 다중집단분석(MGA)

〈출처〉 신건권(2018)

제 5 절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 대비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연구의 타당성과 가치가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Hybrid 창업현상 연구, Hybrid 기업가정신 연구, 직장 내 직무만족과 Hybrid 창업의도 간의 관계 등을 연구하였으나, 기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에서 행동의도에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여 Hybrid 창업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멘토의 역량과 신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가 Hybrid 창업 관련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둘째, 행동모델에 있어 직장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업(專業)창업하는 경우에 창업의도를 연구하거나 행동모델 중 창업의도만을 가지고 직장유지와 동시에 Hybrid 창업하는 경우를 연구한 사례는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이라는 행동모델 내 잠재변수들(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창업열망, 창업의도)을 고려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유지와 동시에 Hybrid 창업을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셋째, 연구방법 중 표본 수집에서 설문조사나 사례분석을 통해 Hybrid 창업을 다루지만, 선행연구들에서 대부분의 표본추출은 조사자가 접근하기 쉬운 연구대상자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편의표본추출 또는 조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표본의 선택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표본을 추출하는 판단표본추출이라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하고자 국내 17개 행정구역(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9개 도)별 사업체 종사자수와 연령별 취업자수 비중을 감안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비례층화추출이라는 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남녀 비율, 직장 내 겸직금지 비율 등을 동등하게 설정하는 표본의 선택기준을 적용한 판단표본추출이라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을 결합하였다. 이를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위해 직접 수집한 표본을 제외한 약 96.6%의 표본을 외부리서치기관(코스닥 상장업체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수집하였다.

넷째, 연구방법 중 잠재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연구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이라는 행동모델 내 잠재변수들(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창업열망, 창업의도)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동 모델에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이라는 기존 변수를 추가하고 창업 전에 Hybrid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여 추가하였다.

다섯째, 행동모델에서 금융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인프라지원, 창업보증 등 다양한 정부지원 관련 변수와 창업의도 간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중 하나로 도입할 수 있는 Hybrid 예비창업보증 이외에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라는 독립변수가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여섯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이라는 행동모델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SPSS를 통한 회귀분석, AMOS라는 공분산 기반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CB-SEM) 프로그램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SmartPLS라는 PLS 기반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PLS-SEM) 프로그램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여 요약하면 [표 3-9]와 같다

[표 3-9] 본 연구의 차별성 정리

구 분		선행연구	본 연구	차별성 여부
연구주제		▷Hybrid 창업의도에서 행동 모델을 미활용 ▷멘토 역량과 신뢰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직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창업하는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모델로 연구 ▷컨설턴트 역량과 신뢰가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연구대상과 범위		▷전업(專業)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직장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	▷직장 유지와 동시에 창업하고자 하는 Hybrid 창업의도를 가진 직장인을 대상	○
연구 방법	자료 수집	▷설문조사 또는 사례분석 ▷비확률표본추출(편의표본추출, 판단표본추출)	▷설문조사(외부리서치기관) ▷확률표본추출(지역/연령별 취업자수 비중을 감안한 비례층화추출), 비확률표본추출(판단표본추출)	△
	잠재 변수	▷행동모델 관련 잠재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창업열망, 창업의도)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창업 後 지원하는 창업보증	▷행동모델 관련 잠재변수(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Hybrid 창업열망, Hybrid 창업의도)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창업 前 지원하는 Hybrid 예비창업보증	△
	영향 관계	▷행동모델에서 정부지원과 창업의도 간 관계를 분석	▷행동모델에서 Hybrid 예비창업보증(정부지원)은 물론, 컨설턴트의 역량/신뢰와 창업열망/창업의도 간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	○
	분석 방법	▷구조방정식모형(AMOS) 또는 회귀분석(SPSS)	▷구조방정식모형(SmartPLS)	△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총 1,128개를 대상으로 파악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① 성별, ② 연령, ③ 학력, ④ 직장규모, ⑤ 직장소재지, ⑥ 직업분류, ⑦ 근무연수, ⑧ 월 평균소득, ⑨ 고용형태, ⑩ 겸직금지, ⑪ Hybrid 창업계획, ⑫ 창업시 기업유형, ⑬ Hybrid 창업컨설팅 의향 등이 있으며,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0.4%, 49.6%로 2019년 사업체 종사자수 남녀비율(남성 56.6%, 여성 43.4%) 대비 여성의 응답자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연령의 경우 20대 14.9%, 30대 25.7%, 40대 31.8%, 50대 27.6%로 2015년 20대~50대 연령별 취업인구(통계주기 5년) 중 각 연령대 비율(20대 15.4%, 30대 26.4%, 40대 31.3%, 50대 26.9%)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통계청, 2015/2019a).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4%, 대학교 재학 1.8%, 대학원 졸업 70.2%, 대학원 졸업(수료) 14.6%로, 직장규모는 정부/공기업/공공기관 22.4%, 대기업 10.6%, 중견기업 15.6%, 중소기업 51.4%로 나타났다.

직장소재지는 서울시 27.4%, 경기도 20.0%, 경상남도 6.3%, 부산시 6.2%, 경상북도 4.9%, 대구시 4.4%, 인천시/충청남도 각 4.3% 등으로 2019년 행정구역별 사업체 종사자수 비율(서울시 23.0%, 경기도 23.3%, 부산시 6.4%, 경상남도 6.3%, 경상북도 5.1%, 인천시 4.8%, 대구시/충청남도 각 4.3% 등)과 비교시 서울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9a).

직업분류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4.1%,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3.6%,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0.6%, 설치/정비/생산직 8.9%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10년 이상~20년 미만 30.8%, 5년 이상~10년 미만 21.5%, 1년 이상~5년 미만 21.0%, 20년 이상~30년 미만 18.5%, 1년 미만 4.8%, 30년 이상 3.4%로 나타났고, 가구 당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9%,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0.6%,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6.5%,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1%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 89.0%, 비정규직 11.0%로 정규직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직장 내 겸직금지 여부에서는 겸직금지 실시 51.3%, 겸직금지 미실시 48.7%로 나타났다.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Hybrid 창업계획 있음’ 49.8%, ‘Hybrid 창업계획 없음’ 50.2%로 나타났다. 특히, Hybrid 창업계획이 있는 경우 Hybrid 창업 업종이 과거 또는 현재 업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예’ 32.7%, ‘아니오’ 67.3%를 보이고 있어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새로운 분야로 Hybrid 창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ybrid 창업계획이 없는 경우의 주된 사유(중복 선택)로는 Hybrid 창업계획이 없는 자 중 창업실패 가능성 60.1%, 창업아이템 부재 51.1%, 금전적 여유(높은 급여, 노후재테크 등) 29.7%, 직장의 안정적인 정년 17.7%, 겸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13.3%, 가사 문제(자녀돌봄, 자녀교육 등) 7.4% 등으로 나타나서 창업실패 가능성과 창업아이템 부재가 Hybrid 창업을 저해하는 주요한 사유임을 알 수가 있다.

Hybrid 창업을 한다면 선호하는 기업유형으로 조사응답자의 73.1%가 개인기업 유형을 선택하였고 법인기업 선택은 26.9%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조사응답자의 71.2%가 Hybrid 창업컨설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야(중복 선택)로는 창업아이템 선정 69.7%, 사업타당성 분석 55.4%,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52.9%, 마케팅/영업관리 47.3%, 회사설립절차 38.1%, 생산(매장)관리 25.3% 등으로 나타나서 Hybrid 관련 창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본 1,128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총 표본수		1,128	100.0
성별	남성	569	50.4
	여성	559	49.6
연령	만 20대	168	14.9
	만 30대	290	25.7
	만 40대	359	31.8
	만 50대	311	27.6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1	13.4
	대학교 재학 중	20	1.8
	대학교 졸업	792	70.2
	대학원 졸업(수료)	165	14.6
직장 규모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252	22.4
	대기업	120	10.6
	중견기업	176	15.6
	중소기업	580	51.4
직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309	27.4
	부산광역시	70	6.2
	대구광역시	50	4.4
	인천광역시	49	4.3
	광주광역시	31	2.8
	대전광역시	30	2.7
	울산광역시	27	2.4
	세종특별자치시	5	0.4
	경기도	226	20.0
	강원도	37	3.3
	충청북도	39	3.5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직장 소재지	충청남도	49	4.3
	전라북도	37	3.3
	전라남도	29	2.6
	경상북도	55	4.9
	경상남도	71	6.3
	제주특별자치도	14	1.2
직업 분류 (한국고용 직업분류)	경영/사무/금융/보험직	497	44.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20	10.6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53	13.6
	보건의료직	86	7.6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25	2.2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9	2.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1	7.2
	건설/채굴직	35	3.1
	설치/정비/생산직	101	8.9
	농림어업직	1	0.1
근무연수 (직장 총경력)	1년 미만	54	4.8
	1년 이상~5년 미만	237	21.0
	5년 이상~10년 미만	243	21.5
	10년 이상~20년 미만	347	30.8
	20년 이상~30년 미만	209	18.5
	30년 이상	38	3.4
가구 당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62	5.5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49	30.9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45	30.6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186	16.5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14	10.1
	1,000만원 이상	72	6.4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고용 형태	정규직	1,004	89.0	
	비정규직	124	11.0	
직장 내 겸직금지	예	579	51.3	
	아니오	549	48.7	
향후 퇴직 전 ^{주)}		예	562	49.8
Hybrid 창업계획		아니오	566	50.2
예 (562)	과거/현재 업무와 업종 일치	예	184	32.7
		아니오	378	67.3
아 니 오 (566)	Hybrid 창업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 (중복 선택)	금전적 여유(높은 급여, 노후재테크 등)	168	29.7
		직장의 안정적인 정년	100	17.7
		창업실패 가능성	340	60.1
		가사문제(자녀돌봄, 자녀교육 등)	42	7.4
		창업아이템 부재	289	51.1
		겸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75	13.3
		기타	16	2.8
Hybrid 창업시 기업유형		개인기업	825	73.1
		법인기업	325	26.9
Hybrid 창업 컨설팅 의향		예	803	71.2
		아니오	325	28.8
예 (803)	Hybrid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중복 선택)	창업아이템 선정	560	69.7
		사업타당성 분석	445	55.4
		회사설립절차	306	38.1
		생산(매장)관리	203	25.3
		인사관리	119	14.8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425	52.9
		마케팅/영업관리	380	47.3
		기타	2	0.2

주)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면’이라는 전제

2) 측정변수들의 분포

측정변수들에 대한 SmartPLS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기초통계량은 [표 4-2]와 같이 나타났으며, 기초통계량 중 첨도와 왜도를 통해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측정변수들의 첨도와 왜도를 보면, 대부분 ± 2 이내로서 정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며, 컨설턴트역량1과 컨설턴트역량2의 첨도가 각각 2.166, 2.190으로 2를 다소 초과하고 있으나, 2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데이터의 정규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표본의 기초통계분석(정규성)

구 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첨도	왜도
창업태도1	3.697	1	5	0.830	0.626	-0.812
창업태도2	3.813	1	5	0.791	0.883	-0.839
창업태도3	3.692	1	5	0.863	0.235	-0.672
창업태도4	3.793	1	5	0.845	0.870	-0.919
창업태도5	3.623	1	5	0.902	-0.029	-0.575
창업태도6	4.099	1	5	0.802	1.751	-1.049
주관적규범1	3.280	1	5	0.920	-0.689	-0.412
주관적규범2	3.357	1	5	0.909	-0.541	-0.524
주관적규범3	3.484	1	5	0.877	-0.135	-0.681
주관적규범4	3.411	1	5	0.924	-0.401	-0.532
주관적규범5	3.173	1	5	0.950	-0.834	-0.202
주관적규범6	3.378	1	5	0.935	-0.594	-0.432
긍정적기대감정1	3.690	1	5	0.833	0.375	-0.683
긍정적기대감정2	3.652	1	5	0.839	0.223	-0.681
긍정적기대감정3	3.661	1	5	0.886	0.450	-0.787
긍정적기대감정4	3.529	1	5	0.859	0.055	-0.544
긍정적기대감정5	3.757	1	5	0.843	0.584	-0.708

구 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침도	왜도
긍정적기대감정6	3.644	1	5	0.868	0.238	-0.633
부정적기대감정1	2.746	1	5	0.963	-0.864	0.229
부정적기대감정2	2.668	1	5	0.967	-0.840	0.267
부정적기대감정3	2.441	1	5	0.988	-0.552	0.461
부정적기대감정4	2.287	1	5	0.988	-0.356	0.577
부정적기대감정5	2.154	1	5	0.972	-0.117	0.697
부정적기대감정6	2.355	1	5	1.013	-0.571	0.519
지각된행동통제1	3.922	1	5	0.776	1.755	-1.061
지각된행동통제2	3.222	1	5	0.992	-0.960	-0.150
지각된행동통제3	3.032	1	5	0.974	-0.959	-0.093
지각된행동통제4	2.963	1	5	0.974	-0.966	-0.116
지각된행동통제5	2.698	1	5	1.011	-0.901	0.157
지각된행동통제6	2.631	1	5	0.955	-0.723	0.298
창업열망1	3.348	1	5	0.983	-0.597	-0.521
창업열망2	3.237	1	5	1.020	-0.813	-0.366
창업열망3	3.594	1	5	0.913	0.377	-0.860
창업열망4	3.574	1	5	0.928	0.224	-0.818
창업열망5	3.845	1	5	0.963	0.511	-0.897
창업열망6	3.305	1	5	0.965	-0.469	-0.434
창업의도1	3.327	1	5	0.941	-0.572	-0.565
창업의도2	3.312	1	5	1.004	-0.653	-0.503
창업의도3	3.674	1	5	0.912	0.560	-0.919
창업의도4	3.408	1	5	0.992	-0.481	-0.548
창업의도5	3.157	1	5	0.945	-0.589	-0.235
창업의도6	3.337	1	5	0.937	-0.374	-0.645
컨설턴트역량1	3.901	1	5	0.720	2.166	-0.976
컨설턴트역량2	3.951	1	5	0.739	2.190	-1.030
컨설턴트역량3	4.155	1	5	0.777	1.447	-0.968

구 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침도	왜도
컨설팅트역량4	4.167	1	5	0.772	1.573	-1.013
컨설팅트역량5	4.140	1	5	0.757	1.504	-0.927
컨설팅트역량6	4.112	1	5	0.756	1.358	-0.904
컨설팅트역량7	4.075	1	5	0.771	1.870	-0.990
컨설팅트역량8	4.013	1	5	0.760	1.132	-0.812
컨설팅트역량9	4.030	1	5	0.775	1.131	-0.820
컨설팅트신뢰1	4.082	1	5	0.722	1.523	-0.805
컨설팅트신뢰2	3.997	1	5	0.756	1.514	-0.870
컨설팅트신뢰3	4.014	1	5	0.735	1.769	-0.880
컨설팅트신뢰4	3.873	1	5	0.742	1.567	-0.901
컨설팅트신뢰5	4.091	1	5	0.706	1.735	-0.813
컨설팅트신뢰6	3.985	1	5	0.736	1.689	-0.885
예비창업보증1	3.823	1	5	0.691	1.526	-0.800
예비창업보증2	3.801	1	5	0.746	1.365	-0.867
예비창업보증3	3.705	1	5	0.804	0.496	-0.688
예비창업보증4	3.770	1	5	0.731	1.263	-0.879
예비창업보증5	3.767	1	5	0.782	1.170	-0.870
예비창업보증6	3.677	1	5	0.811	0.554	-0.703

제 2 절 측정모델의 평가

PLS-SEM에서는 측정모델의 평가를 통해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해야 구조방정식을 통한 구조모델의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은 잠재변수가 원인이 되고 측정변수들이 결과가 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반영적 측정모델에 해당된다. 반영적 측정모델의 평가기준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가 있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의해 신뢰도(reliability),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통해 타당도(validity)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의 순서로 타당도를 파악한 후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

1)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동일한 잠재변수를 서로 다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값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LS-SEM에서 집중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① 외부적재치 적합성(outer loading relevance), ② 측정변수 신뢰도(indicator reliability : 지표 신뢰도), ③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평균분산추출)이 있다(신건권, 2018).

첫째, 외부적재치 적합성(outer loading relevance)이 있는지 검증하는 기준은 개별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외부적재치(outer loading)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측정변수의 외부적재치가 0.7 이상이면 해당 측정변수를 유지하고 0.4 미만이면 제거하며, 0.4~0.7 사이인 경우 해당 측정변수를 제거해도 CR과 AVE가 임계치(각각 0.7과 0.5) 이상으로 유지되면 문제가 없으나 임계치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으면 해당 측정변수를 유지한다(Bagozzi, Yi & Phillips, 1974; Hair, Ringle & Sarstedt, 2011; Hair, Hult, Ringle & Sarstedt, 2014/2017; 신건권, 2018).

둘째, 측정변수 신뢰도(indicator reliability : 지표 신뢰도)는 한 측정변수의 분산 중에서 해당 잠재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며, 표준화된 외부적재치(outer loading)의 제곱값으로 계산되고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Chin, 1998; 신건권, 2018).

셋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 평균분산추출)도 측정변수 신뢰도와 동일하게 해당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들의 분산을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며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타당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서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외부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에 대한 최초의 평가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최초)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0.70	측정변수 신뢰도 >0.50	AVE >0.50
긍정적 기대감정 (PAE)	긍정적기대감정1	0.880	0.774	0.742
	긍정적기대감정2	0.872	0.760	
	긍정적기대감정3	0.843	0.711	
	긍정적기대감정4	0.870	0.757	
	긍정적기대감정5	0.840	0.706	
	긍정적기대감정6	0.861	0.741	
부정적 기대감정 (NAE)	부정적기대감정1	0.853	0.728	0.750
	부정적기대감정2	0.888	0.789	
	부정적기대감정3	0.902	0.814	
	부정적기대감정4	0.878	0.771	
	부정적기대감정5	0.818	0.669	
	부정적기대감정6	0.856	0.733	
예비창업보증 (PSG)	예비창업보증1	0.783	0.613	0.623
	예비창업보증2	0.826	0.682	
	예비창업보증3	0.694	0.482	
	예비창업보증4	0.804	0.646	
	예비창업보증5	0.818	0.669	
	예비창업보증6	0.802	0.643	
주관적 규범 (SN)	주관적규범1	0.904	0.817	0.802
	주관적규범2	0.906	0.821	
	주관적규범3	0.888	0.789	
	주관적규범4	0.911	0.830	
	주관적규범5	0.852	0.726	
	주관적규범6	0.910	0.828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0.70	측정변수 신뢰도 >0.50	AVE >0.50
지각된 행동통제 (PBC)	지각된행동통제1	0.529	0.280	0.534
	지각된행동통제2	0.780	0.608	
	지각된행동통제3	0.831	0.691	
	지각된행동통제4	0.763	0.582	
	지각된행동통제5	0.714	0.510	
	지각된행동통제6	0.732	0.536	
창업열망 (SD)	창업열망1	0.874	0.764	0.740
	창업열망2	0.883	0.780	
	창업열망3	0.867	0.752	
	창업열망4	0.873	0.762	
	창업열망5	0.809	0.654	
	창업열망6	0.853	0.728	
창업의도 (SI)	창업의도1	0.892	0.796	0.760
	창업의도2	0.899	0.808	
	창업의도3	0.837	0.701	
	창업의도4	0.899	0.808	
	창업의도5	0.818	0.669	
	창업의도6	0.883	0.780	
창업태도 (SA)	창업태도1	0.879	0.773	0.715
	창업태도2	0.889	0.790	
	창업태도3	0.874	0.764	
	창업태도4	0.874	0.764	
	창업태도5	0.844	0.712	
	창업태도6	0.697	0.486	
컨설턴트 신뢰 (CT)	컨설턴트신뢰1	0.839	0.704	0.665
	컨설턴트신뢰2	0.815	0.664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0.70	측정변수 신뢰도 >0.50	AVE >0.50
컨설턴트 신뢰 (CT)	컨설턴트신뢰3	0.795	0.632	0.665
	컨설턴트신뢰4	0.749	0.561	
	컨설턴트신뢰5	0.855	0.731	
	컨설턴트신뢰6	0.835	0.697	
컨설턴트 역량 (CC)	컨설턴트역량1	0.800	0.640	0.718
	컨설턴트역량2	0.816	0.666	
	컨설턴트역량3	0.860	0.740	
	컨설턴트역량4	0.863	0.745	
	컨설턴트역량5	0.867	0.752	
	컨설턴트역량6	0.865	0.748	
	컨설턴트역량7	0.862	0.743	
	컨설턴트역량8	0.835	0.697	
	컨설턴트역량9	0.855	0.731	

[표 4-3]에서 예비창업보증3의 외부적재치와 측정변수 신뢰도는 각각 0.694, 0.482로 수용기준인 각각 0.7, 0.5 미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1의 외부적재치와 측정변수 신뢰도도 각각 0.529, 0.280, 창업태도6의 외부적재치와 측정변수 신뢰도도 각각 0.697, 0.486을 보이고 있어 수용기준에 미달하였다.

이에 예비창업보증3, 지각된행동통제1, 창업태도6을 측정변수에 제거한 후 PLS-SEM을 다시 실행하여 남은 측정변수들의 외부적재치, 측정변수 신뢰도, AVE를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예비창업보증3, 지각된행동통제1, 창업태도6을 제외한 남은 측정변수들이 외부적재치와 측정변수 신뢰도의 수용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은 물론, 잠재변수들의 AVE도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서 집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최종)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0.70	측정변수 신뢰도 >0.50	AVE >0.50
긍정적 기대감정 (PAE)	긍정적기대감정1	0.880	0.774	0.742
	긍정적기대감정2	0.872	0.760	
	긍정적기대감정3	0.843	0.711	
	긍정적기대감정4	0.870	0.757	
	긍정적기대감정5	0.840	0.706	
	긍정적기대감정6	0.861	0.741	
부정적 기대감정 (NAE)	부정적기대감정1	0.853	0.728	0.750
	부정적기대감정2	0.888	0.789	
	부정적기대감정3	0.902	0.814	
	부정적기대감정4	0.878	0.771	
	부정적기대감정5	0.818	0.669	
	부정적기대감정6	0.856	0.733	
예비창업보증 (PSG)	예비창업보증1	0.791	0.626	0.663
	예비창업보증2	0.835	0.697	
	예비창업보증4	0.788	0.621	
	예비창업보증5	0.835	0.697	
	예비창업보증6	0.822	0.676	
주관적 규범 (SN)	주관적규범1	0.904	0.817	0.802
	주관적규범2	0.906	0.821	
	주관적규범3	0.888	0.789	
	주관적규범4	0.911	0.830	
	주관적규범5	0.852	0.726	
	주관적규범6	0.910	0.828	
지각된 행동통제 (PBC)	지각된행동통제2	0.744	0.554	0.630
	지각된행동통제3	0.868	0.753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0.70	측정변수 신뢰도 >0.50	AVE >0.50
지각된 행동통제 (PBC)	지각된행동통제4	0.804	0.646	0.630
	지각된행동통제5	0.765	0.585	
	지각된행동통제6	0.783	0.613	
창업열망 (SD)	창업열망1	0.874	0.764	0.740
	창업열망2	0.883	0.780	
	창업열망3	0.867	0.752	
	창업열망4	0.873	0.762	
	창업열망5	0.809	0.654	
	창업열망6	0.853	0.728	
창업의도 (SI)	창업의도1	0.892	0.796	0.760
	창업의도2	0.899	0.808	
	창업의도3	0.837	0.701	
	창업의도4	0.899	0.808	
	창업의도5	0.818	0.669	
	창업의도6	0.883	0.780	
창업태도 (SA)	창업태도1	0.888	0.789	0.775
	창업태도2	0.894	0.799	
	창업태도3	0.888	0.789	
	창업태도4	0.876	0.767	
	창업태도5	0.856	0.733	
컨설턴트 신뢰 (CT)	컨설턴트신뢰1	0.838	0.702	0.665
	컨설턴트신뢰2	0.815	0.664	
	컨설턴트신뢰3	0.794	0.630	
	컨설턴트신뢰4	0.751	0.564	
	컨설턴트신뢰5	0.855	0.731	
	컨설턴트신뢰6	0.835	0.697	

잠재변수	측정변수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0.70	측정변수 신뢰도 >0.50	AVE >0.50
컨설턴트 역량 (CC)	컨설턴트역량1	0.800	0.640	0.718
	컨설턴트역량2	0.816	0.666	
	컨설턴트역량3	0.859	0.738	
	컨설턴트역량4	0.863	0.745	
	컨설턴트역량5	0.867	0.752	
	컨설턴트역량6	0.865	0.748	
	컨설턴트역량7	0.862	0.743	
	컨설턴트역량8	0.835	0.697	
	컨설턴트역량9	0.855	0.731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하나의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들과 잘 구분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LS-SEM에서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① Fornell-Larcker 기준(Fornell-Larcker criterion), ② 교차적재치(cross loading), ③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가 있다(신건권, 2018).

첫째, Fornell-Larcker 기준(Fornell-Larcker criterion)은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과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을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들 중 가장 높은 값보다 크다면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한다(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둘째, 교차적재치(cross loading)는 요인분석 중 하나인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적재치(outer loading)와 교차적재치(cross loading)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잠재변수에 관련된 측정변수들의

외부적재치가 다른 잠재변수들과 관련된 측정변수들의 모든 교차적재치보다 커야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Chin, 1998; 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셋째,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는 앞서 제시된 판별타당도 측정방법들이 일반적인 연구에서 판별타당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PLS-SEM에서 최근 개발된 새로운 판별타당도 평가방법으로 Fornell-Larcker 기준과 교차적재치에 의한 방법보다 우수한 평가기준이라고 한다(신건권, 2018). HTMT는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유형인 H-H 상관관계(heterotrait-heteromethod correlations : 다른 특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상관관계)와 M-H 상관관계(monotrait-heteromethod correlations : 동일 특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상관관계)의 비율로 계산한 값으로 HTMT의 수용기준과 판별타당도의 해석은 다음의 [표 4-5]와 같다(Henseler, Ringle & Sarstedt, 2015; Hair, Sarstedt, Ringle & Gudergan, 2018; 신건권, 2018).

[표 4-5] HTMT의 수용기준과 판별타당도의 해석

구 분	수용기준과 해석	주창자	비고
HTMT _{.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계치 0.85 미만 : 판별타당도 있음 • 임계치 0.85 이상 : 판별타당도 부족 	Clark & Watson (1995), Kline (2011)	가장 보수적인 기준
HTMT _{.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계치 0.90 미만 : 판별타당도 있음 • 임계치 0.90 이상 : 판별타당도 부족 	Gold et al. (2001), Teo et al. (2008)	중간적인 기준
HTMT _{추론} (Bootstrapping 신뢰구간 이용법)	신뢰구간 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판별타당도 있음 • 1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판별타당도 부족 	Shaffer (1995)	가장 자유로운 기준

〈출처〉 신건권(2018)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판별타당도 측정방법을 ① Fornell-Larcker 기준,

② 교차적재치(cross loading), ③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의 순서로 확인하였다. 우선, 각 잠재변수들에 대한 Fornell-Larcker 기준의 평가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1) : Fornell-Larcker 기준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PAE	0.861									
NAE	0.317	0.866								
PSG	0.453	0.111	0.814							
SN	0.635	0.289	0.313	0.895						
PBC	0.455	0.418	0.236	0.449	0.794					
SD	0.783	0.409	0.445	0.581	0.530	0.860				
SI	0.748	0.437	0.437	0.602	0.597	0.886	0.872			
SA	0.791	0.273	0.423	0.605	0.417	0.731	0.713	0.881		
CT	0.381	-0.053	0.637	0.225	0.123	0.322	0.304	0.378	0.815	
CC	0.437	-0.051	0.610	0.244	0.112	0.409	0.387	0.439	0.818	0.847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표 4-6]에서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공근 값(대각선으로 진하게 표시된 값)과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대각선 아래에 있는 값)을 비교하여 보면, 각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값들 중 SI(창업의도)와 SD(창업열망) 간의 상관관계 값인 0.886과 CC(컨설턴트 역량)와 CT(컨설턴트 신뢰) 간의 상관관계 값인 0.818이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공근 값을 초과하므로 Fornell-Larcker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은 부분적인 판별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에 관련된 측정변수들(집중타당도에서 제거된 예비창업보증3, 지각된행동통제1, 창업태도6을 제외)의 교차적재치의 평가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2) : 교차적재치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PAE1	0.880	0.253	0.394	0.581	0.381	0.702	0.678	0.725	0.337	0.383
PAE2	0.872	0.256	0.406	0.569	0.429	0.692	0.680	0.709	0.352	0.377
PAE3	0.843	0.264	0.372	0.507	0.357	0.653	0.612	0.645	0.331	0.379
PAE4	0.870	0.348	0.362	0.545	0.447	0.700	0.661	0.684	0.281	0.329
PAE5	0.840	0.242	0.415	0.523	0.316	0.629	0.591	0.661	0.348	0.424
PAE6	0.861	0.279	0.393	0.552	0.419	0.666	0.641	0.660	0.321	0.367
NAE1	0.387	0.853	0.170	0.343	0.376	0.454	0.464	0.342	0.044	0.061
NAE2	0.368	0.888	0.149	0.310	0.384	0.434	0.449	0.318	0.028	0.043
NAE3	0.253	0.902	0.095	0.224	0.356	0.336	0.368	0.212	-0.057	-0.062
NAE4	0.194	0.878	0.043	0.191	0.360	0.291	0.315	0.157	-0.110	-0.125
NAE5	0.117	0.818	0.005	0.169	0.348	0.208	0.249	0.097	-0.165	-0.181
NAE6	0.213	0.856	0.043	0.187	0.337	0.300	0.334	0.188	-0.113	-0.111
PSG1	0.358	0.066	0.791	0.258	0.184	0.347	0.349	0.366	0.542	0.512
PSG2	0.379	0.074	0.835	0.258	0.183	0.357	0.342	0.330	0.543	0.530
PSG4	0.363	0.081	0.788	0.236	0.190	0.361	0.351	0.313	0.534	0.532
PSG5	0.370	0.090	0.835	0.256	0.169	0.373	0.368	0.365	0.505	0.475
PSG6	0.374	0.139	0.822	0.264	0.235	0.373	0.369	0.347	0.473	0.440
SN1	0.582	0.249	0.262	0.904	0.422	0.521	0.541	0.548	0.192	0.206
SN2	0.582	0.239	0.282	0.906	0.389	0.527	0.539	0.573	0.204	0.224
SN3	0.566	0.221	0.297	0.888	0.364	0.526	0.540	0.560	0.237	0.267
SN4	0.560	0.250	0.255	0.911	0.397	0.525	0.538	0.536	0.198	0.224
SN5	0.551	0.345	0.273	0.852	0.437	0.503	0.543	0.493	0.151	0.154
SN6	0.569	0.255	0.310	0.910	0.406	0.519	0.532	0.534	0.219	0.229
PBC2	0.343	0.240	0.222	0.393	0.744	0.430	0.453	0.329	0.176	0.171
PBC3	0.448	0.387	0.233	0.404	0.868	0.519	0.580	0.409	0.112	0.104
PBC4	0.379	0.338	0.202	0.318	0.804	0.432	0.466	0.347	0.116	0.110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PBC5	0.294	0.343	0.111	0.312	0.765	0.326	0.410	0.265	0.033	0.018
PBC6	0.299	0.363	0.127	0.335	0.783	0.341	0.420	0.259	0.006	-0.004
SD1	0.665	0.399	0.358	0.542	0.502	0.874	0.806	0.645	0.236	0.302
SD2	0.670	0.455	0.361	0.525	0.528	0.883	0.801	0.630	0.239	0.301
SD3	0.682	0.293	0.398	0.481	0.415	0.867	0.737	0.631	0.295	0.393
SD4	0.687	0.309	0.404	0.488	0.425	0.873	0.745	0.628	0.294	0.388
SD5	0.642	0.210	0.408	0.449	0.294	0.809	0.677	0.620	0.368	0.463
SD6	0.691	0.423	0.375	0.509	0.548	0.853	0.795	0.621	0.244	0.283
SI1	0.643	0.412	0.371	0.505	0.554	0.791	0.892	0.631	0.241	0.306
SI2	0.660	0.432	0.348	0.535	0.573	0.814	0.899	0.632	0.230	0.295
SI3	0.652	0.234	0.398	0.502	0.416	0.750	0.837	0.639	0.321	0.436
SI4	0.666	0.386	0.381	0.520	0.525	0.788	0.899	0.639	0.281	0.364
SI5	0.634	0.442	0.381	0.568	0.544	0.714	0.818	0.573	0.248	0.265
SI6	0.660	0.376	0.414	0.522	0.510	0.772	0.883	0.616	0.275	0.357
SA1	0.672	0.204	0.369	0.525	0.366	0.632	0.625	0.888	0.320	0.384
SA2	0.698	0.179	0.386	0.518	0.308	0.630	0.603	0.894	0.374	0.426
SA3	0.702	0.278	0.357	0.561	0.408	0.654	0.641	0.888	0.304	0.346
SA4	0.714	0.234	0.368	0.520	0.343	0.643	0.612	0.876	0.350	0.405
SA5	0.694	0.308	0.381	0.538	0.411	0.660	0.660	0.856	0.317	0.368
CT1	0.347	-0.091	0.540	0.175	0.077	0.294	0.266	0.349	0.838	0.731
CT2	0.299	-0.068	0.518	0.184	0.071	0.246	0.218	0.295	0.815	0.689
CT3	0.281	-0.029	0.494	0.178	0.094	0.236	0.219	0.283	0.794	0.640
CT4	0.293	0.047	0.465	0.182	0.153	0.253	0.261	0.270	0.751	0.551
CT5	0.312	-0.091	0.542	0.186	0.061	0.256	0.245	0.318	0.855	0.715
CT6	0.326	-0.020	0.549	0.194	0.145	0.283	0.275	0.327	0.835	0.667
CC1	0.413	0.034	0.518	0.252	0.184	0.423	0.414	0.433	0.624	0.800
CC2	0.401	0.048	0.507	0.241	0.169	0.410	0.395	0.404	0.641	0.816
CC3	0.346	-0.078	0.503	0.148	0.051	0.320	0.296	0.359	0.701	0.859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CC4	0.352	-0.110	0.515	0.188	0.028	0.314	0.294	0.348	0.708	0.863
CC5	0.359	-0.091	0.510	0.218	0.056	0.322	0.306	0.370	0.702	0.867
CC6	0.364	-0.085	0.525	0.204	0.083	0.325	0.300	0.349	0.720	0.865
CC7	0.377	-0.039	0.535	0.220	0.084	0.340	0.319	0.363	0.709	0.862
CC8	0.337	-0.057	0.514	0.183	0.072	0.306	0.283	0.342	0.723	0.835
CC9	0.359	-0.047	0.515	0.178	0.092	0.318	0.298	0.348	0.726	0.855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 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표 4-7]에서 잠재변수 PAE(긍정적 기대감정)에 관련된 측정변수들 (PAE1, PAE2, PAE3, PAE4, PAE5, PAE6)의 외부적재치(각각 0.880, 0.872, 0.843, 0.870, 0.840, 0.861)가 다른 잠재변수들(NAE, PSG, SN, PBC, SD, SI, SA, CT, CC)의 모든 교차적재치(최소값 0.242~최대값 0.725)를 초과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라는 잠재변수들에 관련된 측정변수들의 외부적재치가 해당 잠재변수 이외의 다른 잠재변수들과 관련된 측정변수들의 모든 교차적재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은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의 평가 결과는 [표 4-8]의 $HTMT_{.85}/HTMT_{.90}$ 과 [표 4-9]의 $HTMT_{추론}$ 과 같다.

[표 4-8]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3) : $HTMT_{.85}/HTMT_{.90}$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PAE										
NAE	0.316									
PSG	0.503	0.111								
SN	0.675	0.292	0.343							
PBC	0.497	0.468	0.261	0.493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SD	0.841	0.412	0.496	0.617	0.573					
SI	0.802	0.447	0.485	0.639	0.655	0.947				
SA	0.851	0.271	0.47	0.644	0.455	0.788	0.766			
CT	0.416	0.115	0.719	0.242	0.141	0.354	0.332	0.412		
CC	0.461	0.124	0.669	0.252	0.128	0.434	0.404	0.462	0.885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 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HTMT_{.85}와 HTMT_{.90}는 잠재변수들 간의 HTMT값들이 각각 임계치 0.85와 0.90을 기준으로 해당 임계치보다 작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며 해당 임계치보다 크면 판별타당도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신건권, 2018). [표 4-8]의 HTMT값들 중에 2개 HTMT값들(SA와 PAE 간 0.851, CC와 CT 간 0.885)이 임계치 0.85(HTMT_{.85})를 초과하고 있고, 1개 HTMT 값(SI와 SD 간 0.947)이 임계치 0.90(HTMT_{.90})을 초과하고 있어 HTMT_{.85}와 HTMT_{.90}에 따른 판별타당도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집중타당도의 평가 결과(4) : HTMT_{추론}

경로	HTMT값	표본평균	편의	95% 신뢰구간	
				2.5%	97.5%
NAE → PAE	0.316	0.315	0	0.256	0.372
PSG → PAE	0.503	0.502	0	0.433	0.566
PSG → NAE	0.111	0.117	0.007	0.073	0.160
SN → PAE	0.675	0.675	0	0.628	0.718
SN → NAE	0.292	0.291	-0.001	0.229	0.347
SN → PSG	0.343	0.343	0	0.274	0.410
PBC → PAE	0.497	0.498	0	0.439	0.551
PBC → NAE	0.468	0.468	0	0.405	0.525

경로	HTMT값	표본평균	편의	95% 신뢰구간	
				2.5%	97.5%
PBC → PSG	0.261	0.260	0	0.192	0.329
PBC → SN	0.493	0.493	0	0.435	0.546
SD → PAE	0.841	0.841	0	0.808	0.870
SD → NAE	0.412	0.412	0	0.357	0.463
SD → PSG	0.496	0.496	0	0.429	0.558
SD → SN	0.617	0.617	0	0.563	0.666
SD → PBC	0.573	0.574	0.001	0.519	0.622
SI → PAE	0.802	0.802	0	0.767	0.833
SI → NAE	0.447	0.447	0	0.394	0.497
SI → PSG	0.485	0.485	0	0.422	0.541
SI → SN	0.639	0.639	0	0.587	0.685
SI → PBC	0.655	0.656	0.001	0.609	0.697
SI → SD	0.947	0.947	0	0.930	0.962
SA → PAE	0.851	0.850	0	0.820	0.876
SA → NAE	0.271	0.271	0	0.213	0.328
SA → PSG	0.470	0.469	0	0.400	0.538
SA → SN	0.644	0.643	0	0.594	0.689
SA → PBC	0.455	0.456	0.001	0.395	0.510
SA → SD	0.788	0.788	0	0.750	0.823
SA → SI	0.766	0.766	0	0.730	0.799
CT → PAE	0.416	0.415	-0.001	0.344	0.485
CT → NAE	0.115	0.123	0.007	0.086	0.141
CT → PSG	0.719	0.719	0	0.663	0.770
CT → SN	0.242	0.242	-0.001	0.173	0.312
CT → PBC	0.141	0.146	0.006	0.096	0.189
CT → SD	0.354	0.354	0	0.284	0.423
CT → SI	0.332	0.332	0	0.266	0.395

경로	HTMT값	표본평균	편의	95% 신뢰구간	
				2.5%	97.5%
CT → SA	0.412	0.412	-0.001	0.340	0.487
CC → PAE	0.461	0.460	-0.001	0.396	0.526
CC → NAE	0.124	0.130	0.006	0.097	0.156
CC → PSG	0.669	0.669	0	0.609	0.723
CC → SN	0.252	0.251	-0.001	0.182	0.317
CC → PBC	0.128	0.134	0.006	0.090	0.169
CC → SD	0.434	0.434	0	0.374	0.493
CC → SI	0.404	0.404	0	0.344	0.460
CC → SA	0.462	0.462	0	0.395	0.529
CC → CT	0.885	0.885	0	0.849	0.916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 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다음으로 HTMT_{추론}은 PLS-SEM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거친 후 신뢰구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뢰수준 95%($\alpha=0.05$)에서 각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관계에 대한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내에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보며 1을 포함하고 있으면 판별타당도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신건권, 2018). [표 4-9]의 각 모든 경로관계들에 대한 신뢰구간의 하한선(2.5%)과 상한선(97.5%) 내에서 1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서 HTMT_{추론}에 따른 판별타당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는 동일한 잠재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다수의 측정변수를 이용할 경우에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측정변수들 간의 일관성 정도로 측정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

하는 기준으로 ①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② Dijkstra-Henseler's ρ_A , ③ CR(composite reliability : 합성신뢰도 ρ_C)이 대표적이다(신건권, 2018).

첫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평가기준으로 일반적인 수용 범위는 0.6~0.9(0.6 미만 : 낮은 신뢰도, 0.6 이상 : 수용 가능한 신뢰도, 0.7 이상 : 바람직한 신뢰도, 0.8~0.9 : 높은 신뢰도)로 0.6 미만이면 낮은 신뢰도로 볼 수가 있으나, 학문 분야 또는 연구자에 따라 보다 엄격하거나 관대한 수용기준(예로 0.9가 아닌 0.95)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Cronbach, 1951; Nunnally & Bernstein, 1994; 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둘째, Dijkstra-Henseler's ρ_A [D-H ρ_A]로 요약]는 Dijkstra와 Henseler가 제시한 신뢰도 평가방법으로 PLS-SEM에서 신뢰도 평가기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수용기준으로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로 본다(Dijkstra & Henseler, 2015; 신건권, 2018).

셋째, CR(composite reliability : 합성신뢰도 ρ_C)은 0과 1 사이의 분산을 가지는데 값이 높을수록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며, 수용 범위는 Cronbach's α 와 동일하다. Cronbach's α 는 척도에 속하는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다른 평가기준으로 CR(합성신뢰도 ρ_C)을 사용한다(Werts, Linn & Jöreskog, 1974; 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본 연구에서는 상기 3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파악하였는데, 각 잠재변수별로 측정변수들(집중타당도에서 제거된 예비창업보증3, 지각된행동통제1, 창업태도6을 제외) 간의 일관성 정도로 측정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평가 결과는 [표 4-10]과 같다.

[표 4-10]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평가 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D-H ρ_A	CR(ρ_C)
긍정적 기대감정	긍정적기대감정1	0.930	0.931	0.945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D-H $\rho_A(\rho_A)$	CR(ρ_C)
긍정적 기대감정 (PAE)	긍정적기대감정2	0.930	0.931	0.945
	긍정적기대감정3			
	긍정적기대감정4			
	긍정적기대감정5			
	긍정적기대감정6			
부정적 기대감정 (NAE)	부정적기대감정1	0.935	0.955	0.947
	부정적기대감정2			
	부정적기대감정3			
	부정적기대감정4			
	부정적기대감정5			
예비창업보증 (PSG)	예비창업보증1	0.873	0.873	0.908
	예비창업보증2			
	예비창업보증4			
	예비창업보증5			
	예비창업보증6			
주관적 규범 (SN)	주관적규범1	0.950	0.951	0.960
	주관적규범2			
	주관적규범3			
	주관적규범4			
	주관적규범5			
지각된 행동통제 (PBC)	지각된행동통제2	0.854	0.872	0.895
	지각된행동통제3			
	지각된행동통제4			
	지각된행동통제5			
	지각된행동통제6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D-H $\rho_{HA}(\rho_A)$	CR(ρ_C)
창업열망 (SD)	창업열망1	0.929	0.931	0.945
	창업열망2			
	창업열망3			
	창업열망4			
	창업열망5			
	창업열망6			
창업의도 (SI)	창업의도1	0.937	0.938	0.950
	창업의도2			
	창업의도3			
	창업의도4			
	창업의도5			
	창업의도6			
창업태도 (SA)	창업태도1	0.927	0.928	0.945
	창업태도2			
	창업태도3			
	창업태도4			
	창업태도5			
컨설턴트 신뢰 (CT)	컨설턴트신뢰1	0.899	0.902	0.922
	컨설턴트신뢰2			
	컨설턴트신뢰3			
	컨설턴트신뢰4			
	컨설턴트신뢰5			
	컨설턴트신뢰6			
컨설턴트 역량 (CC)	컨설턴트역량1	0.951	0.953	0.958
	컨설턴트역량2			
	컨설턴트역량3			
	컨설턴트역량4			

잠재변수	측정변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D-H $\rho_A(\rho_A)$	CR(ρ_C)
컨설턴트 역량 (CC)	컨설턴트역량5	0.951	0.953	0.958
	컨설턴트역량6			
	컨설턴트역량7			
	컨설턴트역량8			
	컨설턴트역량9			

우선, Cronbach's α 의 경우 예비창업보증, 지각된 행동통제, 컨설턴트 신뢰는 각각 0.873, 0.854, 0.899로 일반적인 수용 범위(0.6~0.9)에 있으나,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창업열망, 창업의도, 창업태도는 0.927~0.937이고 주관적 규범과 컨설턴트 역량은 각각 0.950, 0.951을 보이고 있다.

Cronbach's α 는 학문 분야 또는 연구자에 따라 수용 범위의 상한선을 0.9가 아닌 0.95를 선택할 수 있고 컨설턴트 역량의 Cronbach's α 가 0.95를 0.001을 초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서 언급했듯이 Cronbach's α 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한계가 있어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다른 평가기준인 D-H $\rho_A(\rho_A)$ 과 CR(ρ_C)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D-H $\rho_A(\rho_A)$ 의 경우 가장 작은 값을 보이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0.872이고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값이 부정적 기대감정으로 0.955를 보이고 있는 바, 모든 D-H $\rho_A(\rho_A)$ 의 값들이 수용기준인 0.7 이상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CR(ρ_C)는 Cronbach's α 와 동일하게 학문 분야 또는 연구자에 따라 수용 범위의 상한선을 0.9가 아닌 0.95를 선택할 수 있는데, 창업의도(0.950), 컨설턴트 역량(0.958), 주관적 규범(0.960)이 수용 범위(0.6~0.95)를 약간 초과하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든 잠재변수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구조모델의 평가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평가에서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PLS-SEM에서는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델이 가설검증을 위해 적합한 모델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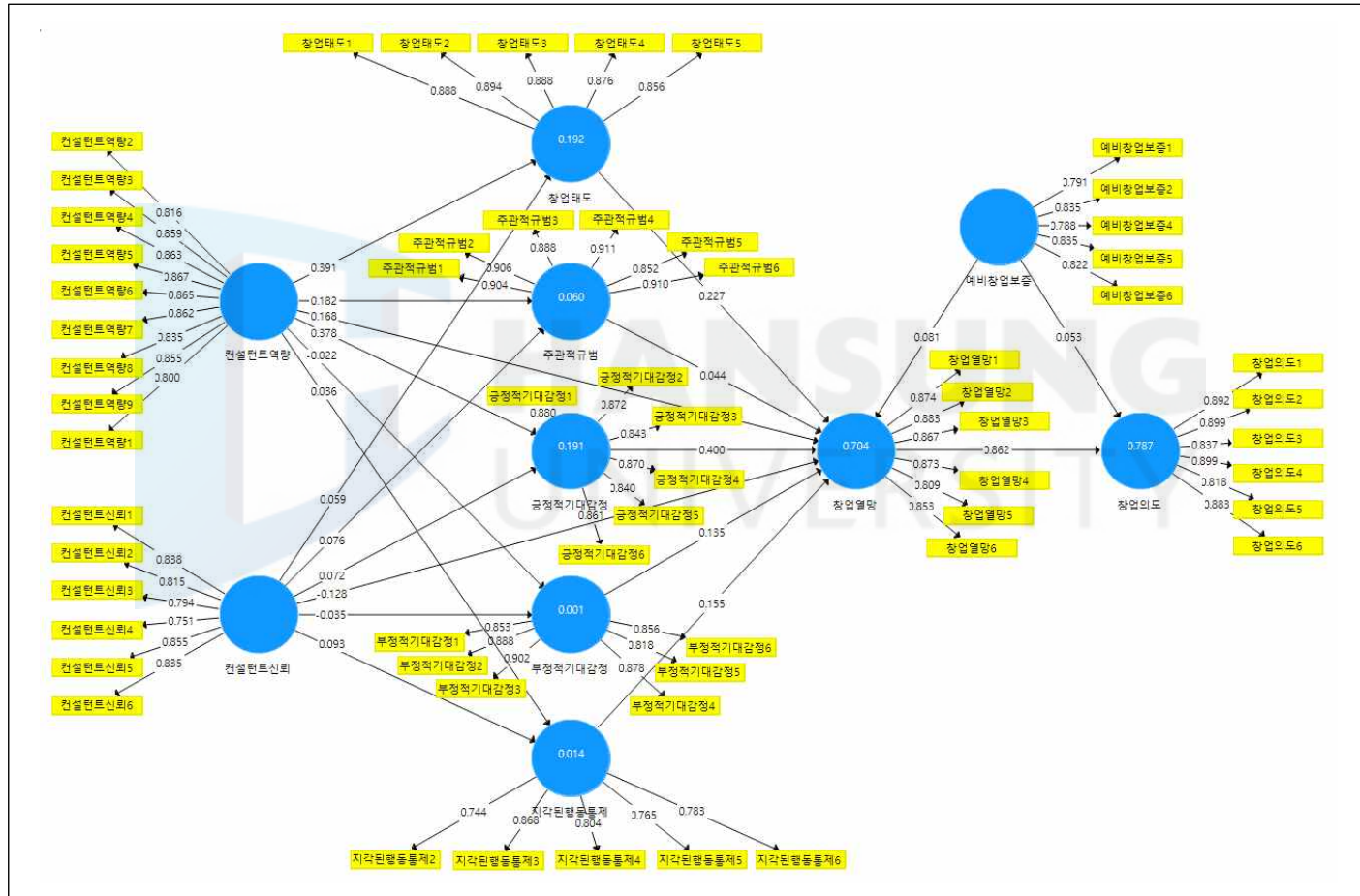
PLS-SEM에서 구조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SmartPLS라는 통계프로그램에서 ① 알고리즘(algorithm)[내생잠재변수의 설명되지 않은 오차분산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적은 반복계산을 통해 최적해를 구하는 절차], ②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비모수적 접근을 통해서 각 계수들에 대한 검증통계량인 t값을 추정하는 절차], ③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누락거리 D(omission distance)에 의한 절차로 data point를 체계적으로 삭제하고 남아 있는 data point들을 이용하여 계수를 재추정하는 표본 재사용기법]에의 3가지를 실행하여 확인해야 한다(Hair et al., 2014/2017; 신건권, 2018).

구조모델의 평가기준은 ① 다중공선성[1단계 : 잠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단계], ② 결정계수(R^2)[2단계 : 외생잠재변수의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평가하는 단계], ③ 효과크기(f^2)[3단계 :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단계], ④ 예측적 적합성(Q^2)[4단계 : 구조모델이 특정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 ⑤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5단계 : 부트스트래핑의 실행을 통해 산출한 t값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라는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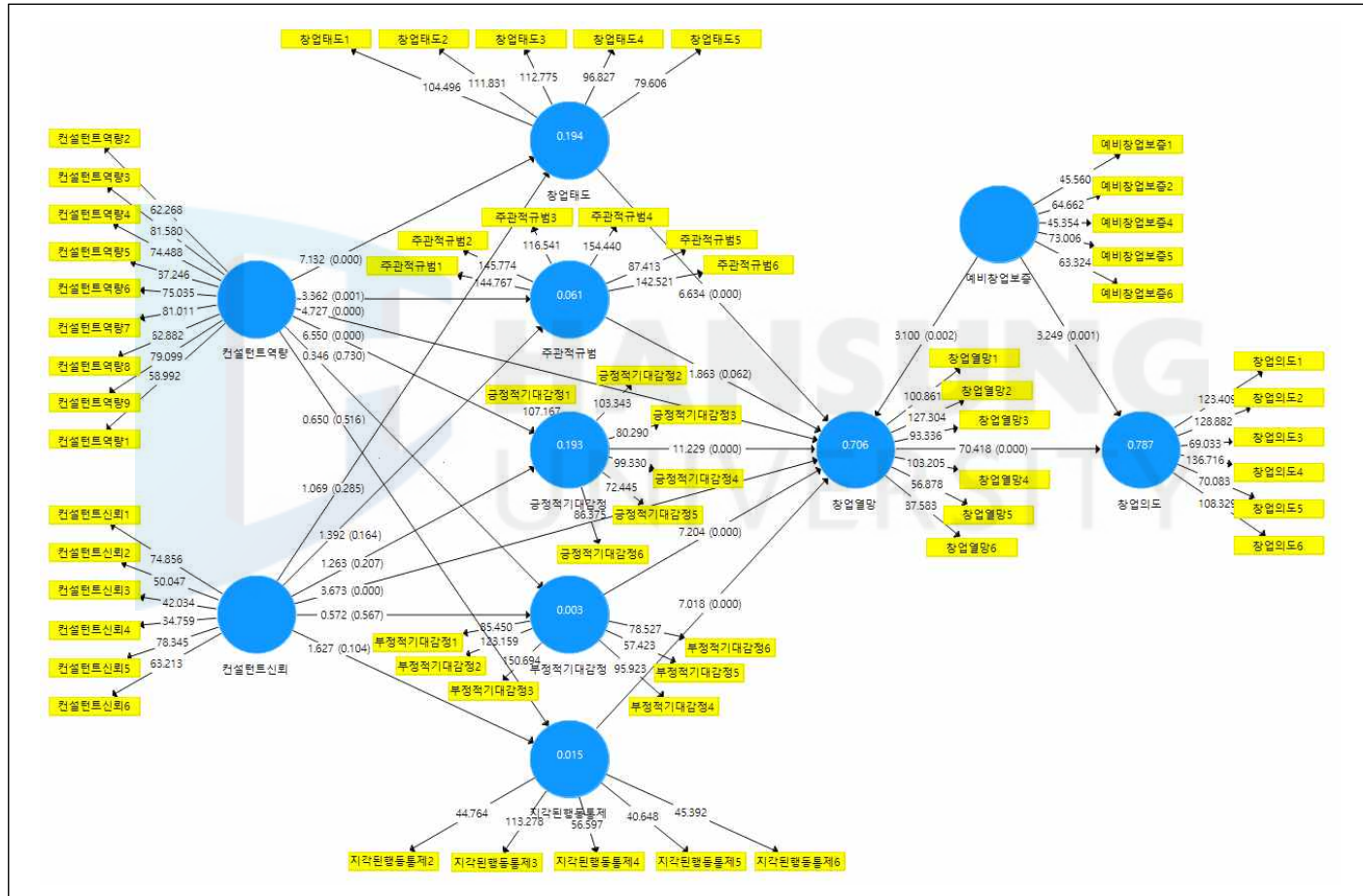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SmartPLS를 통해 알고리즘, 부트스트래핑, 블라인드폴딩을 실행한 결과를 살펴보고, 상기 구조모델의 평가기준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진행한다. 가설검증과 관련된 마지막 5단계는 다음 절인 ‘제4절’의 ‘1) 연구가설 검증’에서 평가하였다.

우선, PLS-SEM에서 SmartPLS를 통해 알고리즘, 부트스트래핑, 블라인드폴딩을 실행한 결과는 각각 [그림 4-1], [그림 4-2], [그림 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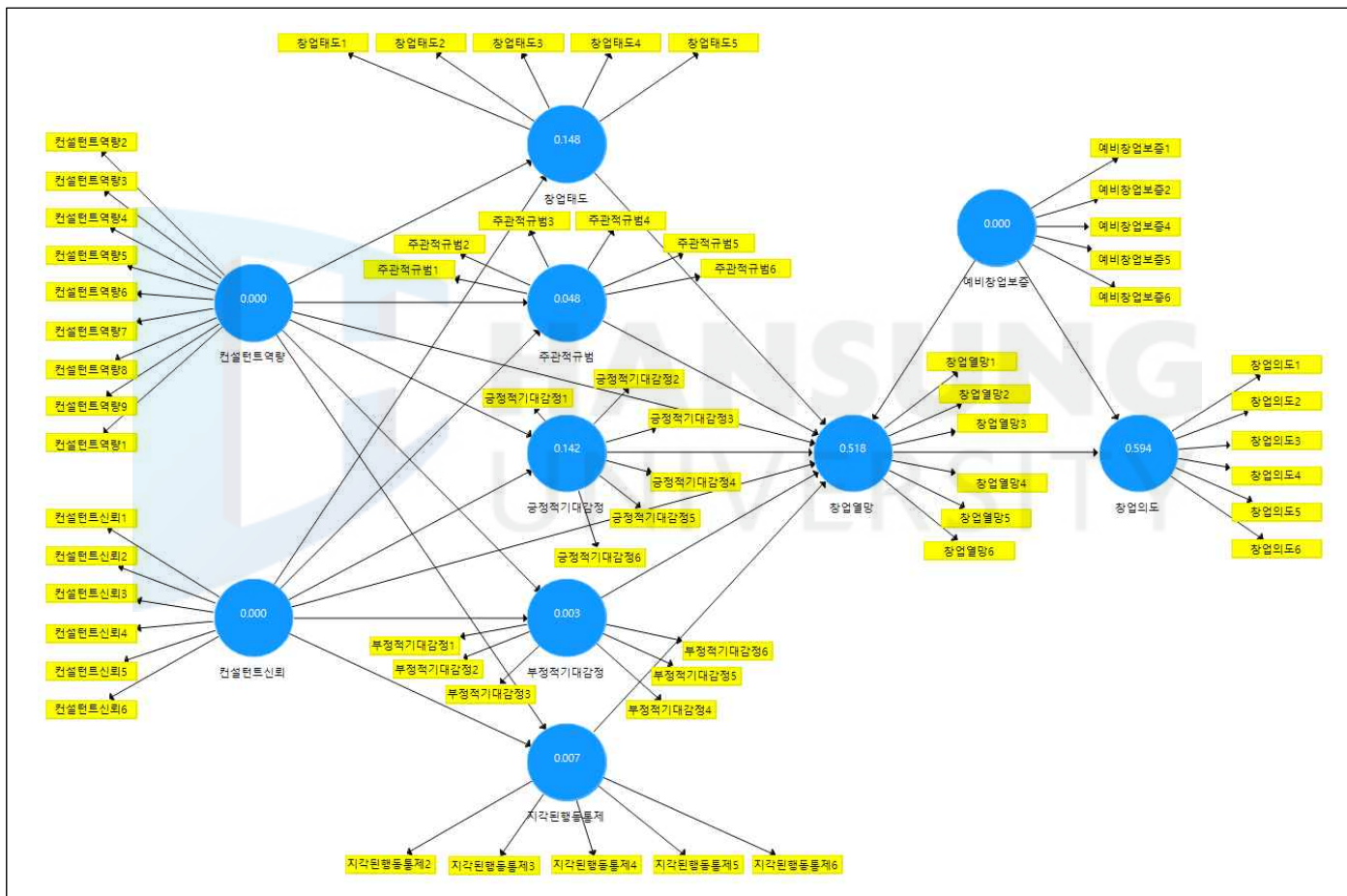
[그림 4-1] PLS-SEM의 알고리즘(algorithm) 실행 결과 : 표준화된 회귀계수, R^2



[그림 4-2] PLS-SEM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실행 결과 : t-value



[그림 4-3] PLS-SEM의 블라인드폴딩(blindfolding) 실행 결과 : Q^2



[그림 4-1], [그림 4-2]에서 화살표 안에 표시된 숫자들은 각각 외부적재치(표준화된 회귀계수), t값을 산출한 것을 나타내며, [그림 4-1], [그림 4-3]에서 원 안에 표시된 숫자들은 각각 수정된 R^2 값, Q^2 값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구조모델의 평가기준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중공선성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다수의 잠재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이일현, 2014; 송지준, 2015). PLS-SEM에서는 내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 분산팽창지수)의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는데, 내부 VIF값이 5 미만이면 잠재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하며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한다(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PLS 알고리즘 실행 후 각 잠재변수들의 내부 VIF값은 [표 4-11]과 같다.

[표 4-11] 다중공선성의 평가 결과 : 내부 VIF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PAE						3.254				
NAE						1.310				
PSG						1.916	1.247			
SN						1.857				
PBC						1.489				
SD							1.247			
SI										
SA						2.919				
CT	3.028	3.028		3.028	3.028	3.355		3.028		
CC	3.028	3.028		3.028	3.028	3.393		3.028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표 4-11]에서 각 내생잠재변수(표의 상단)별로 외생잠재변수들(표의 좌측) 간의 다중공선성을 평가한 결과, 내부 VIF값들이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구조모델에서 잠재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정계수(R^2)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 R^2)는 외생잠재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내생잠재변수의 분산비율로 PLS-SEM에서 모델의 예측력(predictive power)을 의미하는데, R^2 값이 높을수록 높은 설명력이 있음을 나타낸다(신건권, 2018). PLS-SEM에서는 R^2 값이 0.25이면 약한 설명력(weak value), 0.5이면 중간 정도의 설명력(moderate value), 0.75이면 큰 설명력(substantial value)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표본크기와 외생잠재변수의 수로 조정된 수정된 R^2 값을 사용한다(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SmartPLS 알고리즘을 실행 후 각 내생잠재변수들의 R^2 값은 [표 4-12]과 같으며, 알고리즘을 실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1]에서 원 안에 표시된 숫자들에서 수정된 R^2 값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12] 결정계수(R^2)의 평가 결과

내생잠재변수	R^2	수정된 R^2
긍정적 기대감정(PAE)	0.193	0.191
부정적 기대감정(NAE)	0.003	0.001
주관적 규범(SN)	0.061	0.060
지각된 행동통제(PBC)	0.015	0.014
창업열망(SD)	0.706	0.704

내생잠재변수	R^2	수정된 R^2
창업의도(SI)	0.787	0.787
창업태도(SA)	0.194	0.192

[표 4-12]에서 내생잠재변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정된 R^2 을 가진 잠재변수는 창업의도(0.787)로 매우 큰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창업열망(0.704)도 큰 설명력을 나타낸다. 창업태도(0.192), 긍정적 기대감정(0.191)은 약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주관적 규범(0.060), 지각된 행동통제(0.014), 부정적 기대감정(0.001)은 매우 약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3) 효과크기(f^2)

효과크기(effect size : f^2)는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이며 외생잠재변수들이 내생잠재변수의 R^2 값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신건권, 2018). PLS-SEM에서는 f^2 값이 0.02이면 작은 효과크기(small effect size), 0.15이면 중간 효과크기(medium effect size), 마지막으로 0.35이면 큰 효과크기(large effect size)를 나타낸다(Cohen, 1992; Hair et al., 2014/2017; 신건권, 2018).

SmartPLS 알고리즘을 실행 후 파악되는 각 잠재변수들의 f^2 값은 [표 4-13]과 같다.

[표 4-13] 효과크기(f^2)의 평가 결과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PAE						0.168				
NAE						0.048				
PSG						0.012	0.011			
SN						0.003				
PBC						0.055				

	PAE	NAE	PSG	SN	PBC	SD	SI	SA	CT	CC
SD							2.801			
SI										
SA						0.060				
CT	0.002	0.000		0.002	0.003	0.017		0.001		
CC	0.059	0.000		0.012	0.000	0.028		0.063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표 4-13]에서 내생잠재변수별로 효과크기(f^2)를 보면 내생잠재변수 창업의도(SI)의 R^2 에 기여하는 창업열망(SD)의 f^2 가 2.801로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림 4-1]에서 내생잠재변수 창업의도(SI)와 관련된 2개 외생잠재변수 창업열망(SD), 예비창업보증(PSG)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각각 0.862, 0.053로 창업열망(SD)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내생잠재변수 창업의도(SI) 이외에 다른 내생잠재변수들에 대한 외생잠재변수들의 효과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기대감정(PAE)의 R^2 에 기여하는 외생잠재변수들 중 컨설턴트 신뢰(CT)의 f^2 가 0.002로 매우 작은 기여를 하고 있고, 컨설턴트 역량(CC)은 0.059로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 부정적 기대감정(NAE)의 R^2 에 기여하는 외생잠재변수 컨설턴트 신뢰(CT)와 컨설턴트 역량(CC)의 f^2 가 모두 0.000으로 나타나서 부정적 기대감정(NAE)의 R^2 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주관적 규범(SN)의 R^2 에 기여하는 외생잠재변수 컨설턴트 신뢰(CT)와 컨설턴트 역량(CC)의 f^2 가 각각 0.002, 0.012로 나타나서 매우 작은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PBC)의 R^2 에 기여하는 외생잠재변수들 중 컨설턴트 신뢰(CT)의 f^2 가 0.003로 매우 작은 기여를 하고 있고, 컨설턴트 역량(CC)은 0.000으로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 창업열망(SD)의 R^2 에 기여하는 외생잠재변수들 중 긍정적 기대감정(PAE)의 f^2 가 0.168로 중간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으나, 주관적 규범(SN)의 f^2 가 0.003으로 매우 작은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 기대감정(NAE), 예비창업보증(PSG), 지각된 행동통제(PBC), 창업태도

(SA), 컨설턴트 신뢰(CT), 컨설턴트 역량(CC)의 f^2 가 각각 0.048, 0.012, 0.055, 0.060, 0.017, 0.028로 창업열망(SD)의 R^2 에 작은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태도(SA)의 R^2 에 기여하는 외생잠재변수들 중 컨설턴트 신뢰(CT)의 f^2 가 0.001로 매우 작은 기여를 하고 있고, 컨설턴트 역량(CC)은 0.063으로 작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예측적 적합성(Q^2)

예측적 적합성(predictive relevance)을 확인하는 방법은 결정계수(R^2) 이외 SmartPLS에서 블라인드폴딩을 통해 산출되는 Stone-Geisser의 Q^2 가 있으며, 이는 구조모델에서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합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Stone, 1974; Geisser, 1974; 신건권, 2018). PLS-SEM에서는 특정 내생잠재변수의 Q^2 값이 0을 초과하면 구조모델에서 외생잠재변수들이 특정 내생잠재변수에 대해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0 또는 0보다 작다면 예측적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SmartPLS 블라인드폴딩을 실행 후 각 내생잠재변수들의 Q^2 값은 [표 4-14]와 같으며, 블라인드폴딩을 실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 4-3]에서 원 안에 표시된 숫자들에서 Q^2 값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14] 예측적 적합성(Q^2)의 평가 결과

내생잠재변수	Q^2
긍정적 기대감정(PAE)	0.142
부정적 기대감정(NAE)	0.003
주관적 규범(SN)	0.048
지각된 행동통제(PBC)	0.007
창업열망(SD)	0.518
창업의도(SI)	0.594
창업태도(SA)	0.148

[표 4-14]에서 모든 내생잠재변수들(PAE, NAE, SN, PBC, SD, SI, SA)의 Q^2 값들이 모두 0을 초과하고 있어 본 연구의 구조모델은 예측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4 절 연구가설 검증 및 기타 연구분석

앞서 구조모델의 평가기준 중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통해 다중공선성, 결정계수(R^2), 결정계수(f^2), 예측적 적합성(Q^2)의 평가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구조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을 확인하였기에 5단계인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Hair et al., 2011/2014/2017; 신건권, 2018).

가설을 검증한 후에는 SmartPLS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특정간접효과와 경로계수와 유의성,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와 유의성 등을 통해 매개효과분석을 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집단분류를 통한 다중집단 분석에 의한 조절효과분석을 진행한다.

마지막에는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추가 통계자료를 통해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을 하지 않는 사유,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 Hybrid 창업에 필요하신 컨설팅 분야 등을 분석한다.

1) 연구가설 검증

SmartPLS라는 통계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 실행으로 산출된 경로계수의 추정치(estimates of path coefficients)와 부트스트래핑 실행으로 산출된 t값, p값,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하한값 2.5%, 상한값 97.5%)을 활용하여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한다.

SmartPLS에 의한 PLS-SEM에서 경로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① t값 확인 방법, ② p값 확인방법, ③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확인방법[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의 3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

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며, t값의 임계치 기준은 유의수준 5% ($\alpha=0.05$, 표시 : *)인 경우 ± 1.96 , 유의수준 1%($\alpha=0.01$, 표시 : **)인 경우 ± 2.58 , 유의수준 0.1%($\alpha=0.001$, 표시 : ***)인 경우 ± 3.30 이다(Hair et al., 2014/2017; 신건권, 2018).

상기 t값의 임계치 기준은 양측검정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은 방향성 가설로 단측검정에 해당되어 유의수준 5%에서 t값의 임계치 기준이 1.96이 아닌 1.645를 적용해야 하나, 방향성 가설이라고 반드시 단측검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논문들에서 더 엄격한 검정을 위해 양측검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양측검정의 t값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 및 가설을 검증한다(우종필, 2012). 단, 본 연구의 가설이 정(+)의 방향을 가진 방향성 가설로 t값>1.645이면 해당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설을 채택하기로 한다.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평가 결과는 [표 4-15]로 요약할 수 있다.

[표 4-15]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평가 결과

가설경로	경로 계수	표준 편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유의성 ($p<0.05$)
					2.5%	97.5%	
[H1] CC→SA	0.391	0.055	7.132	0.000	0.278	0.494	Yes
[H2] CC→SN	0.182	0.054	3.362	0.001	0.070	0.283	Yes
[H3] CC→PAE	0.378	0.058	6.550	0.000	0.267	0.486	Yes
[H4] CC→NAE	-0.022	0.063	0.346	0.730	-0.153	0.094	No
[H5] CC→PBC	0.036	0.056	0.650	0.516	-0.074	0.143	No
[H6] CC→SD	0.168	0.036	4.727	0.000	0.096	0.235	Yes
[H7] CT→SA	0.059	0.055	1.069	0.285	-0.044	0.169	No
[H8] CT→SN	0.076	0.054	1.392	0.164	-0.027	0.186	No
[H9] CT→PAE	0.072	0.057	1.263	0.207	-0.037	0.185	No
[H10] CT→NAE	-0.035	0.061	0.572	0.567	-0.149	0.090	No
[H11] CT→PBC	0.093	0.057	1.627	0.104	-0.017	0.207	No
[H12] CT→SD	-0.128	0.035	3.673	0.000	-0.196	-0.061	Yes

가설경로	경로 계수	표준 편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유의성 (p<0.05)
					2.5%	97.5%	
[H13] SA→SD	0.227	0.034	6.634	0.000	0.161	0.294	Yes
[H14] SN→SD	0.044	0.023	1.863	0.062	-0.002	0.089	Yes (단측감정)
[H15] PAE→SD	0.400	0.036	11.229	0.000	0.331	0.471	Yes
[H16] NAE→SD	0.135	0.019	7.204	0.000	0.098	0.172	Yes
[H17] PBC→SD	0.155	0.022	7.018	0.000	0.112	0.198	Yes
[H18] PSG→SD	0.081	0.026	3.100	0.002	0.030	0.132	Yes
[H19] PSG→SI	0.053	0.016	3.249	0.001	0.021	0.086	Yes
[H20] SD→SI	0.862	0.012	70.418	0.000	0.837	0.884	Yes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표 4-15]에 나타난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성 평가 결과를 보면, 컨설턴트 역량 관련 가설경로 H1(컨설턴트 역량→창업태도), H2(컨설턴트 역량→주관적 규범), H3(컨설턴트 역량→긍정적 기대감정), H6(컨설턴트 역량→창업열망)의 경로계수는 p값이 모두 0.001 이하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경로 H4(컨설턴트 역량→부정적 기대감정)와 H5(컨설턴트 역량→지각된 행동통제)의 경로계수는 p값이 각각 0.730, 0.516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컨설턴트 역량 관련 가설 H1~H3, H6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H4와 H5는 기각되었다. 컨설턴트 역량이 Hybrid 창업과 관련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에서 큰 영향을 주는 내생잠재변수는 창업태도(경로계수 0.391)와 긍정적 기대감정(경로계수 0.378)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턴트 역량이 주관적 규범(경로계수 0.182), 창업열망(경로계수 0.168)에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Hybrid 창업시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을 하려는 태도와 기대되는 긍정적인 감정이 높아지고 주변 가족, 친구, 동료들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더욱 이해하여 줄 것이며, Hybrid 창업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Hybrid 창업하려는 열망도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걱정, 실망 등 부정적 감정들은 컨설턴트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에 의한 것이며, Hybrid 창업에 대해 직장인들이 지각하는 본인의 의지,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 등 행동통제 판단들도 컨설턴트 역량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인 본인들의 상황들이라는 것이다.

컨설턴트 신뢰 관련 가설경로 H7(컨설턴트 신뢰→창업태도), H8(컨설턴트 신뢰→주관적 규범), H9(컨설턴트 신뢰→긍정적 기대감정), H10(컨설턴트 신뢰→부정적 기대감정), H11(컨설턴트 신뢰→지각된 행동통제)의 경로계수는 p값이 각각 0.285, 0.164, 0.207, 0.567, 0.104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경로 H12(컨설턴트 신뢰→창업열망)의 경로계수는 p값이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 H12[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방향성이 정의 영향이나 경로계수가 -0.128로 부(-)의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컨설턴트 신뢰 관련 가설 H7~H12는 모두 기각되었다.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의 신뢰가 창업열망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가 높은 전담 컨설턴트라고 해도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Hybrid 창업컨설팅이 직장인들의 창업태도, 기대감정 등을 변화시키거나 Hybrid 창업에 대한 주변사람들의 지지, 추천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컨설턴트의 신뢰가 높아지면 컨설턴트가 수행한 컨설팅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져 창업자들의 창업의도가 증가되기 마련이나, Hybrid 창업에서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컨설턴트의 신뢰가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은 감소하는 것을 보면, 신뢰가 높은 컨설턴트가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에는 역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윤성희(2017)는 컨설턴트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컨설턴트와 고객 간의 신뢰 형성은 일정기간의 시간과 접촉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시 본 연구대상인

직장인들이 컨설턴트와 접촉한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동신(2020)은 멘토의 신뢰 중 인지적 신뢰는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으나 정서적 신뢰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김보연(2021)도 리더의 신뢰 중 인지적 신뢰는 직무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감성적 신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 신뢰를 하위변수인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세분화하지 않고 컨설턴트 신뢰라는 하나의 잠재변수로 통합함에 따라 컨설턴트 신뢰가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중 창업열망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 관련 가설경로 H13(창업태도→창업열망), H15(긍정적 기대감정→창업열망), H16(부정적 기대감정→창업열망), H17(지각된 행동통제→창업열망)의 경로계수는 p값이 모두 0.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경로 H14(주관적 규범→창업열망)의 경로계수는 p값이 0.062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설경로 H14(주관적 규범→창업열망)는 정(+)의 방향을 가진 방향성 가설이고 t값이 1.863으로 나타나서 단측검정에 따른 유의수준 5%의 t값 임계치 기준인 1.645를 초과하여 가설 H14는 채택(단측검정)되었다. 따라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관련 가설 H13~H17은 모두 채택되었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관련 선행변수들 중에서 창업열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은 긍정적 기대감정(0.400)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태도(0.227), 지각된 행동통제(0.155), 부정적 기대감정(0.135), 주관적 규범(0.044)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에서 창업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은 연구 분야들에 따라 상이한데, 본 연구의 분야인 Hybrid 창업에서는 직장인들의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가 Hybrid 창업열망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ybrid 예비창업보증 관련 가설경로 H18(예비창업보증→창업열망), H19(예비창업보증→창업의도)의 경로계수는 p값이 모두 0.01 미만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계수가 각각 0.081, 0.053으로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영향력이 낮은 것은 직장인들은 지속적인 근로소득 등으로 Hybrid 창업자금 마련이 가능하므로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으로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자금지원 제도가 있고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자금지원 제도보다 교육 지원, 인프라 지원 등 비자금지원 제도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으며,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은 다양한 정부지원제도의 하나에 불과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가설경로 H20(창업열망→창업의도)의 경로계수는 0.862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크고 예비창업보증(0.053)보다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로계수의 p값이 0.000으로 나타나서 가설 H20은 채택되었다.

Song et al.(2012)은 열망이 머드 축제 재방문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로계수 0.779로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한을경(2014)도 레스토랑 소셜커머스 이용열망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0.777로 나타난다고 하여 행동의도에는 열망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의도에 대해서도 김진희a(2019)가 열망이 외식 창업의도에 0.795의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하였다. 본 연구 분야인 Hybrid 창업에서도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창업열망이 창업의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연구가설 검증결과 정리

가설	가설내용	경로계수 (p)	검증결과
H1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91 (***)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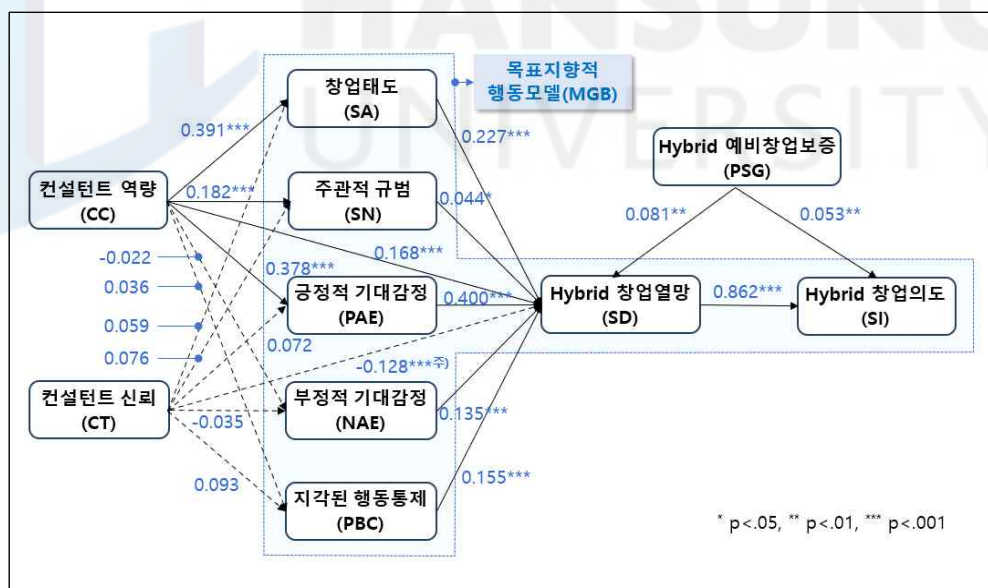
가설	가설내용	경로계수 (p)	검증결과
H2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82 (***)	채택
H3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긍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78 (***)	채택
H4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22 (0.730)	기각
H5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과 관련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36 (0.516)	기각
H6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0.168 (***)	채택
H7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59 (0.285)	기각
H8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76 (0.164)	기각
H9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긍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72 (0.207)	기각
H10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대감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35 (0.567)	기각
H11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과 관련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93 (0.104)	기각
H12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0.128 (***)	기각 ^{주)}
H13	Hybrid 창업과 관련한 창업태도는 Hybrid 창업 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227 (***)	채택
H14	Hybrid 창업과 관련한 주관적 규범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44 (*)	채택 (단측검정)
H15	Hybrid 창업과 관련한 긍정적 기대감정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400 (***)	채택
H16	Hybrid 창업과 관련한 부정적 기대감정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35 (***)	채택
H17	Hybrid 창업과 관련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155 (***)	채택

가설	가설내용	경로계수 (p)	검증결과
H18	Hybrid 창업과 관련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은 Hybrid 창업열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81 (**)	채택
H19	Hybrid 창업과 관련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은 Hybrid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053 (**)	채택
H20	Hybrid 창업과 관련한 Hybrid 창업열망은 Hybrid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0.862 (***)	채택

주)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p < 0.01$ 로 유의하나 부(-)의 경로계수를 보여 가설을 기각
 * $p < .05$, ** $p < .01$, *** $p < .001$

상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관련 가설검증의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연구모형 관련 가설검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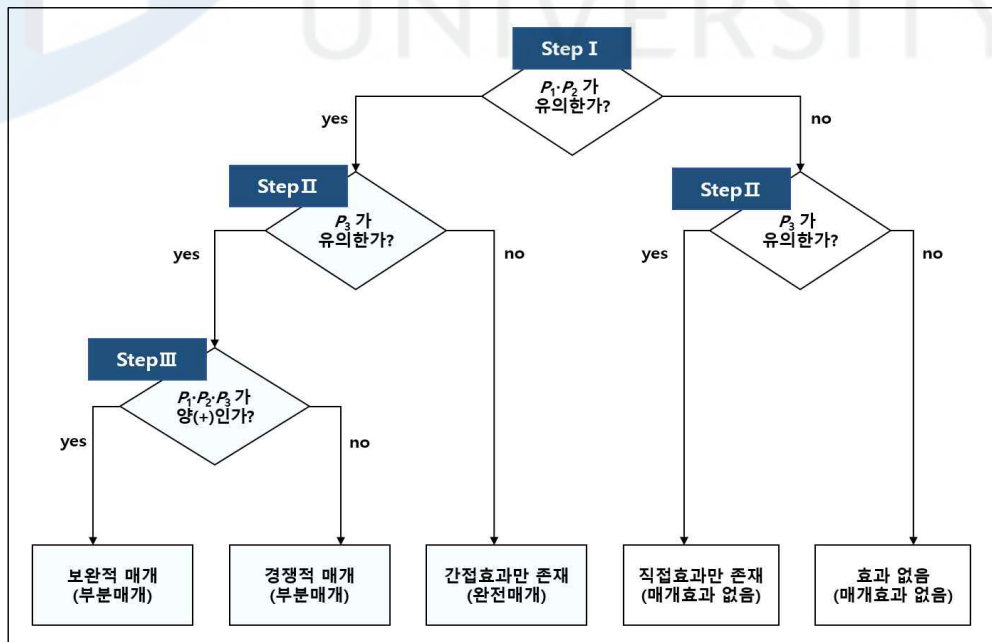
주) 경로계수의 유의성은 $p < 0.01$ 로 유의하나 부(-)의 경로계수를 보여 가설을 기각

2) 매개효과분석

Zhao, Lynch와 Chen(2010), Hair et al.(2017) 등 연구자들은 매개분석의 개념을 비매개(nonmediation)와 매개(mediation)로 구분하고 있다. 비매개로는 ① 직접효과는 유의하나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직접효과만 존재하는 비매개(direct-only nonmediation)’, ②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는 ‘무효과 비매개(no-effect nonmediation)’의 2가지 유형이 있고, 매개로는 ①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고 같은 방향을 보이는 ‘보완적 부분매개(complementary mediation)’, ②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모두 유의하나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경쟁적 부분매개(competitive mediation)’, ③ 간접효과는 유의하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간접효과만 존재하는 완전매개(indirect-only mediation)’의 3가지 유형이 있다(Hair et al., 2017).

상기 매개분석의 유형을 바탕으로 SmartPLS 3.0을 적용하는 PLS-SEM에서 매개효과분석은 [그림 4-5]와 같은 절차에 따라 확인한다.

[그림 4-5] 매개효과분석 절차



〈출처〉 Hair et al.(2017)

[그림 4-5]에서 P_1 은 외생잠재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P_2 는 매개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 $P_1 \cdot P_2$ 는 외생잠재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내생잠재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 P_3 은 외생잠재변수가 내생잠재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낸다(Hair et al., 2017).

[그림 4-5]의 Step I 에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P_1 \cdot P_2$)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간접효과($P_1 \cdot P_2$)가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수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이며, 오른쪽의 Step II 에서 직접효과(P_3)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효과(P_3)가 유의하다면 직접효과만 존재하며, 직접효과(P_3)가 유의하지 않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다. 간접효과($P_1 \cdot P_2$)가 유의하다면 왼쪽의 Step II 에서 직접효과(P_3)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효과(P_3)가 유의하지 않다면 매개변수는 간접효과($P_1 \cdot P_2$)만 존재하는 완전매개이다. 직접효과(P_3)가 유의하다면 부분매개로서 Step III 에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곱($P_1 \cdot P_2 \cdot P_3$)이 양(+)인지 확인한다.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곱($P_1 \cdot P_2 \cdot P_3$)이 양(+)이라면 매개변수는 보완적 매개이며, 부(-)라면 매개변수는 경쟁적 매개로서 억제효과를 보인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SmartPLS 3.0이라는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부트스트래핑으로 계산되는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의 경로계수와 유의성을 통해 개별적인 특정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배병렬, 2018; 신건권, 2018). SmartPLS 3.0에서 파악된 본 연구모형의 특정간접효과와 경로계수와 유의성 분석을 통한 매개효과검증 결과는 [표 4-17]과 같다.

[표 4-17] 특정간접효과분석에 의한 매개효과검증 결과

특정간접경로	경로계수	표준편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유의성 ($p < 0.05$)
					2.5%	97.5%	
CC→SA→SD	0.089	0.018	4.864	0.000	0.058	0.129	Yes
CC→SA→SD→SI	0.076	0.016	4.858	0.000	0.050	0.111	Yes
CC→SN→SD	0.008	0.005	1.528	0.127	0.000	0.021	No
CC→SN→SD→SI	0.007	0.004	1.523	0.128	0.000	0.018	No
CC→PAE→SD	0.151	0.027	5.636	0.000	0.101	0.209	Yes

특정간접경로	경로 계수	표준 편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유의성 (p<0.05)
					2.5%	97.5%	
CC→PAE→SD→SI	0.131	0.024	5.552	0.000	0.087	0.182	Yes
CC→NAE→SD	-0.003	0.009	0.342	0.733	-0.022	0.012	No
CC→NAE→SD→SI	-0.003	0.008	0.342	0.733	-0.019	0.011	No
CC→PBC→SD	0.006	0.009	0.638	0.523	-0.011	0.023	No
CC→PBC→SD→SI	0.005	0.008	0.638	0.524	-0.010	0.020	No
CC→SD→SI	0.145	0.031	4.722	0.000	0.083	0.203	Yes
CT→SA→SD	0.013	0.013	1.049	0.294	-0.009	0.041	No
CT→SA→SD→SI	0.011	0.011	1.052	0.293	-0.008	0.035	No
CT→SN→SD	0.003	0.003	1.012	0.312	-0.001	0.014	No
CT→SN→SD→SI	0.003	0.003	1.011	0.312	-0.001	0.012	No
CT→PAE→SD	0.029	0.023	1.252	0.211	-0.014	0.075	No
CT→PAE→SD→SI	0.025	0.020	1.253	0.210	-0.013	0.064	No
CT→NAE→SD	-0.005	0.008	0.571	0.568	-0.021	0.013	No
CT→NAE→SD→SI	-0.004	0.007	0.571	0.568	-0.018	0.011	No
CT→PBC→SD	0.014	0.009	1.557	0.120	-0.002	0.034	No
CT→PBC→SD→SI	0.012	0.008	1.559	0.119	-0.002	0.029	No
CT→SD→SI	-0.110	0.030	3.665	0.000	-0.170	-0.053	Yes
SA→SD→SI	0.196	0.029	6.672	0.000	0.138	0.253	Yes
SN→SD→SI	0.038	0.020	1.858	0.063	-0.001	0.077	Yes (단측검정)
PAE→SD→SI	0.345	0.032	10.900	0.000	0.283	0.407	Yes
NAE→SD→SI	0.117	0.016	7.104	0.000	0.084	0.148	Yes
PBC→SD→SI	0.134	0.019	6.979	0.000	0.096	0.170	Yes
PSG→SD→SI	0.070	0.023	3.098	0.002	0.026	0.114	Yes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특정간접경로 중에서 컨설턴트 역량(CC)과 창업열망(SD) 간 매개효과가

있는 특정간접경로는 $CC \rightarrow SA \rightarrow SD$ (경로계수=0.089, $p=0.000$), $CC \rightarrow PAE \rightarrow SD$ (경로계수=0.151, $p=0.000$)으로 창업태도(SA)와 긍정적 기대감정(PAE)은 매개영향이 있다. 또한, 컨설턴트 역량(CC)과 창업의도(SI) 간 매개효과가 있는 특정간접경로는 $CC \rightarrow SA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076, $p=0.000$), $CC \rightarrow PAE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131, $p=0.000$), $CC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145, $p=0.000$)으로 창업태도(SA)와 창업열망(SD), 긍정적 기대감정(PAE)과 창업열망(SD), 창업열망(SD)은 매개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턴트 신뢰(CT)와 창업열망(SD)은 물론, 컨설턴트 신뢰(CT)와 창업의도(SI) 간에는 특정간접경로 $CT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110, $p=0.000$) 이외에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관련 잠재변수들인 창업태도(SA), 주관적 규범(SN), 긍정적 기대감정(PAE), 부정적 기대감정(NAE), 지각된 행동통제(PBC)는 매개영향이 없다.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에서는 특정간접경로 $SN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038, $p=0.063$)의 p 가 0.05를 초과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t=1.858$ 로 단측검정에 따른 유의수준 5%의 t 값 임계치 기준인 1.645를 초과하여 단측검정 기준으로 유의하며, 특정간접경로 $SA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196, $p=0.000$), $PAE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345, $p=0.000$), $NAE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117, $p=0.000$), $PBC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134, $p=0.000$)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바, 창업태도(SA), 주관적 규범(SN), 긍정적 기대감정(PAE), 부정적 기대감정(NAE), 지각된 행동통제(PBC)와 창업의도(SI) 간에 창업열망(SD)의 매개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간접경로 $PSG \rightarrow SD \rightarrow SI$ (경로계수=0.070, $p=0.002$)와 같이 예비창업보증(PSG)과 창업의도(SI) 간에 창업열망(SD)의 매개영향이 있다.

다음으로, [그림 4-4]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가설경로들 중 컨설턴트 역량(CC)→창업열망(SD)과 컨설턴트 신뢰(CT)→창업열망(SD)에서 창업태도(SA), 주관적 규범(SN), 긍정적 기대감정(PAE), 부정적 기대감정(NAE), 지각된 행동통제(PBC)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예비창업보증(PSG)→창업의도(SI)에서 창업열망(SD)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5]에 따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통한 매개효과분석 결과

경로	간접 효과	t값 (p값)	유의성 (p<0.05)	직접 효과	t값	유의성 (p<0.05)	매개 효과
CC→SA→SD	0.089	4.864 (0.000)	Yes	0.168	4.727 (0.000)	Yes	부분매개 (보완적)
CC→SN→SD	0.008	1.528 (0.127)	No	0.168	4.727 (0.000)	Yes	없음
CC→PAE→SD	0.151	5.636 (0.000)	Yes	0.168	4.727 (0.000)	Yes	부분매개 (보완적)
CC→NAE→SD	-0.003	0.342 (0.733)	No	0.168	4.727 (0.000)	Yes	없음
CC→PBC→SD	0.006	0.638 (0.523)	No	0.168	4.727 (0.000)	Yes	없음
CT→SA→SD	0.013	1.049 (0.294)	No	-0.128	3.673 (0.000)	Yes	없음
CT→SN→SD	0.003	1.012 (0.312)	No	-0.128	3.673 (0.000)	Yes	없음
CT→PAE→SD	0.029	1.252 (0.211)	No	-0.128	3.673 (0.000)	Yes	없음
CT→NAE→SD	-0.005	0.571 (0.568)	No	-0.128	3.673 (0.000)	Yes	없음
CT→PBC→SD	0.014	1.557 (0.120)	No	-0.128	3.673 (0.000)	Yes	없음
PSG→SD→SI	0.070	3.098 (0.002)	Yes	0.053	3.249 (0.001)	Yes	부분매개 (보완적)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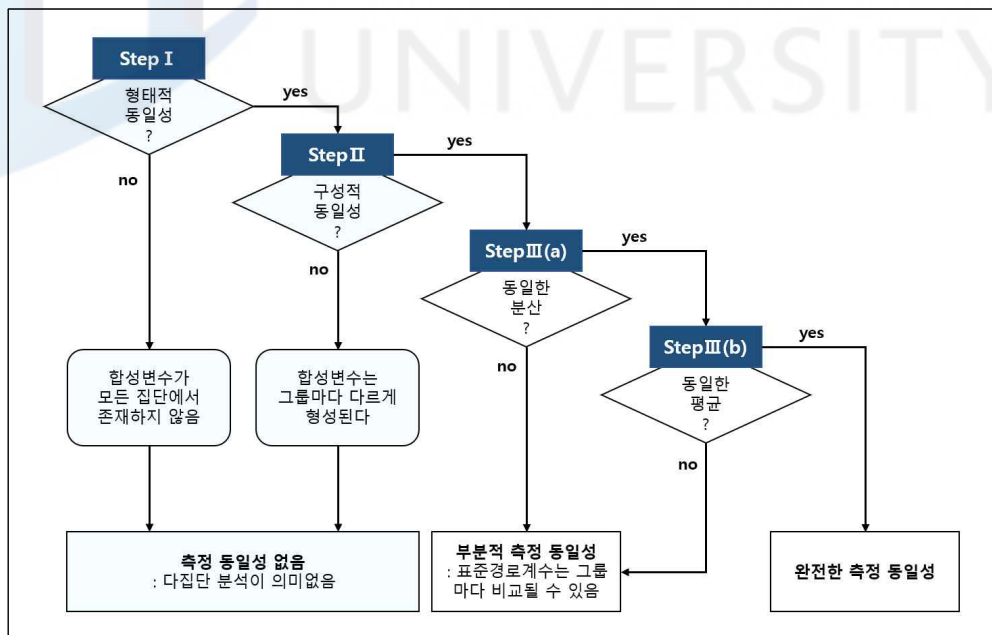
[표 4-18]에서 창업태도(SA)와 긍정적 기대감정(PAE)은 컨설턴트 역량(CC)과 창업열망(SD) 간에, 창업열망(SD)은 예비창업보증(PSG)과 창업의도(SI) 간에 보완적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절효과분석 : 다중집단분석(MGA)

조절변수가 성별, 연령대, 고소득/저소득 등과 같이 범주형 변수인 경우 집단비교 접근법을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PLS-SEM에서는 2개의 집단을 비교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 : MGA)을 수행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다(Hair et al., 2014/2017/2018; 배병렬, 2018; Cheah et al., 2020).

PLS-SEM과 같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중집단분석(MGA)을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모델의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이 확보되어야 하며, 측정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림 4-6]의 MICOM(Measurement invariance of Composite Models)이라는 합성모델 측정동일성 검증 방법론을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Sarstedt, Henseler & Ringle, 2011; Hair et al., 2014/2017/2018; Henseler, Ringle & Sarstedt, 2016; 이재열, 2020).

[그림 4-6] MICOM(Measurement invariance of Composite Models) 절차



〈출처〉 Cheah et al.(2020)

[그림 4-6]과 같이 MICOM은 ① Step I : 형태적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② Step II : 구성적 동일성(compositional invariance), ③ Step III : 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equality of a composite's mean value and variance across groups)이라는 3단계로 진행된다(Henseler et al., 2016; Cheah et al., 2020).

Step I (형태적 동일성)은 SmartPLS에서 MICOM을 실행시 자동으로 확보되는데, 두 집단에서 동일한 지표들의 사용, 유사한 데이터 처리, 유사한 PLS 모델 알고리즘 설정을 보장하기 때문이다(Cheah et al., 2020).

Step I (형태적 동일성)이 확보되면 Step II(구성적 동일성)를 검증해야 하는데, MICOM에 있는 비모수적 방법인 순열 검증(permutation test)으로 산출된 두 집단의 합성변수 점수 간의 상관관계 c 보다 5% 분위수(5% quantile) 값이 작거나 같아야 하며, 이 결과는 순열의 p 값이 0.05보다 커야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Cheah et al., 2020).

Step III(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도 순열 검증(permutation test)으로 산출된 두 집단의 평균 또는 분산 차이가 95% 신뢰구간(하한선 2.5%, 상한선 97.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 결과도 순열의 p 값이 0.05보다 커야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Cheah et al., 2020).

Cheah et al.(2020)는 Step II와 Step III의 순열 검증시 특정 조건에서 p 값과 신뢰구간이 서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p 값보다는 신뢰구간에 따라 동일성 검증할 것을 추천한다.

[그림 4-6]과 같이 Step III에서 평균 또는 분산의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Step I (형태적 동일성)과 Step II(구성적 동일성)만 성립되어 부분적 측정 동일성(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이 확보된 것이며, 평균 또는 분산의 동일성이 성립되면 Step I (형태적 동일성), Step II(구성적 동일성), Step III(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모두가 성립되어 완전한 측정 동일성(full measurement invariance)이 확보된 것이다.

부분적 또는 완전한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면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으며, SmartPLS에 있는 다중집단분석을 실행하여 두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통해 조절효과를 확인한다(Henseler et al., 2016; Cheah

et al., 2020; 홍무궁, 2020). SmartPLS에 있는 다중집단분석은 비모수적 검정방법인 Henseler의 MGA(Henseler, Ringle & Sinkovics, 2009)와 순열 검증(Permutation Test)(Chin & Dibbern, 2010), 모수적 검정방법인 Parametric Test(Keil et al., 2000)와 Welch-Satterthwait Test(Welch, 1947)의 4가지 방식의 결과를 보여주며, 표본의 정규성이 있으면 4가지 접근방식의 결과는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Parametric Test를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다중집단분석 : 성별(남성, 여성)

집단을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하면 표본수가 남성 569개, 여성 559개로 집단 간 표본규모가 유사하고 본 연구모형에 대한 PLS-SEM을 위한 최소표본수 109개를 초과하여 표본크기에 따른 식별문제는 없다.

SmartPLS의 MICOM을 실행으로 Step I (형태적 동일성)은 확보되었고, Step II (구성적 동일성)를 검증하여 보면 [표 4-19]와 같이 두 집단의 합성변수 점수 간의 상관관계 c 보다 5% 분위수 값이 작거나 같으므로 구성적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4-19] 성별 집단(남성/여성)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긍정적 기대감정(PAE)	1.000	1.000	Yes
부정적 기대감정(NAE)	1.000	0.999	Yes
예비창업보증(PSG)	1.000	0.998	Yes
주관적 규범(SN)	1.000	1.000	Yes
지각된 행동통제(PBC)	0.999	0.998	Yes
창업열망(SD)	1.000	1.000	Yes
창업의도(SI)	1.000	1.000	Yes
창업태도(SA)	1.000	1.000	Yes
컨설턴트 신뢰(CT)	0.999	0.999	Yes
컨설턴트 역량(CC)	1.000	0.999	Yes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은 [표 4-2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서 두 집단의 분산값 차이가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있어 분산의 동일성은 성립되었으나, 잠재변수 부정적 기대감정(NAE), 지각된 행동통제(PBC), 창업열망(SD), 창업의도(SI), 컨설턴트 신뢰(CT), 컨설턴트 역량(CC)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있지 않아 평균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Step I(형태적 동일성)과 Step II(구성적 동일성)만 성립되고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아 부분적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표 4-20] 성별 집단(남성/여성)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 변수	평균 동일성				분산 동일성			
	평균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분산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2.5%	97.5%			2.5%	97.5%	
PAE	0.004	-0.114	0.116	Yes	0.001	-0.202	0.199	Yes
NAE	0.303	-0.114	0.121	No	0.042	-0.148	0.141	Yes
PSG	-0.028	-0.115	0.105	Yes	0.108	-0.237	0.235	Yes
SN	0.011	-0.121	0.118	Yes	-0.023	-0.145	0.148	Yes
PBC	0.274	-0.114	0.119	No	-0.097	-0.124	0.139	Yes
SD	0.170	-0.115	0.110	No	-0.119	-0.167	0.182	Yes
SI	0.265	-0.115	0.113	No	-0.138	-0.158	0.165	Yes
SA	0.054	-0.107	0.114	Yes	0.113	-0.210	0.195	Yes
CT	-0.141	-0.120	0.102	No	0.178	-0.261	0.256	Yes
CC	-0.168	-0.114	0.107	No	0.072	-0.245	0.227	Yes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표 4-21]은 Parametric Test 결과를 통한 남성과 여성의 두 집단 간 경

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내며, 본 연구모형의 총 20개 경로에서 2개 경로[컨설팅트 신뢰(CT)→창업태도(SA), 지각된 행동통제(PBC)→창업열망(SD)]만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성별 집단(남성/여성)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효과
		경로계수	t값(p값)	경로계수	t값(p값)	
남성	CC→SA	0.356	3.932(***)	-0.076	0.662(N.S.)	No
여성		0.432	6.161(***)			
남성	CC→SN	0.166	1.786(N.S.)	-0.031	0.276(N.S.)	No
여성		0.197	2.977(**)			
남성	CC→PAE	0.387	4.009(***)	0.011	0.096(N.S.)	No
여성		0.375	5.396(***)			
남성	CC→NAE	-0.106	1.023(N.S.)	-0.187	1.496(N.S.)	No
여성		0.081	1.170(N.S.)			
남성	CC→PBC	-0.053	0.592(N.S.)	-0.187	1.608(N.S.)	No
여성		0.134	1.811(N.S.)			
남성	CC→SD	0.130	2.663(**)	-0.060	0.868(N.S.)	No
여성		0.190	3.862(***)			
남성	CT→SA	0.167	1.940(N.S.)	0.227	2.018(*)	Yes
여성		-0.060	0.828(N.S.)			
남성	CT→SN	0.102	1.149(N.S.)	0.048	0.428(N.S.)	No
여성		0.054	0.795(N.S.)			
남성	CT→PAE	0.122	1.294(N.S.)	0.107	0.906(N.S.)	No
여성		0.016	0.223(N.S.)			
남성	CT→NAE	0.070	0.702(N.S.)	0.202	1.660(N.S.)	No
여성		-0.132	1.905(N.S.)			
남성	CT→PBC	0.213	2.359(*)	0.218	1.845(N.S.)	No
여성		-0.005	0.069(N.S.)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남성	CT→SD	-0.135	2.735(**)	-0.032	0.460 (N.S.)	No
여성		-0.103	2.116(*)			
남성	SA→SD	0.267	5.324(***)	0.085	1.228 (N.S.)	No
여성		0.182	3.845(***)			
남성	SN→SD	0.043	1.265(N.S.)	-0.009	0.194 (N.S.)	No
여성		0.052	1.522(N.S.)			
남성	PAE→SD	0.428	8.221(***)	0.043	0.591 (N.S.)	No
여성		0.385	7.490(***)			
남성	NAE→SD	0.103	4.186(***)	-0.058	1.624 (N.S.)	No
여성		0.161	6.117(***)			
남성	PBC→SD	0.102	3.278(**)	-0.088	1.966 (*)	Yes
여성		0.191	5.916(***)			
남성	PSG→SD	0.123	3.105(**)	0.082	1.609 (N.S.)	No
여성		0.041	1.297(N.S.)			
남성	PSG→SI	0.067	2.782(**)	0.018	0.528 (N.S.)	No
여성		0.049	2.034(*)			
남성	SD→SI	0.864	47.932(***)	0.007	0.300 (N.S.)	No
여성		0.856	49.841(***)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 p<.05, ** p<.01, *** p<.001, N.S. : Not Significant

컨설턴트 신뢰(CT)→창업태도(SA)의 경우 남성에서는 경로계수가 0.167로 정(+)의 영향을 보이나, 여성에서는 경로계수가 -0.060으로 부(-)의 영향을 보인다. 이 경로계수의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경로계수 차이는 0.2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컨설턴트 신뢰가 높을수록 창업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PBC)→창업열망(SD)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경로계수가 각각 0.102, 0.19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이나, 여성의 창업열망이 남성보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에 의해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직장인들의 경우 Hybrid 창업열망은 남성 직장인들에 비해 Hybrid 창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유와 의지가 있다고 믿는 신념에 기대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 다중집단분석 : 겸직금지(여, 부)

집단을 직장 내 겸직금지를 하는 집단(겸직금지 여)과 겸직금지를 하지 않는 집단(겸직금지 부)으로 분류하면 표본수가 ‘겸직금지 여’ 579개, ‘겸직금지 부’ 549개로 집단 간 분석을 위해 비슷한 표본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PLS-SEM 분석을 위한 본 연구모형의 최소표본수(109개)를 초과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위한 표본크기에 따른 식별문제는 없다.

Step I (형태적 동일성)은 성별 집단과 동일하게 MICOM을 실행함으로써 확보되었고, Step II (구성적 동일성)은 [표 4-22]와 같이 두 집단의 합성변수 점수 간의 상관관계 c보다 5% 분위수 값이 작거나 같으므로 구성적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4-22] 겸직금지 집단(여/부)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긍정적 기대감정(PAE)	1.000	1.000	Yes
부정적 기대감정(NAE)	1.000	0.999	Yes
예비창업보증(PSG)	1.000	0.999	Yes
주관적 규범(SN)	1.000	1.000	Yes
지각된 행동통제(PBC)	0.999	0.998	Yes
창업열망(SD)	1.000	1.000	Yes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창업의도(SI)	1.000	1.000	Yes
창업태도(SA)	1.000	1.000	Yes
컨설턴트 신뢰(CT)	1.000	0.999	Yes
컨설턴트 역량(CC)	1.000	0.999	Yes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은 [표 4-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에서 두 집단의 분산값 차이가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있어 분산의 동일성은 성립되었으나, 잠재변수 창업의도(SI), 컨설턴트 역량(CC)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있지 않아 분산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직금지 여/부 집단에서 Step I (형태적 동일성)과 Step II(구성적 동일성)만 성립되어 부분적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표 4-23] 검직금지 집단(여/부)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 변수	평균 동일성				분산 동일성			
	평균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분산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2.5%	97.5%			2.5%	97.5%	
PAE	0.106	-0.115	0.117	Yes	-0.085	-0.193	0.178	Yes
NAE	0.072	-0.113	0.115	Yes	-0.060	-0.143	0.142	Yes
PSG	0.088	-0.118	0.118	Yes	-0.024	-0.231	0.238	Yes
SN	0.005	-0.118	0.118	Yes	0.013	-0.151	0.150	Yes
PBC	0.025	-0.117	0.114	Yes	0.062	-0.152	0.135	Yes
SD	0.111	-0.122	0.116	Yes	-0.018	-0.175	0.167	Yes
SI	0.157	-0.117	0.109	No	-0.024	-0.157	0.154	Yes
SA	0.087	-0.116	0.114	Yes	0.086	-0.211	0.188	Yes
CT	0.094	-0.118	0.118	Yes	0.071	-0.253	0.244	Yes
CC	0.112	-0.124	0.108	No	-0.009	-0.225	0.242	Yes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 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직장 내 겸직금지 여/부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인 [표 4-24]에서 컨설턴트 역량(CC)→주관적 규범(SN) 경로만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겸직금지 집단(여/부)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겸직금지 여	CC→SA	0.308	3.938(***)	-0.148	1.362 (N.S.)	No
겸직금지 부		0.457	6.051(***)			
겸직금지 여	CC→SN	0.051	0.642(N.S.)	-0.235	2.186 (*)	Yes
겸직금지 부		0.287	4.019(***)			
겸직금지 여	CC→PAE	0.340	4.146(***)	-0.064	0.562 (N.S.)	No
겸직금지 부		0.404	5.089(***)			
겸직금지 여	CC→NAE	-0.095	1.087(N.S.)	-0.123	0.974 (N.S.)	No
겸직금지 부		0.028	0.305(N.S.)			
겸직금지 여	CC→PBC	0.011	0.130(N.S.)	-0.042	0.372 (N.S.)	No
겸직금지 부		0.053	0.700(N.S.)			
겸직금지 여	CC→SD	0.197	3.912(***)	0.061	0.863 (N.S.)	No
겸직금지 부		0.136	2.799(**)			
겸직금지 여	CT→SA	0.114	1.366(N.S.)	0.093	0.840 (N.S.)	No
겸직금지 부		0.021	0.289(N.S.)			
겸직금지 여	CT→SN	0.148	1.760(N.S.)	0.112	1.027 (N.S.)	No
겸직금지 부		0.036	0.535(N.S.)			
겸직금지 여	CT→PAE	0.092	1.101(N.S.)	0.029	0.255 (N.S.)	No
겸직금지 부		0.064	0.854(N.S.)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점직금지 여	CT→NAE	0.039	0.431(N.S.)	0.129	1.051 (N.S.)	No
점직금지 부		-0.090	1.087(N.S.)			
점직금지 여	CT→PBC	0.149	1.709(N.S.)	0.105	0.915 (N.S.)	No
점직금지 부		0.044	0.591(N.S.)			
점직금지 여	CT→SD	-0.150	3.131(**)	-0.036	0.530 (N.S.)	No
점직금지 부		-0.114	2.358(*)			
점직금지 여	SA→SD	0.219	4.581(***)	-0.025	0.367 (N.S.)	No
점직금지 부		0.243	5.104(***)			
점직금지 여	SN→SD	0.029	0.877(N.S.)	-0.026	0.540 (N.S.)	No
점직금지 부		0.055	1.579(N.S.)			
점직금지 여	PAE→SD	0.415	7.785(***)	0.028	0.386 (N.S.)	No
점직금지 부		0.388	8.231(***)			
점직금지 여	NAE→SD	0.116	4.429(***)	-0.037	0.977 (N.S.)	No
점직금지 부		0.153	5.575(***)			
점직금지 여	PBC→SD	0.195	5.901(***)	0.082	1.868 (N.S.)	No
점직금지 부		0.113	3.932(***)			
점직금지 여	PSG→SD	0.071	1.806(N.S.)	-0.022	0.423 (N.S.)	No
점직금지 부		0.093	2.698(**)			
점직금지 여	PSG→SI	0.066	2.821(**)	0.027	0.815 (N.S.)	No
점직금지 부		0.039	1.596(N.S.)			
점직금지 여	SD→SI	0.863	46.612(***)	0.001	0.045 (N.S.)	No
점직금지 부		0.862	52.057(***)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 p<.05, ** p<.01, *** p<.001, N.S. : Not Significant

컨설턴트 역량(CC)→주관적 규범(SN)의 경우 ‘겸직금지 여’ 집단과 ‘겸직금지 부’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051, 0.287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거나, ‘겸직금지 부’ 집단이 ‘겸직금지 여’에 비해 컨설턴트 역량이 높아질수록 직장인들의 속한 사회 구성원들이 Hybrid 창업을 더욱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 겸직금지가 없어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가 Hybrid 컨설팅을 하는 경우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Hybrid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다) 다중집단분석 : 연령대(저연령, 고연령)

집단을 연령대에 따라 20대와 30대를 ‘저연령’, 40대와 50대를 ‘고연령’으로 분류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령대 집단별 표본수가 저연령 458개, 고연령 670개로 집단 간에 표본수가 약 200개 정도 차이가 있으나 각 집단별 표본수가 PLS-SEM 분석을 위한 최소표본수(109개)를 크게 초과한 450개 이상으로 표본크기에 따른 식별문제는 없다.

SmartPLS의 MICOM을 실행으로 Step I (형태적 동일성)은 확보되었고, Step II (구성적 동일성)를 검증하여 보면 [표 4-25]와 같이 두 집단의 합성변수 점수 간의 상관관계 c보다 5% 분위수 값이 작거나 같으므로 구성적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4-25] 연령대 집단(저연령/고연령)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긍정적 기대감정(PAE)	1.000	1.000	Yes
부정적 기대감정(NAE)	1.000	0.999	Yes
예비창업보증(PSG)	1.000	0.998	Yes
주관적 규범(SN)	1.000	1.000	Yes
지각된 행동통제(PBC)	0.999	0.998	Yes
창업열망(SD)	1.000	1.000	Yes
창업의도(SI)	1.000	1.000	Yes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창업태도(SA)	1.000	1.000	Yes
컨설턴트 신뢰(CT)	1.000	0.998	Yes
컨설턴트 역량(CC)	1.000	0.999	Yes

[표 4-2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본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서 분산의 동일성은 검증결과가 ‘Yes’로 성립되었으나, 잠재변수 긍정적 기대감정(PAE), 주관적 규범(SN), 창업열망(SD), 창업의도(SI), 창업태도(SA)에서 검증결과가 ‘No’로 평균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연령대 집단에서도 부분적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표 4-26] 연령대 집단(저연령/고연령)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평균 동일성				분산 동일성			
	평균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분산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2.5%	97.5%			2.5%	97.5%	
PAE	0.125	-0.126	0.121	No	0.053	-0.215	0.193	Yes
NAE	-0.097	-0.124	0.121	Yes	0.085	-0.140	0.136	Yes
PSG	-0.043	-0.111	0.113	Yes	0.090	-0.243	0.239	Yes
SN	0.143	-0.120	0.116	No	-0.087	-0.160	0.149	Yes
PBC	0.001	-0.129	0.121	Yes	-0.013	-0.142	0.137	Yes
SD	0.162	-0.121	0.116	No	-0.080	-0.194	0.166	Yes
SI	0.161	-0.126	0.117	No	-0.112	-0.176	0.155	Yes
SA	0.167	-0.121	0.121	No	-0.124	-0.218	0.192	Yes
CT	-0.096	-0.120	0.116	Yes	0.024	-0.274	0.263	Yes
CC	-0.023	-0.119	0.116	Yes	0.068	-0.258	0.249	Yes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저연령과 고연령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27]과 같으며, 1개 경로인 부정적 기대감정(NAE)→창업열망(SD)만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연령대 집단(저연령/고연령)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저연령	CC→SA	0.340	3.641(***)	-0.077	0.672 (N.S.)	No
고연령		0.417	5.879(***)			
저연령	CC→SN	0.176	1.803(N.S.)	-0.002	0.018 (N.S.)	No
고연령		0.178	2.635(**)			
저연령	CC→PAE	0.383	3.894(***)	0.016	0.136 (N.S.)	No
고연령		0.367	5.018(***)			
저연령	CC→NAE	-0.086	0.826(N.S.)	-0.117	0.871 (N.S.)	No
고연령		0.031	0.362(N.S.)			
저연령	CC→PBC	0.008	0.098(N.S.)	-0.048	0.420 (N.S.)	No
고연령		0.056	0.758(N.S.)			
저연령	CC→SD	0.147	3.101(**)	-0.031	0.445 (N.S.)	No
고연령		0.178	3.713(***)			
저연령	CT→SA	0.140	1.472(N.S.)	0.118	1.023 (N.S.)	No
고연령		0.022	0.314(N.S.)			
저연령	CT→SN	0.154	1.615(N.S.)	0.118	1.053 (N.S.)	No
고연령		0.036	0.553(N.S.)			
저연령	CT→PAE	0.068	0.684(N.S.)	-0.020	0.168 (N.S.)	No
고연령		0.088	1.257(N.S.)			
저연령	CT→NAE	0.041	0.399(N.S.)	0.139	1.082 (N.S.)	No
고연령		-0.098	1.227(N.S.)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저연령	CT→PBC	0.130	1.413(N.S.)	0.063	0.530 (N.S.)	No
고연령		0.067	0.905(N.S.)			
저연령	CT→SD	-0.118	2.265(*)	0.004	0.062 (N.S.)	No
고연령		-0.122	2.636(**)			
저연령	SA→SD	0.202	4.014(***)	-0.026	0.377 (N.S.)	No
고연령		0.229	4.925(***)			
저연령	SN→SD	0.042	1.325(N.S.)	0.002	0.038 (N.S.)	No
고연령		0.040	1.203(N.S.)			
저연령	PAE→SD	0.469	8.933(***)	0.110	1.487 (N.S.)	No
고연령		0.360	7.286(***)			
저연령	NAE→SD	0.094	3.515(***)	-0.079	2.012 (*)	Yes
고연령		0.172	6.423(***)			
저연령	PBC→SD	0.144	4.738(***)	-0.016	0.349 (N.S.)	No
고연령		0.160	5.077(***)			
저연령	PSG→SD	0.106	2.462(*)	0.039	0.729 (N.S.)	No
고연령		0.067	2.028(*)			
저연령	PSG→SI	0.065	2.303(*)	0.016	0.467 (N.S.)	No
고연령		0.048	2.195(*)			
저연령	SD→SI	0.850	37.113(***)	-0.017	0.655 (N.S.)	No
고연령		0.867	56.902(***)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 p<.05, ** p<.01, *** p<.001, N.S. : Not Significant

부정적 기대감정(NAE)→창업열망(SD)의 경우 저연령과 고연령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094, 0.172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고연령 집단이

저연령 집단보다 부정적 기대감정이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대~50대 고연령 직장인들은 직장으로부터 해고위기 또는 정년퇴임이 다가옴에 따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아쉬움 등이 증가할수록 Hybrid 창업에 대한 열망이 20대~30대 저연령 직장인들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라) 다중집단분석 : 직장 안정성(안정, 불안정)

직장 안정성에 따라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안정’,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불안정’으로 분류 후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였다. 직장 안정성 정도에 따른 표본수가 안정(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373개, 불안정(중견기업, 중소기업) 756개로 집단 간에 표본수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으나 표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정 집단의 표본수가 최소표본수(109개)를 크게 초과한 약 370여개를 보이고 있어 표본크기에 따른 식별문제는 없다.

Step I (형태적 동일성)이 확보된 후 Step II (구성적 동일성)를 검증하여 보면 [표 4-28]과 같이 두 집단의 합성변수 점수 간의 상관관계 c보다 5% 분위수 값이 작거나 같으므로 구성적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4-28]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불안정)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긍정적 기대감정(PAE)	1.000	1.000	Yes
부정적 기대감정(NAE)	1.000	0.999	Yes
예비창업보증(PSG)	1.000	0.998	Yes
주관적 규범(SN)	1.000	1.000	Yes
지각된 행동통제(PBC)	0.999	0.998	Yes
창업열망(SD)	1.000	1.000	Yes
창업의도(SI)	1.000	1.000	Yes
창업태도(SA)	1.000	1.000	Yes
컨설턴트 신뢰(CT)	0.999	0.998	Yes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컨설턴트 역량(CC)	1.000	0.999	Yes

[표 4-2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본 결과, 평균의 동일성에서 지각된 행동통제(PBC), 분산의 동일성에서는 창업태도(SA)에서 검증결과가 ‘No’로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직장 집단에서 부분적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표 4-29]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불안정)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평균 동일성				분산 동일성			
	평균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분산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2.5%	97.5%			2.5%	97.5%	
PAE	0.092	-0.126	0.119	Yes	0.117	-0.195	0.200	Yes
NAE	-0.051	-0.124	0.130	Yes	-0.066	-0.164	0.140	Yes
PSG	-0.007	-0.133	0.114	Yes	0.174	-0.238	0.232	Yes
SN	0.002	-0.132	0.124	Yes	0.069	-0.160	0.153	Yes
PBC	0.214	-0.133	0.129	No	0.037	-0.143	0.141	Yes
SD	0.012	-0.125	0.122	Yes	0.154	-0.184	0.185	Yes
SI	0.061	-0.127	0.119	Yes	0.081	-0.162	0.160	Yes
SA	0.080	-0.126	0.123	Yes	0.216	-0.214	0.198	No
CT	0.090	-0.131	0.117	Yes	0.150	-0.251	0.272	Yes
CC	0.099	-0.126	0.121	Yes	0.101	-0.255	0.234	Yes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안정 집단과 불안정 집단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인 [표 4-30]에서 컨설턴트 신뢰(CT)→창업태도(SA), 컨설턴트 신뢰(CT)→긍정

적 기대감정(PAE)의 경로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0]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불안정)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안정	CC→SA	0.303	3.328(**)	-0.123	1.074 (N.S.)	No
불안정		0.426	6.352(***)			
안정	CC→SN	0.094	1.156(N.S.)	-0.123	1.083 (N.S.)	No
불안정		0.218	3.154(**)			
안정	CC→PAE	0.260	2.908(**)	-0.162	1.375 (N.S.)	No
불안정		0.423	6.017(***)			
안정	CC→NAE	0.009	0.085(N.S.)	0.042	0.313 (N.S.)	No
불안정		-0.033	0.422(N.S.)			
안정	CC→PBC	-0.053	0.563(N.S.)	-0.117	0.991 (N.S.)	No
불안정		0.064	0.930(N.S.)			
안정	CC→SD	0.189	2.795(**)	0.025	0.342 (N.S.)	No
불안정		0.164	4.081(***)			
안정	CT→SA	0.213	2.249(*)	0.229	1.986 (*)	Yes
불안정		-0.016	0.246(N.S.)			
안정	CT→SN	0.199	2.314(*)	0.176	1.556 (N.S.)	No
불안정		0.022	0.333(N.S.)			
안정	CT→PAE	0.274	2.915(**)	0.295	2.505 (*)	Yes
불안정		-0.021	0.306(N.S.)			
안정	CT→NAE	-0.101	1.007(N.S.)	-0.098	0.772 (N.S.)	No
불안정		-0.003	0.035(N.S.)			
안정	CT→PBC	0.215	2.162(*)	0.171	1.416 (N.S.)	No
불안정		0.044	0.640(N.S.)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안정	CT→SD	-0.182	2.663(**)	-0.079	1.073 (N.S.)	No
불안정		-0.103	2.638(**)			
안정	SA→SD	0.258	4.275(***)	0.043	0.601 (N.S.)	No
불안정		0.215	5.217(***)			
안정	SN→SD	0.034	0.799(N.S.)	-0.008	0.159 (N.S.)	No
불안정		0.042	1.430(N.S.)			
안정	PAE→SD	0.390	5.919(***)	-0.019	0.247 (N.S.)	No
불안정		0.409	9.338(***)			
안정	NAE→SD	0.109	3.266(**)	-0.035	0.885 (N.S.)	No
불안정		0.145	6.417(***)			
안정	PBC→SD	0.206	4.721(***)	0.069	1.461 (N.S.)	No
불안정		0.137	5.466(***)			
안정	PSG→SD	0.058	1.221(N.S.)	-0.03	0.551 (N.S.)	No
불안정		0.089	2.894(**)			
안정	PSG→SI	0.077	2.756(**)	0.038	1.061 (N.S.)	No
불안정		0.039	1.860(N.S.)			
안정	SD→SI	0.853	39.070(***)	-0.016	0.594 (N.S.)	No
불안정		0.869	58.313(***)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 p<.05, ** p<.01, *** p<.001, N.S. : Not Significant

컨설턴트 신뢰(CT)→창업태도(SA)의 경우 직장 안정 집단과 직장 불안정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213, -0.016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0.2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설턴트 신뢰(CT)→긍정적 기대감정(PAE)의 경우에도 직장 안정 집단

과 직장 불안정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274, -0.021로 서로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0.2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보다 신뢰가 되는 컨설턴트가 Hybrid 창업컨설팅을 하는 경우 Hybrid 창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 기대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다. 직장인 다소 불안정적인 직장인들은 컨설턴트를 신뢰하더라도 Hybrid 창업이 본인에게 가치가 있고 현명한 선택인지와 창업의 성공이 의심스러워 Hybrid 창업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와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다중집단분석 : 가구소득(고소득, 저소득)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통계청 통계자료에서 가구소득 상위 30% 이상이 대중부유층(상위 10%~30%)과 부유층(상위 1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 30% 이상의 가구 세전 연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에 대하여 가구소득 월 6백만원 이상을 ‘고소득’, 월 6백만원 미만을 ‘저소득’으로 분류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였다(이새롬, 김수정, 2020; 통계청, 2020b).

가구소득 집단별 표본수가 고소득 372개, 저소득 756개로 집단 간에 표본수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의 가구소득 관련 다중집단분석을 위한 고소득과 저소득을 상위 30%를 기준으로 각각 30%, 70%로 분류한 점을 감안시 표본수의 차이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본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소득 집단의 표본수가 최소표본수(109개)를 크게 초과한 약 370여개를 보이고 있어 표본크기에 따른 식별문제는 없다.

MICOM을 실행으로 다중집단분석을 위한 Step I (형태적 동일성)은 확보되었고, Step II (구성적 동일성)를 검증하여 보면 [표 4-31]과 같이 두 집단의 합성변수 점수 간의 상관관계 c보다 5% 분위수 값이 작거나 같으므로 구성적 동일성이 성립되었다.

[표 4-31] 가구소득 집단(고소득/저소득)의 구성적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상관관계(c)	신뢰구간(5%)	검증 결과
긍정적 기대감정(PAE)	1.000	1.000	Yes
부정적 기대감정(NAE)	1.000	0.999	Yes
예비창업보증(PSG)	0.999	0.998	Yes
주관적 규범(SN)	1.000	1.000	Yes
지각된 행동통제(PBC)	1.000	0.998	Yes
창업열망(SD)	1.000	1.000	Yes
창업의도(SI)	1.000	1.000	Yes
창업태도(SA)	1.000	1.000	Yes
컨설턴트 신뢰(CT)	0.999	0.998	Yes
컨설턴트 역량(CC)	1.000	0.999	Yes

[표 4-32]에서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중 분산의 동일성은 모든 잠재변수들에서 성립되었으나, 잠재변수 지각된 행동통제(PBC), 컨설턴트 신뢰(CT)에서 평균의 동일성은 성립되지 않았다. 가구소득 집단에 서로 부분적 측정 동일성이 확보됨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

[표 4-32] 가구소득 집단(고소득/저소득)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 검증 결과

잠재변수	평균 동일성				분산 동일성			
	평균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분산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2.5%	97.5%			2.5%	97.5%	
PAE	0.089	-0.132	0.119	Yes	-0.106	-0.216	0.179	Yes
NAE	-0.022	-0.131	0.125	Yes	-0.056	-0.156	0.157	Yes
PSG	0.078	-0.129	0.124	Yes	-0.149	-0.250	0.234	Yes
SN	0.057	-0.130	0.121	Yes	0.023	-0.168	0.147	Yes
PBC	0.196	-0.124	0.113	No	-0.111	-0.149	0.135	Yes
SD	-0.007	-0.124	0.127	Yes	0.070	-0.202	0.166	Yes
SI	0.079	-0.126	0.114	Yes	0.053	-0.175	0.154	Yes

잠재 변수	평균 동일성				분산 동일성			
	평균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분산값 차이	95% 신뢰구간		검증 결과
		2.5%	97.5%			2.5%	97.5%	
SA	0.111	-0.126	0.124	Yes	-0.096	-0.207	0.200	Yes
CT	0.168	-0.126	0.129	No	-0.061	-0.275	0.260	Yes
CC	0.119	-0.130	0.124	Yes	-0.145	-0.259	0.257	Yes

주)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SG : 예비창업보증, SN : 주관적 규범,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SI : 창업의도, SA : 창업 태도, CT : 컨설턴트 신뢰, CC : 컨설턴트 역량

고소득과 저소득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33]과 같으며, 총 3개 경로인 컨설턴트 역량(CC)→주관적 규범(SN), 컨설턴트 역량(CC)→창업열망(SD), 컨설턴트 신뢰(CT)→창업열망(SD)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가구소득 집단(고소득/저소득)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결과 : 조절효과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고소득	CC→SA	0.272	2.939(**)	-0.161	1.408 (N.S.)	No
저소득		0.433	6.532(***)			
고소득	CC→SN	0.010	0.102(N.S.)	-0.238	2.069 (*)	Yes
저소득		0.248	3.757(***)			
고소득	CC→PAE	0.247	2.813(**)	-0.177	1.493 (N.S.)	No
저소득		0.424	5.939(***)			
고소득	CC→NAE	0.037	0.375(N.S.)	0.077	0.577 (N.S.)	No
저소득		-0.040	0.499(N.S.)			
고소득	CC→PBC	0.001	0.012(N.S.)	-0.051	0.428 (N.S.)	No
저소득		0.052	0.769(N.S.)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고소득	CC→SD	0.302	5.264(***)	0.184	2.651(**)	Yes
저소득		0.118	2.959(**)			
고소득	CT→SA	0.124	1.369(N.S.)	0.086	0.752(N.S.)	No
저소득		0.038	0.575(N.S.)			
고소득	CT→SN	0.151	1.606(N.S.)	0.096	0.841(N.S.)	No
저소득		0.055	0.847(N.S.)			
고소득	CT→PAE	0.123	1.411(N.S.)	0.063	0.538(N.S.)	No
저소득		0.061	0.866(N.S.)			
고소득	CT→NAE	-0.135	1.381(N.S.)	-0.138	1.087(N.S.)	No
저소득		0.003	0.042(N.S.)			
고소득	CT→PBC	0.138	1.371(N.S.)	0.075	0.617(N.S.)	No
저소득		0.063	0.913(N.S.)			
고소득	CT→SD	-0.283	4.925(***)	-0.221	3.253(**)	Yes
저소득		-0.063	1.633(N.S.)			
고소득	SA→SD	0.184	3.183(**)	-0.059	0.833(N.S.)	No
저소득		0.244	5.922(***)			
고소득	SN→SD	0.061	1.407(N.S.)	0.028	0.547(N.S.)	No
저소득		0.033	1.127(N.S.)			
고소득	PAE→SD	0.403	7.285(***)	-0.002	0.022(N.S.)	No
저소득		0.405	8.819(***)			
고소득	NAE→SD	0.162	4.989(***)	0.049	1.209(N.S.)	No
저소득		0.113	4.834(***)			
고소득	PBC→SD	0.162	4.215(***)	-0.001	0.014(N.S.)	No
저소득		0.163	5.719(***)			
고소득	PSG→SD	0.115	2.416(**)	0.048	0.868(N.S.)	No
저소득		0.067	2.195(*)			

구분	경로	집단별 분석		경로차이 분석		조절 효과
		경로 계수	t값 (p값)	경로 계수	t값 (p값)	
고소득	PSG→SI	0.040	1.171(N.S.)	-0.016	0.452 (N.S.)	No
저소득		0.056	2.891(**)			
고소득	SD→SI	0.861	34.803(***)	-0.004	0.168 (N.S.)	No
저소득		0.865	61.085(***)			

주) CC : 컨설턴트 역량, SA : 창업태도, SN : 주관적 규범, PAE : 긍정적 기대감정, NAE : 부정적 기대감정, PBC : 지각된 행동통제, SD : 창업열망, CT : 컨설턴트 신뢰, PSG : 예비창업보증, SI : 창업의도

* p<.05, ** p<.01, *** p<.001, N.S. : Not Significant

컨설턴트 역량(CC)→주관적 규범(SN)의 경우 고소득과 저소득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010, 0.248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나, 저소득 집단의 경우 역량이 높은 컨설턴트가 Hybrid 컨설팅을 하는 경우 사회 구성원들이 Hybrid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직장인들은 급여소득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소득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컨설턴트 역량(CC)→창업열망(SD)의 경우 고소득과 저소득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302, 0.118로 주관적 규범과 다르게 고소득 집단이 컨설턴트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을 구분하는 소득의 차이로 인해 고소득 집단은 높은 급여소득으로 인해 Hybrid 창업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컨설턴트 신뢰(CT)→창업열망(SD)의 경우 고소득과 저소득 집단의 경로계수가 각각 -0.283, -0.063으로 고소득 집단에서 컨설턴트의 신뢰가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이 더욱 감소하는데, 고소득 집단일수록 신뢰가 높은 컨설턴트가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에는 더 역효과를 준다는 것이다.

바) 다중집단분석 : 기타 분류

그 외 창업의사(직장의 겸직금지가 없다면 향후 퇴직 전 Hybrid 창업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컨설팅 의향(Hybrid 창업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 창업기업 유형(개인기업, 법인기업), 직장소재지(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그 외 지역), 직장 총경력(단기-10년 미만, 장기-10년 이상)에 따라 집단을 분류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다중집단분석을 하지 못하거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창업의사(여 562개, 부 566개), 컨설팅 의향(여 803개, 부 325개), 창업기업 유형(개인기업 825개, 법인기업 303개), 직장소재지(수도권 584개, 비수도권 544개), 직장 총경력(단기 534개, 장기 594개)의 경우 StepⅡ(구성적 동일성)가 성립되지 않아 PLS-SEM의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둘째, 고용형태 표본수(정규직 1,004개, 비정규직 124개)는 집단별로 표본수 차이가 크나, 통계청(2019b)의 2019년 전국 정규직 종사자 비중이 83.1%로 본 연구의 정규직 표본수 비중(89.0%)과 차이가 크지 않아 고용형태 집단에 대하여 다중집단분석을 검토하였다. SmartPLS에서 고용형태 집단에 대하여 StepⅠ(형태적 동일성), StepⅡ(구성적 동일성), StepⅢ(합성변수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 완전한 측정 동일성을 확보함에 따라 다중집단분석을 진행하였으나,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조절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4) 기타 설문결과 분석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562명에 대하여 Hybrid 창업업종이 과거 또는 현재 직장업무와 일치하는지를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4-34]와 같다.

응답자의 약 67.3%가 과거 또는 현재 직장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Hybrid 창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Hybrid 창업시 선택할 업종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표 4-34] 향후 창업할 Hybrid 창업업종 관련 답변 결과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향후 창업할 Hybrid 창업업종이 과거/현재 직장업무와 일치 여부	예	184	32.7
	아니오	378	67.3
총 응답수		562	

상기와 반대로,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고 전제하여도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없는 566명에 대하여 Hybrid 창업을 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5]와 같다.

Hybrid 창업을 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중복 선택)로 응답자(566명) 중 ‘창업실패 가능성’ 60.1%, ‘창업아이템 부재’ 51.1%로 Hybrid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창업실패 가능성을 낮추고 Hybrid 창업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Hybrid 창업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5] 향후 Hybrid 창업할 계획이 없는 사유 관련 답변 결과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주)}
Hybrid 창업할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 (중복 선택)	금전적 여유(높은 급여, 노후재테크 등)	168	29.7
	직장의 안정적인 정년	100	17.7
	창업실패 가능성	340	60.1
	가사문제(자녀돌봄, 자녀교육 등)	42	7.4
	창업아이템 부재	289	51.1
	겸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75	13.3
	기타	16	2.8
총 응답수		1,030	

주) 중복답변 선택으로 인해 총 응답자(566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컨설팅 받을 기회가 있다면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6]과 같은데, 앞서 조사한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562명보다 더 많은 803명(전체 응답자의 71.2%)이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없는 직장인들에서 Hybrid 창업컨설팅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Hybrid 창업컨설팅 의향 관련 답변 결과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Hybrid 창업컨설팅 의향	예	803	71.2
	아니오	325	28.8
총 응답수		1,128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 803명에 대하여 Hybrid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7]과 같다.

Hybrid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중복 선택)로 응답자(803명) 중 ‘창업아이템 선정’ 69.7%, ‘사업타당성 분석’ 55.4%,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52.9% 등으로 나타나서 창업아이템 발굴, Hybrid 창업의 타당성 검토, 창업자금 조달 관련 재무컨설팅 제공 등 Hybrid창업계획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7] Hybrid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관련 답변 결과

구 분		빈도수(명)	백분율(%) ^{주)}
Hybrid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분야 (중복 선택)	창업아이템 선정	560	69.7
	사업타당성 분석	445	55.4
	회사설립절차	306	38.1
	생산(매장)관리	203	25.3
	인사관리	119	14.8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425	52.9
	마케팅/영업관리	380	47.3
	기타	2	0.2
총 응답수		2,440	

주) 중복답변 선택으로 인해 총 응답자(803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와 요약

급여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인의 추가 소득 확보, 해고 또는 정년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경제활동 준비, 직장을 다니지 않고 창업을 시도하는 전업(專業) 창업자보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시도함으로써 사업 실패에 따른 파산위험 감소 등을 위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Hybrid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Hybrid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Hybrid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행동예측이론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을 활용하여 선행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과 Hybrid 창업열망 간의 영향관계 이외에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요인들로 컨설턴트 역량, 컨설턴트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 관련 실증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턴트의 역량은 Hybrid 창업 관련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Hybrid 창업열망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기대감정과 지각된 행동통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Hybrid 창업시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하려는 호의적인 태도와 기대되는 긍정적인 감정이 높아지고 직장인들이 속한 사회구성원들인 가족, 친구, 동료들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더욱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줄 것이며,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하려는 열망도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심리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걱정, 실망 등 부정적 감정들은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에 의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부정적 감정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며, Hybrid 창업에 대해 직장인들이 지각하는 본인들의 의지,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 등 행동을 통제하는 요인들도 전담 컨설턴트 역량과 무관하게 직장인들의 각오와 현실적인 여력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컨설턴트의 신뢰는 Hybrid 창업 관련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변수들(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ybrid 창업열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어 Hybrid 창업열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가 높은 전담 컨설턴트라고 해도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Hybrid 창업컨설팅이 직장인들의 창업태도, 사회구성원들의 지지와 추천, 긍정적인 기대감정 등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컨설턴트의 역량과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Hybrid 창업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가 높은 컨설턴트가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에는 역효과를 주어 창업의도를 낮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컨설턴트의 신뢰가 높아지면 컨설팅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져 창업자들의 창업의도가 증가되기 마련이나, Hybrid 창업에서는 컨설턴트의 신뢰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Hybrid 창업 관련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상기 5가지 선행변수들은 모두 Hybrid 창업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들에게 Hybrid 창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주변사람들의 기대와 지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대감정,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 등의 행동통제 정도가 높아지면 Hybrid 창업열망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시 창업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신용보증기관의 정부보증지원을 이용한다면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Hybrid 창업시 창업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은 선택적인 것이지 Hybrid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Hybrid 창업에서 창업열망은 창업의도에 매우 큰 영향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매개효과분석에서 컨설턴트 역량이 창업열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선행변수들 중 창업태도와 긍정적 기대감정이 보완적 부분매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Hybrid 창업열망이 보완적 부분매개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조절효과분석에서는 일부 경로들 간에 성별 집단(남성, 여성), 겸직금지 집단(여, 부), 연령대 집단(저연령, 고연령),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 불안정), 가구소득 집단(고소득, 저소득)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집단(남성, 여성)의 경우 컨설턴트 신뢰→창업태도의 경로에서 여성보다 남성에서 컨설턴트 신뢰가 높을수록 창업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지각된 행동통제→창업열망의 경로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열망이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겸직금지 집단(여, 부)의 경우 컨설턴트 역량→주관적 규범의 경로에서 ‘겸직금지 여’ 집단보다 ‘겸직금지 부’ 집단에서 컨설턴트 역량이 높아질수록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집단(저연령, 고연령)의 경우 부정적 기대감정→창업열망의 경로에서 저연령 집단보다 고연령 집단에서 부정적 기대감정이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안정성 집단(안정, 불안정)의 경우 컨설턴트 신뢰→창업태도, 컨설턴트 신뢰→긍정적 기대감정의 경로에서 직장 불안정 집단보다 직장 안정 집단에서 신뢰가 되는 컨설턴트가 Hybrid 창업컨설팅을 하는 경우 Hybrid 창업을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 기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집단(고소득, 저소득)의 경우 컨설턴트 역량→주관적 규범의 경로에서 고소득 집단보다 저소득 집단에서 역량이 높은 컨설턴트가 Hybrid 컨설팅을 하는 경우 사회 구성원들이 Hybrid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컨설턴트 역량→창업열망의 경로에서는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서

컨설턴트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설턴트 신뢰→창업열망의 경로에서는 저소득 집단보다 고소득 집단에서 신뢰가 높은 컨설턴트가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열망에는 더 역효과를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면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직장인들 중 약 67.3%가 과거 또는 현재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Hybrid 창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어도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없는 직장인들은 창업실패 가능성, 창업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Hybrid 창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직장인들 중 약 71.2%가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증분석과 가설검증, 조절효과분석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과 Hybrid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컨설턴트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들이 직장을 유지하면서 창업을 하는 Hybrid 창업에 대한 국내 연구는 김진희b(2019)의 논문 이외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Hybrid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전담 컨설턴트와 컨설팅 산업을 접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Hybrid 창업을 연구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예측하는 Hybrid 창업의도를 연구하기 위해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하였지만, 기

존에 다른 연구 분야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인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턴트 신뢰를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들로 처음으로 동시에 도입하였고, Hybrid 창업 전에 지원을 하는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연구변수를 신규로 추가하여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셋째, 컨설턴트 신뢰라는 요인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업의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 분야인 Hybrid 창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컨설턴트 신뢰가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열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보였다. 신뢰라는 요인이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Hybrid 창업에서는 다른 결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활용한 Hybrid 창업에서도 기존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Hybrid 창업의도에 Hybrid 창업열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문에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열망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연구 분야에 따라 일부 선행변수들이 창업열망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Hybrid 창업에서는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부정적 기대감정, 지각된 행동통제의 선행변수들 모두가 Hybrid 창업열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 및 이를 통해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턴트 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긍정적 기대감정, Hybrid 창업열망은 증가하여 Hybrid 창업의도를 높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컨설턴트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은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를 양성한 후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Hybrid 창업 전담 컨설턴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열망을 감소시켜 Hybrid 창업의도를 낮추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창업컨설팅 분야에서 컨설턴트의

신뢰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 직장인들이 컨설턴트를 전적으로 믿고 Hybrid 창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약 70% 이상의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고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컨설팅 틈새시장인 Hybrid 창업컨설팅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컨설턴트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을 통해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Hybrid 창업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를 위해 과거 컨설팅 수행에서 신뢰도가 낮았던 컨설턴트는 창업컨설팅을 제한하는 등 컨설턴트 산업에서도 컨설턴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용보증기관들에서 시행하는 예비창업보증의 부실화 방지 및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을 위해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위한 Hybrid 예비창업보증의 시범적인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용보증기관들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준비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거나 우수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비창업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나, 창업 후 매출이 부진하여 폐업하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창업자는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파산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신용보증기관은 부실보증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2020년 COVID-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파산위험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관들의 보증부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Hybrid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직장을 유지함에 따라 급여소득이 있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며,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템이 있다면 재창업할 수도 있다. Hybrid 예비창업보증을 도입한 경우 신용보증기관들은 직장인들이 폐업하더라도 부실유보 및 채무상환 약정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어 부실화를 최소화할 수가 있으며, 직장인들이 Hybrid 재창업을 하는 경우 폐업 사업자와 재창업 사업자 간 신용보증 이전하는 방식을 통해 직장인들의 재기지원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넷째, SmartPLS의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조절효과가 있는 집단들 중 여성 집단, 고연령 집단, 직장 안정 집단, 고소득 집단에서 Hybrid 창업열망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여성 직장인들은 남성 직장인들에

비해 Hybrid 창업열망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여성 본인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연령 집단에서는 Hybrid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 기대감정이 높아질수록 Hybrid 창업 열망이 높아지는 만큼 40대~50대에 Hybrid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안정 집단인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겸직금지에 제한이 없다면 신뢰가 높은 컨설턴트를 통해 Hybrid 창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창업태도와 긍정적 기대감정을 증가시켜 Hybrid 창업열망을 높일 필요가 있는 반면, 고소득 집단에게는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를 통해 Hybrid 창업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Hybrid 창업열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유시간 활용, 경기침체 발생시 해고에 따른 생계비 감소 방지, 수명연장에 따라 퇴직 후 경제활동 독려, 사업실패에 따른 파산위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직장인들이 현재의 직장과 동일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일본과 같이 겸직금지를 해제하여 직장인들의 Hybrid 창업을 장려하고 정책적으로 정부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장 내 겸직금지가 없다면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직장인들 중 약 67.3%가 과거 또는 현재 직장에서 담당했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에서 Hybrid 창업을 원하므로 현 직장동일업종이 아니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겸직금지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하지 못하여 가족, 동업자, 종업원 등의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다수 있고 대표자와 실제경영자가 상이함에 따라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에 소홀한 편이다.

여섯째, 컨설팅업계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영세한 컨설팅업체들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 Hybrid 창업컨설팅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 내에서 겸직금지가 없어도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할 의사가 없는 직장인들은 창업실패 가능성, 창업아이템 부재 등의 이유로 Hybrid 창업할 의사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Hybrid 창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아이템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컨설턴트 양성을 해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Hybrid 창업 관련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정부지원제도와 Hybrid 예비창업보증, 기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통해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Hybrid 창업 전담 컨설턴트와 Hybrid 창업의 활성화를 제안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있고 이런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Tsai와 Bagozzi(2014)의 가상 커뮤니티에서 기여행동을 연구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 현재시점은 열망, 2주 후에는 행동의도, 1달 후에는 기여행동을 연구하는 종적 연구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도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횡단 연구에 그쳐서 종적 연구의 도입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Hybrid 창업열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활용하여 실제로 영향을 준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Hybrid 창업의도가 어느 정도 증감하였는지 측정하고 실제 Hybrid 창업한 경우 Hybrid 창업지속기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인들이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시점의 전과 후로 구분하여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가 창업열망 등에 주는 영향의 변화정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컨설턴트 역량의 구성요소들을 세분화하면 공통역량, 직무역량, 관리역량으로 구분되고, 컨설턴트 신뢰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연구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하위 구성요소들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지 못하였다. 특히, 컨설턴트 신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사유를 하위 구성요소인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를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컨설턴트 역량과 컨설턴트 신뢰의 하위 구성요소들이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에서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Hybrid 창업의도를 연구하기 위해 설문조사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 직장인과 겸직금지를 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균등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겸직금지를 하고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Hybrid 창업의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문응답의 전제조건을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겸직금지가 없어 Hybrid 창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하여 실제 Hybrid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종적 연구를 진행시 실제 Hybrid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Hybrid 창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정부지원제도로 Hybrid 예비창업보증이라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의 값이 0.1 미만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관들의 예비창업보증 이외에도 교육 지원, 인프라 지원, 직접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들을 비교하여 Hybrid 창업열망과 Hybrid 창업의도에 가장 영향력을 크게 주는 정부지원제도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Hybrid 창업의도라는 심리적인 분야만 연구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직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Hybrid 창업을 하여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을 연구하지 못하였다. Hybrid 창업을 실제하고 있거나 과거 영위한 사실이 있는 Hybrid 창업자를 대상으로 Hybrid 창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Hybrid 창업컨설팅트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인 Hybrid 창업컨설팅 수행을 위해서는 Hybrid 창업컨설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컨설팅 방법론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창업컨설팅과는 달리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Hybrid 창업컨설팅 방법론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길숙. (2010). “서비스 조직 내 감성리더십이 상사에 대한 신뢰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병승. (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성천. (2020). “중소기업 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사업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기신용보증재단. (2021).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보증상품].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gcgf.or.kr>.
-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보증상품 현황-정부 특례보증]. 검색일자: 2021. 9. 10. <https://gbsinbo.co.kr>.
- 고봉호. (2018).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적용한 특급호텔종사자의 창업의도 및 행동 : 경력지향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재운, 송학준, 유은이. (2014).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와인 구매 의도 예측. 『관광학연구』, 38(4), 11-36
- 공성배, 강민철, 권지영. (2018). 용무도 수련생의 지도자 신뢰와 운동열정 및 선수만족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0(3), 87-98.
- 곽동신. (2020). “멘토 역량 및 멘토링 기능이 다차원 신뢰와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재민. (2017). “경영컨설팅 성과에 역량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파트너링과 프로젝트 신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지은, 전병길. (2015). 창업자기효능감, 일가치 및 창업지원서비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커피전문점 창업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1(6), 1-13.

- 권영순. (2020). “대학생의 목표 지향적 행동모델이 자기결정성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Big 5 성격요인 매개효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기술보증기금. (2021).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정보공개-내부규정].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kibo.or.kr>.
- 기홍석. (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길형철. (2019). “스마트 공장 수용 요인과 성과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 TOE 및 IS성공모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용, 김명섭, 이채언, 이용희. (2008). 『비즈니스 컨설팅서비스의 이해와 활용』. 서울: 도서출판 청람.
- 김광희. (2016). “이벤트 MC역량이 감정반응, 관람만족과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웅. (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여가제약 : 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관람객의 의사결정과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다니엘. (2021). “주얼리 소비자의 열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달곤. (2008). 불확실성하의 조직내 신뢰와 통제시스템간의 관계. 『국제회계연구』, 23, 43-60.
- 김대은, 남광우, 조건상. (2019). 체조선수의 지도자신뢰와 운동성과 및 운동열정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 17(4), 1329-1337.
- 김대희. (2018). “도매여행사의 브랜드 자산과 관계마케팅이 소매여행사의 신뢰, 관계만족 및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현, 최병권. (2018). 인지기반 및 정서기반 상사 신뢰가 부하의 감정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부하 성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21(2), 31-59.

- 김동호. (2018).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신뢰가 구성원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내 강소기업의 성장요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식. (2014). “패밀리레스토랑 이용자의 휴리스틱 선택행동 연구 : 합리적 행동이론 적용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비교”.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문준. (2015). “컨설턴트 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경영자 특성과 조직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 (2012). “외식 컨설턴트의 역량이 창업과정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연. (2021). “객실승무원의 서번트 리더십이 리더신뢰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사업. (2016). “외식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소비자 동일시, 기업이미지, 신뢰,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우. (2017). “해양관광 참여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기. (2021). “경영컨설턴트의 역량과 서번트 리더십이 컨설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호. (2018). “컨설턴트 역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7). “외식기업의 브랜드 풍문이 신뢰, 브랜드 애착, 그리고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지. (2019). [뉴스워커_이슈 추적] 퇴근 후 직장인.. 유튜브 활동 금지? 검색금지 조항 보니. 『뉴스워커』. 검색일자: 2021. 10. 15. <http://www.newsworker.co.kr>.
- 김익수, 김병구. (2010). 본사의 기업문화, 본-자회사간 신뢰 및 커뮤니케이션

- 이 자회사 통제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13(3), 35-58.
- 김재정. (2018). “건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 및 직무몰입의 조절효과”.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곤. (2017).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래. (2020).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지원기대와 과업기술적합도를 포함하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 (2013). “불평태도와 예상정서가 불평의도에 미치는 영향 : 불평열망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 (2013). “한국 서비스업 직장인의 긍정심리자본과 도전정신이 창업자 신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서비스전문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휘. (2019). “외식 컨설턴트 역량이 소상공인 컨설팅 만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a. (2019). “외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외식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b. (2019). “직무만족과 창업 자기효능감이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선행인식의 매개효과와 위험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 전유정. (2021). 관광지의 증강현실 원격실재감이 관심, 몰입, 열망, 추천의도 및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 AIDA 모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7), 21-33.
- 김초하. (2021).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공공지원의 효과 분석 : 긍정심리자본, 주관적 웰빙, 예술지속의도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김향민. (2017). “친환경차의 선택속성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원. (2021a). [투잡시대 온다] ① 부업 활성화로 경제 활력 복돋는 일본. 『IT 조선』. 검색일자: 2021. 10. 17. <http://it.chosun.com>.
- 김형원. (2021b). [투잡시대 온다] ④ 부업 허용 日기업 49.5%. 『IT 조선』. 검색일자: 2021. 10. 17. <http://it.chosun.com>.
- 김후진. (2014). “경영컨설팅서비스와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일범. (2021). “중국 태권도 수련생이 인지하는 관계혜택이 관계신뢰, 관계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대구신용보증재단. (2021).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보증상품 소개-특별보증].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ttg.co.kr>.
- 린하이보. (2020).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 조절초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형준, 김태형, 임춘성. (2010). 컨설팅 역량 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9(2), 93-106.
- 민혜영, 신나리. (2019). 어머니의 코칭역량과 유아의 자율성이 의도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3, 27-39.
- 박국근, 하규수. (2020). 직장인의 직무수행능력, 노후준비도, 미래불안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연구 : 퇴직후 삶에 대한 또 다른 성공기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6), 167-187.
- 박대한, 성창수. (2019). 대학 창업교육 이수 학생들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및 기업가적 의도와의 관계 연구 : 일반대학 vs. 전문대학 차이검증. 『취업진로연구』, 9(3), 91-110.
- 박두수. (2021). “유네스코 유산지의 체험요소가 장소성과 몰입 그리고 관광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구조연구 :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을 활용하

- 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상금. (2016).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상이 소비자 태도 및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 호혜와 신뢰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중. (2020).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스포츠 참여자의 구매의도 분석 :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관점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소현, 이국희. (2009). IT 컨설턴트의 컨설팅 역량 : 컨설턴트와 고객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11(1), 107-132.
- 박애준. (2021). “베이비붐 세대의 실버타운 입주 의도 영향요인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적용”.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용호, 홍유리, 강지훈, 임혜경. (2020). 대학생 역량개발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 665-692.
- 박준기, 조철현, 김한별, 이정우. (2013). IT 컨설팅에서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에 관한 연구.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12(3), 39-54.
- 박준환. (2015). “컨설팅 서비스품질과 컨설턴트 역량이 컨설팅 성과와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2021). “1인가구의 건강식메뉴가 자기애적 심리성향에 따라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호. (2019). “조리전공자의 프로티언 경력태도가 주관적 경력성공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경력개발지원의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해소. (2019).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지역음식축제 참여자들의 행동의도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 (2021). '월화수목토토토?' 직장인의 꿈 실현될까...대선 앞두고 '주4일제' 논의 '술술'. 『아시아경제』. 검색일자: 2021. 9. 28. <http://www.>

w.asiae.co.kr.

- 박혜성, 박우진, 배병윤. (2020). 강점인식이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직장인을 대상으로. 『벤처창업연구』, 15(1), 143-150.
- 박희량. (2011). 목표지향 행동모델을 적용한 인터넷 구매행동의 이해 : 인지 욕구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2(2), 67-95.
- 방미란. (2013). “학교 교육과정 컨설턴트의 역량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8).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제2판).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용섭. (2013). “경영컨설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컨설턴트의 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 컨설팅사 및 수진기업 특성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1).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용보증-보증상품 안내-신용보증상품집].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busansinbo.or.kr>.
- 서경도. (2021). 환대산업 종사원의 조직지원이 종사원열정과 관계의 질간의 영향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117-124.
-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 『소상공인 창업기업』 [신용보증-보증상품].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seoulshinbo.co.kr>.
- 서창적, 이지은, 김승철. (2011). 경영 컨설팅 역량모델에 관한 연구 : 대기업·중소기업 컨설팅 역량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135-155.
- 서해란. (2017).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 장소애착도를 추가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의 적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권섭. (2011). “전문병원 역량이 고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감정적 애착과 고객만족의 매개효과 및 접근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

- [소식&알림-공지사항].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sbiz.or.kr>.
- 손환진. (2018). “컨설턴트의 컨설팅역량과 슈퍼리더십, 참여자의 셀프리더십과 컨설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
- 송창운, 박주영. (2020). 직장인의 기업가형 마인드셋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본을 매개, 유지-행동성향을 조절변수로. 『벤처창업연구』, 15(3), 73-88.
- 송학준, 이충기. (201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 방문객의 행동의도 예측. 『관광레저연구』, 22(5), 341-360.
- 신건권. (2018). 『석박사학위 및 학술논문 작성 중심의 SmartPLS 3.0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신동주. (2015). “컨설턴트의 친사회적 서비스 활동이 관계성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배태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동주, 유연우. (2014). CEO 지원을 조절효과로 프로젝트 매니저 역량이 컨설턴트의 윤리적 태도와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5), 191-201.
- 신용보증기금. (2021).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정보공개-사규공개].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kodit.co.kr>.
- 신재훈. (2019). “경영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팅 수진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수진기업 컨설팅 수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나. (2010). “IPTV 사용 환경에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사용자의 신뢰, 감정,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도희, 김유리. (2015). 교직이수 학생들의 교직핵심역량, 교수능력 및 교직전문성 열망 간의 관계. 『교원교육』, 31(1), 203-226.

- 안상윤. (2020).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선택속성이 이용의도 의사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순희. (2017). “진정성 리더십이 부하의 이직의도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와 팔로워십의 조절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필용. (2014).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현균, 최대혁. (2015).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이 열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33, 99-112.
- 안희수, 양동우. (2019). 기업가적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4, 378-410.
- 양승광, 송유진. (2018).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역량(CA)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제품태도의 매개효과와 기업명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7(2), 1-21.
- 양승탁, 이승곤, 유진룡. (2018).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12), 195-211.
- 양은주, 조민호. (2015). 중국인 미용성형관광 행동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9(6), 47-64.
- 양종희. (2018). “외식프랜차이즈 조직의 공정성이 관계결속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 : 신뢰를 매개변수로”.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혜선. (2016). “카지노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상사신뢰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상호작용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희. (2020). “기업의 신뢰와 기업가정신, 혁신역량이 상생협력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시장지향성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

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우현. (2016). “경영컨설턴트 역량 및 컨설팅완성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민정. (202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적용한 직업가치가 직업선택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 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조, 송영욱, 성민. (2002). 프랜차이즈 경로상에서 관계규범, 거래특유투자, 그리고 신뢰가 결속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39(1), 47-73.
- 오종열. (2017). 정부의 금융, 경영, 기술지원 등 창업인프라 지원제도가 문화 콘텐츠 전공 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7), 407-414.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경선. (2019). “국회의원 보좌진의 조직신뢰가 직무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근준. (2014).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오파크 관광객의 의사결정 과정 연구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병선, 김천규. (2020). 비즈니스 역량이 창직 의지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 열정의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9), 318-331.
- 윤성희. (2017). “컨설턴트의 언어적,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이 신뢰, 고객만족 및 장기적 관계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은숙. (2016).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서비스역량이 고객감정반응 및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준. (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마리나 요트 탑승객의 체험요소, 몰입,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 이광호, 김정희. (2013).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조직에서 사회복지사의 관계
규범이 신뢰, 관계결속, 관계자산,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
구』, 28, 299-330.
- 이경식. (2018). “상업공간 디자인컨설팅역량이 프로젝트성과에 미치는 영향
: 컨설팅역량을 조절효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규상. (2021). “복합리조트의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따른 진정성이 기업평판
과 기업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옥. (2020). “외식창업자의 기능적 역량과 심리적 역량이 경영성과 및 사
업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극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용, 강경구. (2019).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 역량, 다문화
태도, 다문화 교수효능감 간의 구조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 19(20), 409-428.
- 이나리. (2021). 은행 빚 유예 세번째 연장...“차기 정권에 부실 떠넘겨” 반발.
『뉴데일리경제』. 검색일자: 2021. 10. 2. <http://biz.newdaily.co.kr>.
- 이명훈. (2016). 기술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중학생의 기술학습효과에 미
치는 영향 : 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22(1), 277-291.
- 이보순, 박기홍. (2019). 목표지향적 외식전문점 이용 고객의 열망이 경험적
가치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5(1), 70-80.
- 이봉휘. (2020). “경영컨설팅트의 역량이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길. (2018).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
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봉. (2021). “혁신형 중소기업의 컨설팅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흡수역량을 조절효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호. (2021). “중산층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도 영향요인 구조 분석 연구-

-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새롬, 김수정. (2020). 『대중부유층(Mass Affluent)의 자산관리와 디지털 금융 이용 행태』. 서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이옥선. (2018).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통한 나 혼자 여행 행동 의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일현. (2014). 『EasyFlow 회귀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이재열. (2018). “PLS 다중집단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공공제도 품질모형의 개발과 적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창수. (2016). “건설기술자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 이론(TPB)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성수. (2021). “컨설턴트 역량이 외식기업 구성원의 지각된 가치, 자기 효능감 그리고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자율성, 혁신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몽교, 이승신, 류미현. (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소비자 불매운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6), 675-687.
- 장몽교. (2019). “목표지향행동모델을 적용한 한·중 소비자의 O2O서비스 불평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호. (2019). “기술기반셀프서비스(TBSS) 편의성, 기업신뢰, 위험인식, 고객의 장기지향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유진, 이병희. (2019). 직장인의 기업가 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7), 497-511.
- 전달영, 김홍선. (2006). 산업재 물류에서 환경 불확실성과 물류자원역량이 관계규범과 물류서비스를 통하여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ASIA Marketing Journal』, 8(1), 105-132.
- 정문일. (2019). “특허 컨설팅 서비스가 특허 서비스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 :

- 신뢰와 만족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상욱. (2019). “프로배구단의 공유가치창출(CSV)과 구단신뢰, 구단감정, 구단이미지 및 공동체의식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소. (연도미상). 21세기 정치학대사전. 검색일자: 2021. 10.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8400&cid=42140&categoryId=421403>.
- 전우소. (2017). “컨설턴트선정기준이 컨설턴트역량지각, 컨설팅 완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덕화. (2018).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635-646.
- 정미라. (2018).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의 컨설팅 서비스 품질과 정부신뢰가 컨설팅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용. (2016). “노조지도자의 역량요소가 노조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사 파트너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찬영. (2021). “대학생과 시니어의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상리. (2019). 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직무열정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감사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8(3), 21-34.
- 조선배. (2020). 호텔식당 상사지원이 부하직원의 직무열정과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6), 279-285.
- 조원영. (2019). “1인가구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제로 웨이스트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경기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정란. (2020).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현구. (2015).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서번트 리더십, 상사신뢰, 구성원의 직무태도, 조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주영석, 이동희. (2019). 중소 금속가공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 요인 연구. 『대한산업공학회지』, 45(1), 70-80.

중소벤처기업부. (2007). 중기청, 국내 중소 컨설팅사가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성장단계별 모형 및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1. 9. 4. <http://www.mss.go.kr>.

중소벤처기업부. (2021).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대전: 중소벤처기업부.

진영권. (2020). “관계마케팅의 실행요소가 신뢰와 고객자산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TV제품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진재수, 조환기, 조선배. (2017). 조직지원이 종사원열정과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조직신뢰의 역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6(4), 29-40.

창업진흥원. (2016-2019). 『2016-2019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검색일자: 2021. 3. 1.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

창업진흥원. (2020a).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검색일자: 2021. 10. 17.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

창업진흥원. (2020b). 『2020년 창업기업 실태조사(‘18년 기준)』. 검색일자: 2021. 10. 17.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

천부기. (2021).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신뢰, 브랜드자산과 프리미엄

- 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대수, 성창수. (2017). 정보기술역량과 창업태도 및 창업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 IT 서비스학회지』, 16(1), 27-39.
- 최명화. (2015). “중년 직장인의 퇴직 후 개인특성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서연. (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영양지식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양림. (2013). “직장인들의 은퇴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영희. (2018). “여자 유도선수가 인지하는 지도자신뢰, 스포츠동기, 운동열정, 선수생활 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지미. (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활용한 음식관광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창호. (2014). “고객과 컨설턴트 간의 유대관계가 컨설팅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충남신용보증재단. (2021).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특화보증』 [신용보증-보증상품-특례보증]. 검색일자: 2021. 9. 10. <https://www.cnsinbo.co.kr>.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성별/직업(중분류)별/연령별 취업인구(15세 이상)- 시도]. 검색일자: 2021. 5. 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D1505&conn_path=I3.
- 통계청. (2019a).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검색일자: 2021. 5. 2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1&conn_path=I3.
- 통계청. (2019b). 『전국사업체조사』 [시도·산업·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06~)]. 검색일자: 2021. 10. 1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4&conn_path=I3.

- 통계청. (2019c). 『서비스업조사』 [시도·산업·매출액규모별 현황]. 검색일자: 2021. 10. 1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B9003&conn_path=I3.
- 통계청. (2020a). 2019년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1. 10. 17. <http://kostat.go.kr>.
- 통계청. (2020b).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검색일자: 2021. 10. 9. <http://kostat.go.kr>.
- 하환호, 변충규. (2014). 창의적 성격특성과 역량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9, 1-22.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연도미상). 정보통신용어사전. 검색일자: 2021. 10. 2. <http://word.tta.or.kr>.
- 한수규. (2012). “일자리창출 컨설턴트의 IT 및 관리 역량, 고객지향성, 업무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을경. (2014). “레스토랑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창수. (2019). “컨설턴트와 클라이언트의 신뢰관계와 파트너십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감정이입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은주. (2015). “관계혜택이 고객만족, 신뢰,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 미용의료시장 고객성격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관식. (2018). “음식관광동기에 따른 음식관광 행동의도의 영향요인 분석 :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무궁. (2020).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한 박물관 생태계 활성화 전략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혜진. (2021). 부도보다 무서운 실직...‘직장인 파산’ 늘었다. 『매일경제』. 검색일자: 2021. 4. 2. <http://www.mk.co.kr>.

- 황규삼. (2017). “외식창업자의 창업교육이 학습전이효과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창업지원정책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성하. (2014). 인문, 사회과학편-중등학생의 체육교사 신뢰가 운동열정, 동일시 및 체육교과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3(5), 93-110.
- 황정현. (2013). “가맹점사업자의 관계가치가 관계만족, 신뢰, 협력 및 순응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외식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후츠. (2016).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적용한 중국인의 한국음식관광행동의도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 Sarstedt, M. (2014). 『PLS 구조모델의 이해 : Basic』. (김장현, 심경환, 이철성 옮김). 고양: 피앤씨미디어. (원전 발행년 2014).
-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연도미상). 시사상식사전. 검색일자: 2021. 10. 2. <https://terms.naver.com/list.naver?searchId=au723>.

2. 국외문헌

- Albers, A. J. (2014). *Consulting projects : what really matters :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ccess of management consulting projects*. Doctoral dissertation., Vrije University Amsterdam.
- Alghfeli, A. H., Khalifa, G. S., Alareefi, N. A., Alkathiri, M. S., Alsaadi, T. A., & Alneadi, K. M. (2020). The influence of Service Quality and Trust in Consultant on PMC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City University eJournal of Academic Research*, 2(2), 175–190.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Kuhl J. & Beckmann J. (eds) *Action Control*. SSSP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gy.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1–458.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ögenhold, D. (2019). From hybrid entrepreneurs to entrepreneurial billionaires : Observations on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self-employ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3(2), 129–146.
- Boyatzis, R., & Ratti, F. (2009). Emotional, social and cognitive intelligence competencies distinguishing effective Italian managers

- and leaders in a private company and cooperatives. *The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8(9), 821–838.
- Burmeister–Lamp, K., Lévesque, M., & Schade, C. (2012). Are entrepreneurs influenced by risk attitude, regulatory focus or both? An experiment on entrepreneurs' time allo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4), 456–476.
- Campbell, J. R., & De Nardi, M. (2009). A conversation with 590 nascent entrepreneurs. *Annals of Finance*, 5(3), 313–340.
- Carrus, G., Passafaro, P., & Bonnes, M. (2008). Emotions, habits and rational choices in ecological behaviours: The case of recycling and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1), 51–62.
- Catano, V., Pond, M., & Kevin Kelloway, E. (2001). Exploring commitment and leadership in volunteer organizations.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2(6), 256–263.
- Chai, J. C. Y., Malhotra, N. K., & Alpert, F. (2015). A two-dimensional model of trust–value–loyalty in service relationship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26, 23–31.
- Cheah, J. H., Thurasamy, R., Memon, M. A., Chuah, F., & Ting, H. (2020). Multigroup analysis using SmartPLS: step-by-step guidelines for business research. *Asia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ume*, 10(3), 1–19.
- Chin, W. W.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 Chin, W. W., & Dibbern, J. (2010). *An introduction to a permutation based procedure for multi-group PLS analysis: Results of tests of differences on simulated data and a cross cultural analysis of the sourcing of information system services between Germany and the*

- USA. In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pp. 171–193). Springer, Berlin, Heidelberg.
- Chiu, W., & Choi, H. (2018). Consumers' goal-directed behavior of purchasing sportswear products online A case study of chinese consumers. *Sport, Business and Management*, 8(2), 118–133.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3), 297–334.
- Dijkstra, T. K., & Henseler, J. (2015). Consistent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MIS quarterly*, 39(2), 297–316.
- Dirks, K., & Ferrin, D. (2001). The Role of Trust in Organizational Settings. *Organization Science (Providence, R.I.)*, 12(4), 450–467.
- Fatima, J., & Razzaque, M. (2014). Roles of Trust on Rapport and Satisfaction in Services.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6(4), 566–578.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 Ferreira, C. C., Lord Ferguson, S., & Pitt, L. F. (2019). Entrepreneurial marketing and hybrid entrepreneurship : the case of JM Reid Bamboo Rods.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35(9–10), 867–885.
- Ferreira, C. (2020).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hybrid entrepreneurship : Factors influencing the transition to full-tim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 Research*, 26(8), 1845–1863.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u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ry, M. L., Drennan, J., Previte, J., White, A., & Tjondronegoro, D. (2014). The role of desire in understanding intentions to drink responsibly An application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30(5-6), 551-570.
- Folta, T. B., Delmar, F., & Wennberg, K. (2010). Hybrid entrepreneurship. *Management Science*, 56(2), 253-269.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eisser, S. (1974). A predictive approach to the random effect model. *Biometrika*, 61(1), 101-107.
- Giovannini, C., Ferreira, J., Da Silva, J., & Ferreira, D. (2015). The effects of trust transference, mobile attributes and enjoyment on mobile trust. *BAR, Brazilian Administration Review*, 12(1), 88-108.
- Gold, A. H., Malhotra, A., & Segars, A. H. (2001). Knowledge management: A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8(1), 185-214.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ir Jr, J. F., Hult, G. T. M., Ringle, C., & Sarstedt, M. (2017).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2nd ed.)*. Los Angeles : SAGE.
- Hair Jr, J. F., Sarstedt, M., Ringle, C. M., & Gudergan, S. P. (2018). *Advanced issues i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os Angeles : SAGE.
- Han, Y., Kwon, S., Chung, J., & Son, J. (2017). The effects of the

- innovation types of venture firms and government support on firm performance and new job cre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Academy o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2), 1–14.
- Henseler, J., Ringle, C., & Sinkovics, R. (2009).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in international marketing. *In New Challenges to International Marketing*, 20, 277–319.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5). A new criterion for assessing discriminant validity in variance-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3(1), 115–135.
- Henseler, J., Ringle, C. M., & Sarstedt, M. (2016).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of composites using partial least square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33(3), 405–431.
- Holevová, B. (2018). The role of prevolitional processes in video game playing A test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and the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14(4), 932–948.
- Hoque, A. S. M. M. (2018). Does government support polic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angladeshi SME performance? A SEM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Studies*, 6(3), 37–59.
- Hrebiniak, L., & Alutto, J. (1972). Personal and Role-Related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4), 555–573.
- Jin, M., Choi, Y., Lee, C., & Ahmad, M. (2020). Effects of place attachment and image on revisit intention in an ecotourism destination Us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ustainability (Basel, Switzerland)*, 12(18), 7831.

- Johnson, D., & Grayson, K. (2005).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in service relationship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4), 500–507.
- Keil, M., Tan, B. C., Wei, K. K., Saarinen, T., Tuunainen, V., & Wassenaar, A. (2000). A cross-cultural study on escalation of commitment behavior in software projects. *MIS quarterly*, 299–325.
- Kim, M., & Hall, C. (2019). Can Co-Creation and Crowdfunding Types Predict Funder Behavior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ustainability (Basel, Switzerland)*, 11(24), 7061.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urczewska, A., Mackiewicz, M., Doryń, W., & Wawrzyniak, D. (2020). Peculiarity of hybrid entrepreneurs – revisiting Lazear’s theor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21(1), 277–300.
- Lazear, E. (2005). Entrepreneurship. *Journal of Labor Economics*, 23(4), 649–680.
- Levin, D. Z., & Cross, R. (2004). The Strength of Weak Ties You Can Trust : The Mediating Role of Trust in Effective Knowledge Transfer. *Management Science*, 50(11), 1477–1490.
- Lewis, J.,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967–985.
- Liñán, F., & Chen, Y. W. (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Luc, S., Chirita, G. M., Delvaux, E., & Kepnou, A. K. (2018). Hybrid

- entrepreneurship : Employees climbing the entrepreneurial ladder. *International Review of Entrepreneurship*, 16(1), 89–114.
-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Chichester : Wiley.
- Marshall, D. R., Davis, W. D., Dibrell, C., & Ammeter, A. P. (2019). Learning off the job : Examining part-time entrepreneurs as innovative employees. *Journal of Management*, 45(8), 3091–3113.
-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cAllister, D. J. (1995). Affect-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1), 24–59.
- McKenzie, S., Coldwell-Neilson, J., & Palmer, S. (2017). Inform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IT students by understanding their career aspirations and skill development action plans. *Australia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1), 14–23.
- McLachlin, R. D. (1999). Factors for consulting engagement success. *Management decision*, 37(5), 394–402.
- Moorman, C., Zaltman, G., & Desphande, R. (1992). Relationship Between Provider and Users of Marketing Research : The Dynamic of Trust Within and Between Relationship.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Aug, 29, 81–101.
- Moriano, J. A., Gorgievski, M., Laguna, M., Stephan, U., & Zarafshani, K. (2012). A cross-cultural approach to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2), 162–185.
- Nickols, F., & Bergholz, H. (2013). The Consultant's Competency Circle: A Tool for Gauging Your Success Potential as an Independent Consultant. *Performance Improvem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 Performance Improvement*), 52(2), 37–41.
- Nordström, C., Sirén, C. A., Thorgren, S., & Wincent, J. (2016). Passion in hybrid entrepreneurship :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teams and tenure. *Baltic Journal of Management*, 11(2), 167–186.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 McGraw Hill.
- Parry, S. B. (1996). The quest for competencies. *Training*, 33(7), 48–54.
- Perugini, M., & Bagozzi, R. P. (2001). The role of desires and anticipated emotions in goal-directed behaviou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1), 79–98.
- Phillips, J. (2006). *How to Build a Successful Consulting Practice*. New York : McGraw-Hill.
- Pollack, J. M., Carr, J. C., Michaelis, T. L., & Marshall, D. R. (2019). Hybrid entrepreneurs' self-efficacy and persistence change : A longitudinal explor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12, e00143.
- Raffiee, J., & Feng, J. (2014). Should I quit my day job : A hybrid path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7(4), 936–963.
- Ratna Indudewi, F. Y. (2015). Success factors of hybrid entrepreneur : Case study of Universitas Ciputra academician.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5), 84–90.
- Rousseau, D., Sitkin, S., Burt, R.,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Rynning, M. (1992). Successful consulting with small and medium-sized vs. large clients meeting the needs of the client.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1(1), 47–60.
- Sako, M. (1992). *Prices, Quality and trust : Inter-Firm Relations in*

Britain and Japa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rstedt, M., Henseler, J., & Ringle, C. M. (2011). Multigroup analysis in partial least squares (PLS) path modeling: Alternative methods and empirical results. *In Measurement and research methods in international marketing*, 20, 195–218.
- Setó-Pamies, D. (2012). Customer loyalty to service providers : Examining the role of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trust.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 23(11–12), 1257–1271.
- Setyobudi, W., Wiryono, S., Nasution, R., & Purwanegara, M. (2016). The efficacy of the model of goal directed behavior in explaining Islamic bank saving. *Journal of Islamic Marketing*, 7(4), 405–422.
- Schulz, M., Urbig, D., & Procher, V. (2016). Hybrid entrepreneurship and public policy : The case of firm entry deregul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3), 272–286.
- Schulz, M., Urbig, D., & Procher, V. (2017). The role of hybrid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multiple job holders' earnings struct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7, 9–14.
- Shaffer, J. P. (1995). Multiple hypothesis test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1), 561–584.
- Shevlin, M., & Millar, R. (2006). Career education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to career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school pupil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1), 141–153.
- Shin, G., Ahn, J. H., & Kim, T. (2013). IPTV in Korea—The effect of perceived interactivity on trust, emotion, and continuous use intention.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3(3), 55–76.
- Simon, A., & Kumar, V. (2001). Clients' views on strategic capabilities

- which lead to management consulting success. *Management Decision*, 39(5/6), 362–372.
- Solesvik, M. Z. (2017). Hybrid entrepreneurship : how and why entrepreneurs combine employment with self-employment.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7(3), 33–41.
- Song, H. J., Lee, C. K., Kang, S. K., & Boo, S. J. (2012). The effec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erceptions on festival visitors' decision-making process using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ourism Management*, 33(6), 1417–1428.
- Spencer, L. M., & Spencer, P. S. M. (1993). *Competence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tone, M. (1974). Cross-validators choice and assessment of statistical predic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36(2), 111–133.
- Sundaram, D., & Webster, C. (2000). The role of nonverbal communication in service encounters. *The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4(5), 378–391.
- Teo, T. S., Srivastava, S. C., & Jiang, L. I. (2008). Trust and electronic government success: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5(3), 99–132.
- Thorgren, S., Nordström, C., & Wincent, J. (2014). Hybrid entrepreneurship : the importance of passion. *Baltic Journal of Management*, 9(3), 314–329.
- Thorgren, S., Sirén, C., Nordström, C., & Wincent, J. (2016). Hybrid entrepreneurs' second-step choice :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intention to enter full-time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Insights*, 5, 14–18.
- Tsai, H. T., & Bagozzi, R. P. (2014). Contribution behavior in virtual

- communities :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influences. *Mis Quarterly*, 38(1), 143–164.
- Viljamaa, A., Varamäki, E., & Joensuu-Salo, S. (2017). Best of both worlds? Persistent hybri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25(04), 339–359.
- Wei, J., & Liu, Y. (2015). Government support and firm innovation performance Empirical analysis of 343 innovative enterprises in China. *Chinese Management Studies*, 9(1), 38–55.
- Welch, B. L. (1947). The generalization of ‘student’s’ problem when several different population variances are involved. *Biometrika*, 34(1/2), 28–35.
- Werts, C. E., Linn, R. L., & Jöreskog, K. G. (1974). Intraclass reliability estimates: Testing structural assumption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34(1), 25–33.
- Xi, G., Block, J. H., Lasch, F. Robert, F., & Thurik, R. (2017). Mode of entry into hybrid entrepreneurship : new venture start-up versus business takeover. *International Review of Entrepreneurship*, 16(2), 217–240.
- Xu, W., Youn, H., & Lee, C. (2021). Role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for COVID-19 in cruise tourists’ decision-making process An extended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ustainability (Basel, Switzerland)*, 13(10), 5552.
- Yun, K. H., You, Y. Y., Park, I. C., & Park, H. S. (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Pre-knowledge of Office Workers on the Hybrid Start-up Inten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6), 83–98.
- Yunita, T. (2021). The Hybrid Entrepreneurs Are Still Working Ambiguously : Will They Have Innovative Behavior. *SAR*

Journal–Science and Research, 4(2), 52–57.

Zhao, X., Lynch Jr, J. G., & Chen, Q. (2010). Reconsidering Baron and Kenny: Myths and truths about mediation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2), 197–206.

Zur, A., Leckie, C., & Webster, C. M. (2012).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between Australian exporters and their overseas buyers.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AMJ)*, 20(1), 73–79.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의 목적은 국내 급여생활자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 모델(MGB :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를 적용하여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Hybrid 예비창업보증이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직장인의 Hybrid 창업의도에 대한 학문적 기여는 물론, Hybrid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담 컨설턴트와 정부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조사·분석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박사과정

지도교수 : 유 연 우

연구자 : 윤 경 호

이 메 일 : khyun@hansung.ac.kr

※ 본 설문지에 응답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신 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Hybrid 창업(Hybrid Start-up)은 현 직장에서 기본적인 급여생활자로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국내는 정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겸직금지(현 직장 이외 다른 직업을 금지) 조항이 있어 현실적으로 Hybrid 창업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Hybrid 창업의 경우 본인 명의로 하는 창업은 물론, 본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만 배우자/부모/자녀/동업자 명의 등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Hybrid 창업은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Part-Time 창업 또는 Two-Job 창업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Part-Time 창업 : 퇴근 후 여유시간 또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창업 (예) 유튜버, 프리랜서 VJ, 웹툰 작가 등

Two-Job 창업 :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Full-Time으로 사업을 하지만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 시간에는 종업원, 가족 등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창업

▷ Hybrid 창업을 하는 임금 근로자는 현 직장의 임금 근로자 상태에서 겸직 또는 휴직을 통해 본인의 취미와 특기 등을 활용한 창업을 시도할 수 있으며, 사업실패가 예상되거나 사업재능이 없는 창업자는 창업을 포기하여도 현 직장의 임금 근로상태로 복귀(휴직시) 또는 유지할 수 있어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와 생계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ybrid 창업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여유시간을 활용한 Hybrid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진흥원이 조사한 2019년 창업 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겸직 및 휴직상태에서 창업한 비율이 전체 창업의 약 31.9%에 이르고 있어 Hybrid 창업은 중요한 창업의 형태입니다.

▷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국내 급여생활자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MGB :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를 적용하여 Hybrid 창업 관련 전담 컨설턴트의 역량과 신뢰,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Hybrid 창업 관련 예비창업보증이 직장인의 Hybrid 창업열망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비정규직과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인간의 수명연장에 따른 경제활동의 수단 등으로 Hybrid 창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Hybrid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담 컨설턴트와 정부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에서 겸직금지가 없어 Hybrid 창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확인] 귀하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십니까?
 ① 예 (이후 설문을 순차적으로 진행) ② 아니오 (설문대상자가 아니므로 설문을 생략)

《유의사항》 아래의 설문은 귀하께서 다니시는 직장에서 겸직금지가 없어 Hybrid 창업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태도” 관련 문항입니다. “태도”는 Hybrid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ybrid 창업 : 퇴직상태가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창업(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창업, Part-Time 창업 포함)하는 것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유용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매력적인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도전적인 행동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 관련 문항입니다. “주관적 규범”은 Hybrid 창업에 영향을 주는 주변 집단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찬성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2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추천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6	주변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은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정” 관련 문항입니다. “긍정적 기대감정”은 Hybrid 창업을 함에 따른 기대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2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흥분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6	내가 Hybrid 창업을 한다면 나는 자신감이 넘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정” 관련 문항입니다. “부정적 기대감정”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함에 따른 기대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걱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2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우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4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화가 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5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부끄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6	내가 Hybrid 창업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슬플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 관련 문항입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Hybrid 창업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5-2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5	나는 Hybrid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6	내가 Hybrid 창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열망” 관련 문항입니다. “열망”은 Hybrid 창업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심리적 동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나는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하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6-2	나는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하기를 열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6-3	나는 Hybrid 창업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4	나는 Hybrid 창업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는 Hybrid 창업을 통하여 성공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6	Hybrid 창업을 하려는 나의 의지는 열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행동의도” 관련 문항입니다. “행동의도”는 Hybrid 창업이라는 행동을 하려는 의도 정도를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나는 앞으로 Hybrid 창업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2	나는 가까운 미래에 Hybrid 창업할 의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3	나는 향후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Hybrid 창업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4	나는 퇴직하기 전에 Hybrid 창업을 시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5	나는 Hybrid 창업을 주변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6	나는 Hybrid 창업 준비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컨설턴트 역량” 관련 문항입니다. “컨설턴트 역량”은 Hybrid 창업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의 공통역량(기본적 자질), 직무역량(컨설팅 전문 지식), 관리역량(컨설팅 수행 관리능력)진행을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관련 직장인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2	컨설턴트는 직장인의 Hybrid 창업을 컨설팅하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3	컨설턴트는 전문가로서 Hybrid 창업 컨설팅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4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5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컨설팅 수행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 능력 및 대안제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6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하거나 핵심적인 문제파악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7	컨설턴트는 주어진 기간 내에 Hybrid 창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8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관련 지원, 정보획득,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직장인과의 관계구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9	컨설턴트는 Hybrid 창업 컨설팅 성과를 위해 직장인에 대한 코칭과 임파워먼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컨설턴트 신뢰” 관련 문항입니다. “컨설턴트 신뢰”는 Hybrid 창업을 위한 전담 컨설턴트의 인지적 신뢰(이성적 관점에서의 신뢰)와 정서적 신뢰(감정적 관점에서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Hybrid 창업 컨설팅에 대해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능력과 현실적인 태도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2	컨설턴트의 Hybrid 창업 관련 능력과 직무에 대해 의심이 없을 정도로 컨설턴트의 경력은 충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3	컨설턴트는 경솔한 실수로 인해 직장인의 Hybrid 창업이 어렵게 되지 않을 것이라 신뢰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4	컨설턴트는 직장인과 서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감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5	컨설턴트는 직장인이 Hybrid 창업 관련 문제를 의논하기 원한다면 진심으로 다하여 조언을 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6	컨설턴트는 직장인과 자유롭게 서로의 아이디어, 감정, 요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Hybrid 창업에 대한 “예비창업보증” 관련 문항입니다. “예비창업보증”은 Hybrid 창업자에게 창업 전에 보증한도(현재 유망창업기업은 최대 10억원)를 심사, 통지하고 보증지원 예정 통지 후 6개월 내에 창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신용보증*을 의미합니다. 아래 문항에 대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선택(○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보증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관이 제공하는 보증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정책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2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Hybrid 창업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3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 규모(최대 10억원)는 Hybrid 창업을 위해 충분한 규모이다	①	②	③	④	⑤
10-4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이 제공된다면 Hybrid 창업의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5	나는 Hybrid 창업시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6	나는 Hybrid 창업을 하려는 직장인들에게 신용보증기관의 예비창업보증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체크(○ 또는 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재학중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수료)
⑤ 기타()

4. 귀하의 직장의 구분(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② 대기업 ③ 중견기업 ④ 중소기업 ⑤ 기타()

5. 귀하가 다니시는 현 직장의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6. 귀하가 고용된 직업분류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는 한국고용직업분류에 따른 구분임)

- ① 경영/사무/금융/보험직 ②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③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④ 보건의료직 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⑥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
/청소직 ⑦ 영업/판매/운전/운송직 ⑧ 건설/채굴직 ⑨ 설치/정비/생산직 ⑩ 농림
어업직 ⑪ 기타()

7. 귀하의 근무 연수(직장 총경력)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20년
미만 ⑤ 20년 이상~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8. 귀하의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③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⑤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⑥ 1,000만원 이상

9.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10. 귀사의 직장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요?

-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께서는 직장의 겸직금지가 없다면 향후 퇴직 전에 Hybrid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1-1. (11번에 '예'라고 대답하신 분) 귀하께서 하실 Hybrid 창업 업종은 과거 또는 현재 업무와 일치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1-2. (11번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 귀하께서 Hybrid 창업을 하실 계획이 없는 주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선택)

① 금전적 여유(높은 급여, 노후재테크 등) ② 직장의 안정적인 정년 ③ 창업실패 가능성 ④ 가사문제(자녀돌봄, 자녀교육 등) ⑤ 창업아이템 부재 ⑥ 겸직에 대한 직장 분위기 ⑦ 기타()

12. 귀하께서 향후 Hybrid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기업유형을 선호하십니까?

① 개인기업 ② 법인기업

13. 귀하께서는 컨설팅 받을 기회가 있다면 Hybrid 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3-1. (13번에 '예'라고 대답하신 분) 귀하께서는 Hybrid 창업에 필요하신 컨설팅 분야는 무엇입니까? (필요하신 분야를 모두 선택)

① 창업아이템 선정 ② 사업타당성 분석 ③ 회사설립절차 ④ 생산(매장)관리
⑤ 인사관리 ⑥ 재무관리(회계, 세금, 자금조달 등) ⑦ 마케팅/영업관리
⑧ 기타()

-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sultant Competency,
Consultant Trust, and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on Employee's Hybrid Start-up Desire and Start-up Intention
– Focused on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MG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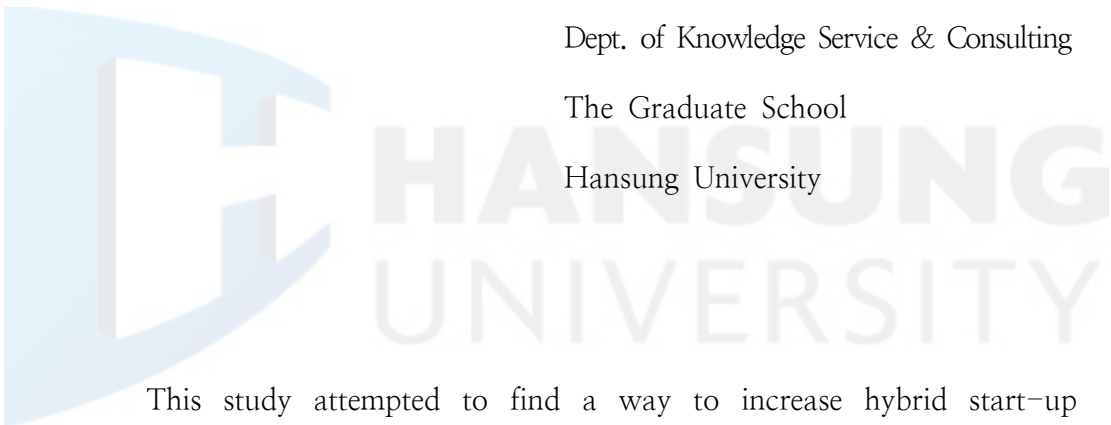
Yun, Kyung Ho

Major in Management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stylized blue and white graphic. A large, light blue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HANSUNG UNIVERSITY', is overlaid diagonally across the center of the page.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increase hybrid start-up intention that can predict hybrid start-ups a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office workers to maintain their jobs and start-ups in order to secure additional income for office workers living in salary, prepare for economic activities in case it is difficult to re-employment after dismissal or retirement age, and reduce the risk of bankruptcy due to business failure of full-time entrepreneurs who try to start a business without going to work.

In this study, consultant competency, consultant trust, and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were suggested as new factors that can increase hybrid start-up desire and hybrid start-up intention in addition

to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preceding variables(start-up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us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MGB) as a behavior prediction theory explaining hybrid start-up intention.

From June 7, 2021 to June 16, 2021, a survey was conducted on men and women in their 20s to 50s, who are salaried workers, taking into account the proportion of the number of business workers by region across the country through external research institutes and online Google questionnaires. For 1,128 samples collected through this, SmartPLS 3.0(Ver. 3.3.3), a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for PLS-ba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Partial Least Squares SEM : PLS-SEM), one of the social science statistical programs, was used.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measurement model evaluation, and structural model evaluation was conducted, and the research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by confirming the significance and relevance of path coefficients.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was analyzed by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and direct effects, and the moderation effect was further analyzed through Multiple Group Analysis(MGA) after classifying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mpetency of a dedicated consultant for hybrid start-up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hybrid start-up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and hybrid start-up desire,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rust of a dedicated consultan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ll of the preceding variables (start-up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related to hybrid start-up, and reduced hybrid start-up desire by statistically negatively affecting hybrid start-up desire.

Third, it was found that all five preceding variables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related to hybrid start-up had positive effects on hybrid start-up desire.

Fourth, if office workers take out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a lack of start-up funds when starting hybrid start-up, using government guarantee support from a credit guarantee agency called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hybrid start-up desire and start-up intentions, but has little influence.

Fifth, as common in most preceding studies, it was found that hybrid start-up desire in hybrid start-up has a positive effect on hybrid start-up intention as a very large influence.

Sixth, in the mediation effect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preceding variables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start-up attitude and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had the effect of complementary partial mediation in the effect of consultant competency on hybrid start-up desir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hybrid start-up desire had a complementary partial mediation on hybrid start-up intention.

Seventh, the moderation effect analysis through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some pathways have moderation effects in gender groups(male, female), concurrent prohibited groups(yes, no), age groups(low age, high age), workplace stability groups(stability, instability), and household income groups(high income, low income).

Eighth, if there is no ban on concurrent positions in the workplace, about 67.3% of office workers who are willing to start hybrid start-ups

before retirement want to start hybrid start-ups in new industries different from those in the past or prese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intention of starting a hybrid start-up due to the possibility of start-up failure and the absence of start-up items. About 71.2% of office workers wanted to receive hybrid start-up consulting mainly in areas such as selection of start-up items,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and financial management(accounting, tax, financing, etc.).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such as empirical analysis, hypothesis verification, and moderation effect analysis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presented by the research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firs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turning point in studying hybrid start-ups in earnest by combining the consulting industry with a dedicated consultant to revitalize hybrid start-ups. Second, it is meaningful that consultant competency and consultant trust, which are variables used in other research fields, were introduced simultaneously as leading variables affecting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and that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has been expanded by adding a new research variable called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which is supported before hybrid start-up. Third, the factor of consultant trus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various variables in preceding studies,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ybrid start-ups, but unlike the preceding theories, the factor of trust showed different results in hybrid start-ups. Fourth, like preceding studies, it has been proven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hybrid start-up intention of office workers, the desire to start a business must be increased, and it is theoretically meaningful that all of the preceding variables of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tart-up desire.

Next, looking at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what

researchers want to propose through it, first,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Korea SMEs & Startups Agency,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and Credit Guarantee Agency need to train consultants with sufficient capabilities and use them as consultants dedicated to hybrid start-ups for office workers. Second, consultant trust was found to lower hybrid start-up intention by reducing hybrid start-up desire, and consultants should increase their reliability in selecting start-up items and analyzing business feasibility to revitalize the hybrid start-up consulting market as a consulting niche market.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hybrid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s for office workers on a trial basis to prevent the insolvency of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s implemented by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and to support re-challenge after start-up failure. Fourth, in order to revitalize the hybrid start-up of female office workers, it is important to develop women's own confidence in start-up, and it is desirable to induce hybrid start-up in their 40s to 50s, a high-age group. If there is no restriction on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employment for office workers,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larg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sire for hybrid start-ups by increasing the attitude and positive expectations through high-trust consultants, and high-income groups need to increase their desire to start a hybrid business through sufficient consultants. Fifth, if office workers do not start the same business as their current workplace, the government should lift the ban on concurrent employment of office workers like Japan to encourage office workers to start hybrid businesses and introduce a government support system in policy. Sixth, the consulting industry should cultivate consultants with sufficient capability to select start-up items and analyze business feasibility for hybrid start-up consulting, a new niche market.

This study needs to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through the

following studies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measure how much hybrid start-up intention actually increased or decreas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using variables that positively affect hybrid start-up desire,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gree of change in the effect of consultant competency and trust on hybrid start-up desire by dividing office workers before and after the time they receive consulting from consultants. Second, I would like to propose to study the effect of the sub-components of consultant competency and trust on hybrid start-up desire and hybrid start-up intention in the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 Third, it is necessary to study hybrid start-ups for office workers preparing for actual hybrid start-ups. Fourth, in addition to the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s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influences of various government support systems such as education support, infrastructure support, and direct funding to find a government support system that most influences hybrid start-up desire and start-up inten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study hybrid start-ups for hybrid start-ups that are actually running hybrid start-ups or have facts that they have run in the past. Sixth, unlike conventional start-up consulting, a follow-up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hybrid start-up consulting method suitable for office workers is presented.

【Keywords】 consultant competency, consultant trust, hybrid start-up, preliminary start-up guarantee, attitude, subjective norm, positive anticipated emotion, negative anticipated emo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tart-up desire, start-up intention, model of goal-directed behavior